

사이버폭력 연수 프로그램 표준안 개발을 위한 연구

- I 서론
- II 사이버폭력 관련 연수자료 내용 분석
- III 사이버폭력 예방역량 제고
- IV 사이버폭력 예방역량 강화
- V 사이버폭력 지도역량 강화
- VI 사이버폭력 상담역량 강화
- VII 표준연수안

집필진

오인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정지연 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이혜란 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양수연 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안혜지 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연구협력관

유상범 과장(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한유화 교육연구관(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김주숙 교육연구사(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기획 · 검토

장시준 본부장/센터장(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정광훈 부장(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조규복 책임연구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구찬동 선임연구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김아라 선임연구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본 리포트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연구자의 개인 견해를 밝혀둡니다.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
II. 사이버폭력 관련 연수자료 내용 분석	3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3
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9
3. 푸른나무재단	13
4. 경찰청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16
III. 사이버폭력 예방역량 제고	21
1. 사이버폭력의 개념	21
2. 사이버폭력의 유형	24
3. 사이버폭력의 특징	35
4. 사이버폭력의 영향	41
5. 사이버폭력의 실태	52
IV. 사이버폭력 예방역량 강화	61
1. 학교폭력예방법 및 사이버폭력 관련 법령(제도)	61
2.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71
3.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해외 사례 분석 및 활용 방안	81
V. 사이버폭력 지도역량 강화	94
1. 사이버폭력 징후 발견과 지도방법	94
2. 사이버폭력 유형별 교육방법	103
3. 사이버폭력 학부모 지원방법	110

VI. 사이버폭력 상담역량 강화	132
1.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보호방법	132
2.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상담 및 지도방법	138
3. 사이버폭력 관계회복 상담 및 지도방법	143
VII. 표준연수안	148
1. 안내자료	148
2. 기본 연수안	151
3. 심화 연수안	179
참 고 문 헌	221

표 차 례

〈표 II-1〉 2019 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연구 워크숍 구성	3
〈표 II-2〉 2019 년 학교 사이버폭력 예방 Wee 센터 역량 강화 직무연수 구성 ...	5
〈표 II-3〉 2020 년 사이버폭력 예방역량 강화를 위한 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직무연수 구성	6
〈표 II-4〉 2021 년 사이버폭력 예방역량 강화를 위한 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직무연수 구성	8
〈표 II-5〉 사이버폭력 대응 역량 지도 기르기(초등) 구성	9
〈표 II-6〉 사이버폭력 대응 역량 지도 기르기(중등) 구성	10
〈표 II-7〉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는 초등교사 수업 노하우(초등) 구성	11
〈표 II-8〉 쉽게 따라하는 소셜미디어 소통(공통) 구성	12
〈표 II-9〉 푸른나무재단 사이버 정글 가디언 푸른 꼬끼리 강사 양상 교육 구성	14
〈표 II-10〉 경찰청 12 종 예방교육 표준강의안의 구성과 분량	16
〈표 II-11〉 경찰청 사이버폭력 예방 표준강의안	18
〈표 III-1〉 학교폭력예방법 중 사이버폭력 관련 조항	21
〈표 III-2〉 사이버폭력의 주요 정의(김도희, 2021)	23
〈표 III-3〉 선행연구에서의 사이버폭력 유형	25
〈표 III-4〉 새로운 사이버폭력의 유형과 사례	33
〈표 III-5〉 사이버폭력이 미치는 영향	41
〈표 III-6〉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폭력 피해 후 심리	42
〈표 III-7〉 교육부: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응답률 (2021 년 1 차)	53
〈표 III-8〉 교육부: 최근 3 년간 학교폭력 현황 (2018.6~2021.6)	54
〈표 III-9〉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해 경험 비율	55
〈표 III-10〉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 비율	55
〈표 III-11〉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폭력 경험률	56

<표 III-12>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폭력 목격 후 대응	57
<표 III-13>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폭력 가해 이유	58
<표 III-14>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폭력 피해 이유	58
<표 III-15> 기관별 사이버폭력 피해율	59
<표 IV-1> 학교폭력예방법	61
<표 IV-2> 학교폭력예방법 중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 관련 조항	62
<표 IV-3> 연령에 따른 형사처분(형사처벌,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부	63
<표 IV-4> 소년법의 보호처분 종류	64
<표 IV-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표-오프라인 폭력 경우	67
<표 IV-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표-사이버폭력 경우	68
<표 IV-7>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유형과 구성	72
<표 IV-8> 사이버어울림 기본(역량) 프로그램 개요	73
<표 IV-9> 사이버어울림 심층(유형) 프로그램 개요	74
<표 IV-10> 사이버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과목 별 예시	75
<표 IV-11> 교육과정 연계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운영방안(예시)	76
<표 IV-12> 사이버어울림 기본(역량) 프로그램	77
<표 IV-13> 사이버어울림 심층(유형) 프로그램	79
<표 V-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중 청소년유해매체물과 관련한 법령	117
<표 V-2> T 청소년 안심팩의 주요 기능	118
<표 V-3> KT 안심박스의 주요 기능	119
<표 V-4> 자녀폰 지킴이의 주요 기능	120
<표 V-5> 사이버안심존(앱)의 주요 기능	121
<표 V-6> 스마트안심드림(앱)의 주요 기능	122
<표 V-7> 푸른 꼬끼리(앱)의 주요 기능	123
<표 V-8> 그린 i-Net 에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종류 및 특징	124

그림 차례

[그림 II-1] 푸른나무재단의 푸른 코끼리 활동 영역	15
[그림 III-1] ‘멤버놀이’라는 사이버폭력으로 괴로워하던 여고생이 목숨을 끊은 사건 ..	49
[그림 III-2] 사이버폭력과 집단 따돌림으로 괴로워하던 남고생이 목숨을 끊은 사건 ..	49
[그림 III-3] 푸른나무재단-교육부 사이버폭력 피해율 증감 추이 비교	60
[그림 IV-1]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기본(역량)	73
[그림 IV-2]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심층(유형)과 교과연계(국어)	75
[그림 IV-3] PACER’ s National Bullying Prevention Center 웹사이트	82
[그림 IV-4] Cyberbullying Research Center 웹사이트	83
[그림 IV-5] Stop Bullying 웹사이트	84
[그림 IV-6] Violence Prevention Works 웹사이트	84
[그림 IV-7] Office of the eSafety Commissioner 웹사이트	85
[그림 IV-8] 부모를 위한 자료제공 페이지	86
[그림 IV-9] NetSafe 웹사이트	87
[그림 IV-10] UK Safer Internet Centre 웹사이트	88
[그림 IV-11] Safer Internet Day 2021 행사 페이지	89
[그림 IV-12] e-Enfance 웹사이트	90
[그림 V-1] 2021 학부모용 사이버폭력 예방·대응가이드	114
[그림 V-2]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20년 6월호)	115
[그림 VI-1]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이 한 일 (좌), 피해학생이 겪은 일 (우)	145
[그림 VI-2] 나의 마음 전달하기 (초·중등용)	14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정보통신기기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삶은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변했다. 알람 소리에 기상하며, 신문으로 뉴스를 접하고, 날씨를 확인하며, 음악을 듣고, TV를 보는 이 모든 활동이 지금은 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이뤄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오프라인의 실제 공간에 살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사이버 공간에서도 대인 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학교폭력 현상 역시 사이버 공간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이버폭력이 현실화되면서 「학교폭력 및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폭력을 새로운 유형의 폭력으로 규정하며 2012년 개정되었다. 현재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사이버 따돌림’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되어 있다.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제시된 7가지의 학교폭력 하위 유형 중 하나로서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 문제는 이 법에 근거하여 예방하고 개입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사이버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물리적, 신체적 폭력과 같이 가시적인 폭력은 감소하는 반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정서적, 관계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다(푸른나무재단, 2021).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면 수업이 줄어들고 온라인 수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이버폭력은 더욱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덕난, 유지연, 2021; 최은선, 박남제, 2021).

학교폭력예방법의 제15조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생,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이버폭력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는 학생을 위한 교육자료가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학교폭력 대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허종렬, 2012) 교사를 위한 사이버폭력 교육자료는 더욱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사를 위한 사이버폭력 교육자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교사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예방 및 대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를 대상으로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 관련 교육을 해야 하는 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표준연수안을 제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사가 사이버폭력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이버폭력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역량을 신장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지능정보원(NIA), 푸른나무재단, 경찰청 등의 기관에서 발행한 교사 대상 사이버폭력 연수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를 위한 사이버폭력 교육자료의 핵심적 내용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그밖에 다양한 사이버폭력 문헌을 바탕으로 교사 대상 연수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여 일차적으로 연수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어 본 연구의 집필진과 기획진의 회의를 통해 연구내용의 목차를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확정된 목차의 순서에 근거하여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교육자료는 크게 (1) 이슈리포트, (2) 기본 연수안, (3) 심화 연수안 3종을 개발하였다. 이슈리포트는 교육내용에 대한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구성하였고, 연수안은 50분용 PPT 슬라이드(기본 연수안)와 100분용 PPT 슬라이드(심화 연수안)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연수안의 경우 슬라이드를 설명하는 스크립트를 동시에 개발하여 단위 학교의 연수 담당자가 쉽게 연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II. 사이버폭력 관련 연수자료 내용 분석

II 장은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기존 연수자료를 분석하여 표준연수안의 핵심적 내용을 추출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지능정보원(NIA), 푸른나무재단(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및 경찰청에서 발행한 자료에 대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가.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연수 워크숍

1) 연수정보

이 자료는 2019년도 단위학교 사이버폭력 예방 강화 교육부 정책 지원을 위한 자료이다.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및 현장 교원의 사이버폭력,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된 워크숍 자료이다(교육부, 전라남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9).

2) 연수내용

연수자료는 아래의 <표 II -1>과 같이 전문가 특강과 우수사례 및 프로그램의 이해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 -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연구 워크숍 구성

유형	주제
전문가 특강	청소년 사이버폭력 이해 및 학교 예방교육 방안 1) 개념적 이해가 왜 필요할까? 2) 사이버불링과 사이버폭력 중 어느 것이 적절한 개념인가? 3) 사이버불링과 사이버폭력을 왜 더 엄격하게 취급해야 하는가? 4)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서는 무엇을 강조해야 하는가? 5)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유형	주제
우수사례	초·중등 예방교육 및 교육활동 시사점(디지털 시민성 함양 기반, 휴지통 프로젝트를 통한 사이버불링 EMPTY 만들기) 1) 사이버폭력 예방 및 근절,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공동체 참여 활동 2) 학교 단위 교사연구회 구성 및 운영 현황 3)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타 활동 4) 선도학교 운영 수기
	중등 예방교육 및 교육활동 시사점(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1) 배려와 소통의 공간 행복한 인터넷 세상 : 사이버폭력 예방 DAY 페스티벌 2) 사이버폭력 이제 우리가 막는다! 학생자율동아리 '사이다' 3) 함께 만드는 우리학교 안전 교직원 동아리 'Safety4U'와 '학부모 지킴이' 4) 선도학교 운영 수기
프로그램 이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이해(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및 교육활동 이해 현장 컨설팅을 위한 자료 안내) 1) 청소년 사이버폭력 특징 및 예방교육 2)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특징 3)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구성 4) 활용 실제

전문가 특강은 주로 사이버폭력의 개념을 중심으로 유사 개념인 사이버불링과의 비교를 통해 사이버폭력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수사례는 초등과 중등으로 학교급을 구분하여 발표하였으며, 초등의 경우 디지털 시민성 함양 기반, 휴지통 프로젝트를 통한 사이버불링 EMPTY 만들기 활동을 중심으로 교사연구회 구성 및 운영 현황과 선도학교 운영 수기를 공유하였다. 반면 중등의 경우 사이버폭력 예방 DAY 페스티벌, 학생 자율동아리, 교직원 동아리 사례를 중심으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프로그램 이해는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및 교육 활동의 이해를 위한 현장 컨설팅 자료를 중심으로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의 특징과 구성, 활용 실제로 진행되었다.

나. 2019년 학교 사이버폭력 예방 Wee센터 역량강화 직무연수

1) 연수정보

이 자료는 2019년 학교 사이버폭력 예방 Wee센터 역량강화 직무 연수의 진행을 위한 자료이다. 해당 연수는 17개 시도교육청 Wee센터 실장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9).

2) 연수내용

연수자료는 아래의 <표 II-2>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II-2> 2019년 학교 사이버폭력 예방 Wee센터 역량강화 직무연수 구성

유형	주제
전문가 특강	학교, 청소년 사이버폭력 이해 및 국내외 예방 동향 1)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피해 2)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방법론
프로그램 이해 및 액션러닝	사이버폭력 예방 집단상담 프로그램(초등) 1) 프로그램의 목적 및 유의사항 2) 프로그램 개요 및 실습 사이버 세이프가드 양성 프로젝트(중등) 1) 사이버 세이프가드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 2) 사이버 세이프가드 프로그램의 특징 3) 사이버 세이프가드 프로그램의 실제 4) 상담 현장에서의 적용상 유의점 및 액션 러닝
전문가 특강	사이버폭력 관련 법적, 제도적 내용 및 사례 1) 사이버폭력 관련 법적, 제도적 이슈 2) 사이버폭력 사례 및 대응방안 디지털 네이티브 청소년의 사이버 문화 이해 1) 디지털 네이티브의 이해 2) 청소년 사이버 문화
액션러닝	초등 사이버폭력 예방교육(기본/심층) 이해 1)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이란? 2) 초등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실제 중등 사이버폭력 예방교육(기본/심층) 이해 1) 학교 안 사이버폭력의 사례 공감하기 2) 중등 사이버어울림프로그램 활용하기
전문가 특강	사이버폭력과 청소년의 심리 1) 요즘 청소년들의 심리 2) 뇌 과학적으로 본 요즘 청소년들의 심리 3) 사이버폭력 가해자의 정신의학적인 문제 4) 디지털 디바이스와 공감능력
토의	사이버 예방상담 개입 사례 및 분임토의 1) 사이버폭력 예방상담 사례 및 예방 프로그램 2) 분임토의
전문가 특강	사이버폭력과 개인정보보호 이해 1) 사이버폭력과 개인정보보호 2) 개인정보보호의 주요 원칙

전문가 특강은 청소년 사이버폭력 이해 및 국내외 사이버폭력 예방 동향과 사이버폭력 관련 법적·제도적 내용 및 사례, 사이버폭력과 청소년의 심리, 사이버폭력과 개인정보보호 이해 등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리고 청소년의 심리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액션 러닝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실제적 개입을 위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초등과 중등으로 학교급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사이버폭력 예방 상담 개입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분임 토의가 진행되었다. 교육 이수자의 참여가 강조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이전 교육과 차별된다.

다. 2020년 사이버폭력 예방역량 강화를 위한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직무연수

1) 연수정보

이 자료는 2020년 사이버폭력 예방역량 강화를 위한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직무연수의 진행을 위한 자료이다(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2) 연수내용

연수자료는 아래의 <표 II-3>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II-3> 2020년 사이버폭력 예방역량 강화를 위한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직무연수 구성

유형	주제
프로그램 이해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소개 1) 사이버폭력 예방의 특수성 2)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개발 배경 3)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내용과 구성 4)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방법
사례 공유	초등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우수사례 1) 사이버폭력 사안발생에 따른 위기개입 과정 2) 사이버폭력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 3)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Wee클래스 상담활동 4)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 관련 운영 시사점

유형	주제
	중등 사이버폭력 예방·상담 사례 1) 사이버폭력의 이해 2) 사이버폭력 사례 3) 사이버폭력 예방 및 개입 4) 효과적인 예방 및 개입을 위한 노력
전문가 특강	사이버폭력 법적 개입 및 처리 1) 사이버폭력 개념의 이해 2) 사이버폭력과 법 3) 사이버폭력 사건 처리절차 4) 사이버폭력 발견 시 대처방법 5) 청소년꿈키움센터
	사이버폭력 상담 이론과 기법 및 상담 실제 1) 사이버폭력 관련 청소년 이해 2) 청소년상담에서 관계형성 3) 청소년 비대면 상담 : 전화 및 사이버상담

프로그램 이해는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사이버폭력 예방의 특수성과 함께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의 개발 배경, 내용과 구성, 활용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사례 공유는 초등과 중등으로 학교급을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초등의 경우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중등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를 공유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특강은 사이버폭력의 법적 개입 및 처리로 사이버폭력의 법령에 관한 내용과 사이버폭력 상담 이론과 기법 및 상담 실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2019년 연수자료와 비교하여 전문가 특강에서 차별점을 보였는데 사이버폭력 관련 법적 문제에 초점을 둔 점과 사이버폭력 관련 학생의 실제 상담을 다룬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라. 2021년 사이버폭력 예방역량 강화를 위한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직무연수

1) 연수정보

이 자료는 2021년 학교 사이버폭력 예방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직무 연수의 진행을 위한 자료이다(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1).

2) 연수내용

연수자료는 아래의 <표 II-4>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II-4> 2021년 사이버폭력 예방역량 강화를 위한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직무연수 구성

유형	주제
전문가 특강	사이버를 넘나드는 폭력 : 사이버폭력 이해와 상담개입 1)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2) 사이버 세계와 사이버폭력의 특징 3) 사이버폭력 피해, 가해, 목격학생 특징 및 상담개입
프로그램 이해	사이버어울림 소개 및 활용방법 1)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개발 배경 2)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내용과 구성 3)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방법 4)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가이드
사례공유	사이버어울림을 활용한 사이버폭력 예방·상담 사례(초등) 1) 사이버폭력 사안발생에 따른 위기개입 사례 2) 사이버폭력 사후관리 프로그램 3)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적용 사례 및 예방교육활동 4)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Wee클래스 상담활동사례
	사이버폭력 예방·상담 사례 및 활동(중등) 1) 사이버폭력 관련 사례 및 위기개입과정 2)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 및 집단상담 3)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Wee클래스 상담활동
전문가 특강	스마트폰 사용과 사이버폭력 1) 스마트폰 중독이란 2) 청소년에게 중독이 왜 위험한가? 3) 스마트폰 콘텐츠별 위험 요인 4) 스마트폰 중독과 사이버폭력
토크 콘서트	사이버폭력 예방·상담 토크콘서트 - 심리 및 상담 학계전문가, 초중등현장전문가, 의학전문가로 구성하여 질의 및 발제 내용 등에 대한 패널 토론
전문가 특강	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사이버폭력 1) 사이버폭력 연관 정신기제와 심리 2) 사이버폭력과 공감력 3) 요즘 아이들의 대화 매개체 4) 디지털 소통 5) 대처법

전문가 특강은 사이버폭력 이해 및 상담 개입과 점차 증가하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스마트폰 중독을 주제로 스마트폰 사용과 사이버폭력의 연관성에 대한 특강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정신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사이버폭력을 주제로 심층적인 특강이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이해는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활용 방법으로 프로그램 개발 배경, 내용과 구성 및 활용 방법과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가이드를 소개하였다. 사례 공유에는 학교급을 초등과 중등으로 구분하여 초등에서는 사이버어울림을 활용한 사이버폭력 예방·상담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중등에서는 사이버폭력 관련 사례 및 위기 개입 과정에 대하여 집단상담 및 Wee클래스 활동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수에서는 심리 및 상담 학계 전문가, 학교 현장 전문가, 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토론이 포함되어 사이버폭력 예방 및 상담에 대한 토크콘서트가 진행된 점에서 지난 교육과 차이를 보인다.

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가. 2020 인터넷 윤리 및 사이버폭력 예방 교원리더 연수

1) 사이버폭력 대응 역량 지도 기르기(초등)

초등의 「사이버폭력 대응 역량 지도 기르기」는 15차시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상담사례를 통해 사이버폭력을 이해하고 사이버폭력 발생 시 각 사례에 따른 교사의 대응과 사전에 사이버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 활동 중심의 지도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차시별 내용은 아래의 <표 II-5>와 같다.

<표 II-5> 사이버폭력 대응 역량 지도 기르기(초등) 구성

차시	차시명
1	사이버폭력 치유교육의 원칙과 필요성을 이해해요
2	SNS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살펴봐요
3	사이버폭력의 가해 및 피해 유형별 특징을 살펴봐요
4	사이버폭력의 일반적, 심리적 요인을 파악해요
5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의 상담방법을 배워봐요
6	사이버폭력 예방 징후 발견과 지도 방법을 배워봐요

차시	차시명
7	사이버폭력치유프로그램의 활용방법을 살펴봐요
8	자신의 감정 조절 방법을 배워봐요
9	긍정 정서를 키우기 위해 작은 실천을 해봐요
10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배워봐요 I
11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배워봐요 II
12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한 달간의 프로젝트!
13	사이버폭력 예방을 통한 바람직한 친구관계를 형성해요
14	사이버폭력 사전 예방을 위한 전략을 세워봐요
15	사이버폭력 사후 구제를 위한 방안을 배워봐요

이 연수의 특징은 사이버폭력 치유 교육을 중심으로 SNS의 긍정 및 부정적 효과와 사이버폭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사이버폭력 치유프로그램의 활용 방법을 언급하고 감정조절의 내용을 포함하여 긍정 정서 및 자존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방법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사이버폭력 예방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을 다루고 있다.

2) 사이버폭력 대응 역량 지도 기르기(중등)

중등의 「사이버폭력 대응 역량 지도 기르기」는 15차시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상담사례를 통해 사이버폭력을 이해하고 사이버폭력 발생 시 각 사례에 대한 교사의 대응과 사전에 사이버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 활동 중심의 지도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차시별 내용은 아래의 <표 II-6>과 같다.

<표 II-6> 사이버폭력 대응 역량 지도 기르기(중등) 구성

차시	차시명
1	사이버폭력 치유교육의 이해
2	SNS의 빛과 그림자
3	사이버폭력의 실상을 이해하기
4	사이버폭력 발생의 심리적 기제의 이해
5	사이버폭력 관련 학생 상담하기
6	사이버폭력의 예방 및 지도와 교사 치유
7	사이버폭력치유프로그램의 소개와 활용방법
8	감정의 주인은 나
9	긍정 정서로 키우는 자기 효능감

차시	차시명
10	감사와 희망의 날개로 비상하는 행복의 학교
11	우정과 배려로 만들어가는 안전기지
12	나를 스스로 지탱하는 힘, 자존감과 행복
13	바람직한 친구관계 형성을 통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사례
14	사이버폭력 대응방안 : 사전 예방
15	사이버폭력 대응방안 : 사후 구제

이 연수의 특징은 사이버폭력 치유 교육을 중심으로 SNS의 긍정 및 부정적 효과와 사이버폭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사이버폭력 치유프로그램의 활용 방법을 언급하고 감정조절의 내용을 포함하여 긍정 정서 및 자존감에 대한 중요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방법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사이버폭력 예방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을 다루고 있다. 초등 연수와 비교하여 목차 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며 일부 심리적 변인(예: 자기효능감)에서 차이를 보였다.

3)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는 초등교사 수업 노하우(초등)

초등의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는 초등교사 수업 노하우」는 15차시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이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교과 연계 등 실제 수업 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활동지 등) 제공 등 인터넷 윤리와 접목된 지도 방법을 교육한다. 차시별 내용은 아래의 <표 II-7>과 같다.

<표 II -7>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는 초등교사 수업 노하우(초등) 구성

차시	차시명
1	디지털 네이티브로 바르게 키우기
2	학부모와 협력하여 건강한 디지털 시민 키우기
3	폭력없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4	혐오와 갈등을 넘어 화합하고 소통하기(다양성)
5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기(디지털 씬)
6	가짜정보에 현혹되지 않는 눈을 가지기(비판적 사고)
7	디지털 시대의 바람직한 언어 사용하기
8	디지털 상에서 오해 없이 소통하기
9	SNS에서 소소하지만 진짜 행복 찾기

차시	차시명
10	유튜브의 늪에서 아이들 구해내기
11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표현의 자유 누리기
12	인터넷의 불건전한 정보 속에서 빠져나오기(음란물, 폭력물)
13	위험 없는 안전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하기
14	건강하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기(건강상의 부분)
15	끊이지 않는 저작권 문제들과 이별하기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는 초등교사 수업 노하우」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교사가 알아야 할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의 개념을 소개하며 학부모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폭력 및 혐오와 갈등에 대비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및 디지털기기를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인터넷 불건전 정보 및 인터넷 가짜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내용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및 저작권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사이버폭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보다 넓은 관점에서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의 성격이 강하며 그 일환으로 일부 차시에서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4) 쉽게 따라하는 소셜미디어 소통 (공통)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는 초등교사 수업 노하우」는 15차시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초·중등 학생이 소셜미디어를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역량 강화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교과 연계 등 실제 수업 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활동지 등) 제공 등 인터넷 윤리와 접목된 지도 방법을 교육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차시별 내용은 아래의 <표 II-8>과 같다.

<표 II -8> 쉽게 따라하는 소셜미디어 소통(공통) 구성

차시	차시명
1	소셜미디어와 사회변화
2	소셜미디어 리터러시의 이해
3	소셜미디어 관련 교육방법
4	소셜미디어의 주체적 선택
5	소셜미디어와 평판
6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바람직한 소통
7	소셜미디어에서의 정보의 평가와 관리

차시	차시명
8	소셜미디어에서의 현명한 소비자
9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간관계
10	소셜미디어와 사이버불링
11	소셜미디어와 개인정보보호
12	소셜미디어를 통한 참여문화
13	1인 미디어로 소통하기 (I)
14	1인 미디어로 소통하기 (II)
15	소셜미디어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는 초등교사 수업 노하우」는 초등 수업에서 교사가 알아야 할 소셜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사회변화와 리터러시의 이해, 관련 교육 방법 및 주체적 선택과 평판에 대하여 상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서 정보의 평가와 관리, 현명한 소비자 되기, 인간관계와 사이버불링, 개인정보보호와 참여문화에 관한 내용을 통해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있으며 1인 미디어로 소통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는 초등교사 수업 노하우」처럼 소셜미디어의 관점에서 일부 차시(예: 10차시, 소셜미디어와 사이버불링)에서 사이버폭력을 다루고 있다.

3. 푸른나무재단(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교육부·푸른 나무 재단·사랑의 열매·삼성은 상호 협력하여 청소년의 친사회적 역량 함양을 위한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사이버폭력 예방 시스템의 국내·외 확산을 목적으로 10년 사업(2020~2029년)을 추진하고 있다.

가. 2021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사업 사이버 정글 가디언 푸른 코끼리 (PUCO) 강사 양성 교육 구성 안내

푸른나무재단은 국내 사이버폭력 예방의 성공 모델을 국외로 확대 보급하여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푸른 코끼리 사업을 진행하며 사이버 정글 가디언 푸코 교육을 통해 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강사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 -9> 푸른나무재단 사이버 정글 가디언 푸른 꼬끼리 강사 양성 교육 구성

영역	순서	차시명	내용
이론	1	청소년의 이해	청소년의 개념 이해(학문적/시대적/법률적 관점),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청소년학과 청소년 지도의 이해
	2	푸른 꼬끼리의 이해	사이버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 사이버폭력 현상 및 실태, 사이버폭력 법과 정책, 사이버폭력 솔루션(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사업 푸른 꼬끼리), 푸른 꼬끼리 기대효과
	3	학교폭력의 이해	학교폭력 개념과 현황, 학교폭력 학생 이해, 학교폭력 개입의 실제
	4	사이버폭력의 이해 및 사례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사이버폭력의 현황 및 특징, 생활 속 사이버폭력 사례,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처
	5	푸른 꼬끼리 교육 구성 및 친사회적 능력	푸른 꼬끼리 교육 구성 및 배경, 사이버폭력 사례를 통한 친사회적 능력 이해하기 및 손 유희 배우기
온라인	6	푸른 꼬끼리 사전 학습 1차시 (온라인)	사이버폭력의 이해와 유형 및 대처 방법
	7	푸른 꼬끼리 사전 학습 2차시 (온라인)	푸른 꼬끼리의 6가지 친사회적 능력 : 정직, 약속, 용서, 책임, 배려, 소유
	8	푸른 꼬끼리 사전 학습 3차시 (온라인/오프라인)	사전 학습(1, 2차시) 학습 내용 점검
프로그램 실제	9	푸른 꼬끼리 사전 학습 4차시 (온라인/오프라인)	사이버세상을 바꾼 위대한 탐험 1탄
	10	푸른 꼬끼리 사전 학습 5차시 (온라인/오프라인)	사이버세상을 바꾼 위대한 탐험 2탄
	11	푸른 꼬끼리 사전 학습 6차시 (온라인/오프라인)	사이버폭력 딜레마 토론
	12	푸른 꼬끼리 사전 학습 7차시 (온라인)	6가지 친사회적 능력 실천 방법

영역	순서	차시명	내용
오프라인	13	현장 교육 1일차	필기 평가 ①, 푸른나무재단 및 푸른 코끼리 소개, 푸른 코끼리의 기본원리와 딜레마 이해, 푸른 코끼리 학교 교육의 강사 시스템, 친사회적 6가지 능력 소개
	14	현장 교육 2일차	필기 평가 ②, 푸른 코끼리 학교 교육 현장 교육 강의 시연, 시연 평가 안내
	15	시연 평가	강사별 강의 시연 및 평가 실시

강사교육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으로 나뉘어 있으며 온라인 교육은 이론과 프로그램의 실재를 다루며 총 12차시이다. 이론에서는 청소년의 이해, 학교폭력의 이해, 친사회적 능력, 푸른 코끼리 이해와 구성을 배운다. 실제에서는 사이버폭력의 유형, 대처 방법, 푸른 코끼리 사전 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의 점검 및 연습, 딜레마 토론, 실습으로 구성된다. 오프라인에서는 실제적인 현장 교육이 가능하도록 필기 평가, 능력 평가, 강의 시연 등의 3차시로 진행된다.

푸른나무재단의 푸른 코끼리 사업은 예방교육, 상담·치유, 예방문화, 학술연구, 플랫폼 구축 등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푸른 코끼리 사업의 예방교육을 살펴보면 ①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기획: 예방교육 플랫폼 구축/운영, 예방교육 진단·연구 ②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활동: 찾아가는 예방교육, 교육 솔루션단, 상담·회복지원, 예방교육 문화 확산, 예방교육 아이디어 공모 ③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정책: 네트워킹, 포럼, 법률·정책 제안 등의 활동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활동 영역은 아래의 [그림 II-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 II -1] 푸른나무재단의 푸른 코끼리 활동 영역

예방교육은 처벌과 선도가 아닌 교육적 접근을 통해 학생들의 내적 변화를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강사교육 역시 이러한 목적 아래 진행된다. 상담·치유 활동은 개인-가정-학교-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한 전문적 회복을 지원한다. 핫라인 상담, 현장 출동, 사례관리부터 치유 테라피, 화해 분쟁 조정 등의 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하고자 한다. 예방 문화 활동에서는 청소년과 기성세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교장 선언 운동, 대국민 비폭력 캠페인, 청소년 공모전, 푸코 포럼 등을 기획 중이고 준비기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학술연구 활동에서는 사이버폭력의 원인을 규명하여 근거 중심의 예방교육을 하고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사이버폭력 검사 도구의 개발, 법률 제언, 실태조사, 정책 제언 등을 진행하고, 연구 결과와 현장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활동은 급변하는 사이버 환경에서 선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내·외 사이버폭력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푸코(PUCO) 애플리케이션, 파트너스 등을 기획 중이다.

4. 경찰청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경찰청은 2020년 12종의 사이버폭력 관련 예방교육 표준강의안을 제작, 배포하였다. 개인정보, 게임중독, 디지털 성범죄, 랜섬웨어, 명예훼손, 사이버도박, 사이버 사기, 사이버폭력, 이메일 무역 사기, 저작권법, 피싱, 해킹 등과 관련한 예방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에 맞게 구성되었다.

가. 12종 예방교육 표준강의안의 구성

경찰청에서 제작한 12종의 예방교육 표준강의안의 구성과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 관련 내용으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연수를 위한 PPT 슬라이드와 함께 슬라이드를 설명하는 스크립트도 함께 개발되었다.

<표 II -10> 경찰청 12종 예방교육 표준강의안의 구성과 분량

주제	구성	슬라이드 수
사이버폭력	① 정의 및 특징, ② 유형, ③ 사례와 영향, ④ 처벌 및 예방 방법, ⑤ Q&A	41

주제	구성	슬라이드 수
사이버 사기	① 사이버 사기란?, ② 직거래 사기, ③ 쇼핑몰 사기, ④ 조건만남 사기, ⑤ 기타 사기, ⑥ 신고 방법, ⑦ Q&A	38
사이버 도박	① 사이버 도박의 정의, ② 사이버 도박의 실태, ③ 도박으로 인한 문제, ④ 사이버 도박의 처벌, ⑤ 사이버 도박중독 예방, ⑥ 마무리, ⑦ Q&A	41
개인정보	① 개인정보란?, ② 개인정보 유출 현황, ③ 개인정보 유출 사례, ④ 개인정보 유출과 범죄, ⑤ 개인정보 보호 예방법, ⑥ Q&A	44
게임중독	① 온라인 게임 종류, ② 중독의 종류, ③ 게임중독과 심각성, ④ 게임중독 예방 방법, ⑤ 게임사기 유형, ⑥ 게임사기 예방 방법, ⑦ Q&A	31
디지털 성범죄	①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② 디지털 성범죄 유형, ③ 피해사례, ④ 처벌 법령, ⑤ 대처방안·신고 절차, ⑥ 지원기관, ⑦ Q&A	44
랜섬웨어	① 랜섬웨어의 개념 및 동향, ② 감염경로 및 과정, ③ 랜섬웨어 감염증상 및 피해사례, ④ 피해 예방 및 대처 방법, ⑤ Q&A	38
명예훼손	① 사이버 모욕/명예훼손 심각성, ②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③ 사이버 모욕이란?, ④ 실제 사례, ⑤ 처벌, ⑥ 예방 및 대처 방법, ⑦ Q&A	31
이메일 무역 사기	① 발생 현황 및 사례, ② 관련 용어 정리, ③ 전자상거래 시장, ④ 범행 수법 및 사례, ⑤ 신고 방법 및 참조 사이트, ⑥ Q&A	42
저작권법	① 저작권법 개요, ② 저작권 침해 유형 및 사례, ③ 관련 법률, ④ 예방·신고 방법, ⑤ Q&A	40
피싱	① 정의, ② 범죄유형(피해사례/예방책), ③ 처벌 규정, ④ 신고 절차, ⑤ 심리·상담(의료)기관, ⑥ Q&A	43
해킹	① 해킹의 개념, ② 해킹 피해 유형 및 사례, ③ 악성코드 유포 유형, ④ lot 해킹, ⑤ 예방·신고 방법, ⑥ Q&A	42

<표 II-10>에 정리한 바와 같이 각 슬라이드의 분량이 30~40개 내외로 유사한 분량으로 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할당 시간은 50분 내외이며 내용별 차례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된다. 표준화된 내용은 정의와 유형을 소개하고, 각 사례와 처벌, 법 규정에 대한 설명을 돕는 슬라이드로 구성되며, 그 후 예방과 대처 방법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Q&A를 넣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나. 사이버폭력 예방 표준강의안 분석(대표 사례 분석)

경찰청의 강의안 중 사이버폭력을 다룬 표준강의안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총 41 슬라이드로 구성된 사이버폭력 예방 표준강의안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정리하여 다음의 표에 제시하였다.

<표 II -11> 경찰청 사이버폭력 예방 표준강의안

주제	내용 및 특징	슬라이드 수
	최근 이슈 사례: 익산 여중생 폭행 사건 (KBS 뉴스)	1
정의 및 특징	사이버폭력의 정의	1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교육부, 2019)	1
	사이버폭력의 특징: 빠른 전파, 광범위 전파, 오랜 지속성	4
유형	① 사이버 따돌림, ② 사이버 비방, ③ 명예훼손 및 모욕, ④ 저격글, ⑤ 사이버 성폭력, ⑥ 사이버 스토킹	6
사례와 영향	피해 현황, 가해 연령 및 행위의 추세 (서울신문, 파이낸셜뉴스)	1
	연예인 사건: 학창 시절 학·폭 연루로 활동 중단	1
	가해 이유, 가·피해자는 누구 (교육부, 2019)	3
	사이버폭력의 현실화	1
	처벌	
	① 중한 처벌, ②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지울 수 없는 흔적	2
	신고방법	
	① 117 챗, 117 신고 센터,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교육청 WEE센터,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 ② 신고 전 증거 확보	5
처벌 및 예방 방법	예방방법	
	① 기본원칙, ② 도움주기, ③ SNS의 새로운 기능-단톡 초대 거부, 댓글 차단, ④ 사이버폭력 백신 어플 체험	6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3
	사이버폭력은 범죄 행위	1
	장난은 상처가, 던진 화살은 부메랑이 되고..	1
	Q&A 및 인사	2

정의 및 특징의 경우, 도입에서 실제 이슈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KBS 뉴스 동영상 클립을 사용하여 중학생 폭력 영상이 SNS상에 게시되면서 사이버폭력과 학교폭력이 함께 발생한 사건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설명하고 학교폭력 1차 실태조사 결과(교육부, 2019)를 통해 전체 학생의 1.6%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하며,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은 8.9%로 비율상 3번째를 차지함을 소개하였다. 또한, 빠른 전파, 광범위한 실시간 확산, 공유와 재생산으로 오래 지속되는 사이버폭력의 특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이버폭력의 유형으로 ①사이버 따돌림(예: 떼카, 방폭, 감옥), ②사이버 비방(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진, 글), ③명예훼손 및 모욕(거짓 내용 게시), ④저격글(단톡방에 특정인을 비난·명예훼손), ⑤사이버 성폭력(상대동의 없이 성적 사진·동영

상·개인신상 게시), ⑥사이버 스토킹(반복적으로 공포를 일으키는 말·글·그림·사진 보내기)을 소개하고 있다.

사례와 영향에서는 최근 기사를 스크랩해 가해학생의 저연령화, 교묘해지고 폭력적인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모 연예인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밝혀져 프로그램을 하차하는 등의 기사를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가해 이유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 밝혀진 내용을 설명하였다.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사이버폭력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처벌과 관련해서는 사이버 비방, 패드립, 악플, 저격글 등은 사이버상의 대표적 사례들로 명예훼손에 해당해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를 게시하여 가해자들에게는 가해 사실이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다음으로, 경찰청 117 챗 애플리케이션, 117 신고 센터,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교육청 WEE센터 등의 번호와 문자 보내는 방법을 소개하고, 신고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과 신고과정을 알려준다. 뒤이어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사이버갑 애플리케이션을 게시하여 온라인 신고/상담 방법을 소개하였다.

사이버폭력 예방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을 설명하고, 교육부 자료(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를 게시해 사이버폭력을 목격했을 때 도움을 주는 비율이 늘고 있음을 소개하고 도움주기를 당부한다. 또한, 카카오톡 내 단체 대화방 초대 거부, 인스타그램 댓글 차단 등과 같은 SNS의 새로운 기능을 소개한다. 사이버폭력 체험 애플리케이션(19세 이상 체험 가능)을 실제 시연하고 관련 영상의 시청을 포함하고 있다. 흔히 알고 있는 돌과 개구리 비유(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위태로워질 수 있다)를 특별한 설명 없이 이미지 슬라이드 3장으로 연이어 제시하는 시각적 효과를 통해 '장난과 상처'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도왔다. 이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이 범죄행위임을 강조한다. 장난은 상처가 될 수 있고 던진 화살은 되돌아온다는 점을 주지한 후, Q&A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교원대상 연수자료의 공통적인 내용은 사이버폭력의 개념, 실태, 특징, 유형, 영향 및 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개입 방안이다. 예방의 경우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많으며, 개입의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사이버폭력은 방과 후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학부모 지원 내용도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

량의 경우 기존 표준연수안의 분량을 고려할 때 50분 연수를 가정했을 때 40~50개의 슬라이드가 적절해 보인다. 또한 심화된 내용을 다루는 심화연수안의 경우에는 그 분량을 2배로 늘려 100분 연수 기준으로, 80~100개의 슬라이드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표준연수안의 특징을 고려할 때 단위 학교에서 전달 연수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슬라이드에 대한 스크립트를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Ⅲ. 사이버폭력 예방역량 제고

1. 사이버폭력의 개념

가. 사이버폭력의 정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사이버 공간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이에 오프라인의 행위가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지며 그 중 폭력과 관련된 행위 역시 온라인상에서 훨씬 빈번하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의미하는 사이버폭력은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불링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본 원고는 학교폭력의 관점에서 사이버폭력을 이해하는 관점을 택하였다. 따라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된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III-1> 학교폭력예방법 중 사이버폭력 관련 조항

-
- **(학폭예방 및 대책 법률 제2조 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제20조의3)**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모든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2조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학교폭력예방법의 제2조에서는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용어로 사이버폭력을 개념화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

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 다만 이 법에서는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일반적으로 따돌림은 폭력의 다양한 유형(예: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폭력) 중 관계적 폭력을 일컫는 용어이다. 따라서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용어는 사이버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 유형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원고에서도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용어보다 더 포괄적인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국내에서는 사이버폭력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이버 따돌림뿐만 아니라 사이버불링,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비행, 사이버범죄, 사이버 일탈 행동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폭력은 온라인 공간에서 게시판, 이메일, 이와 비슷한 형태의 전달 매체를 통하여 댓글, 게시글, 사진합성, 동영상 등의 형태로 타인에게 폭언 등 모욕을 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으로 정의되고 있다(정완, 2005). 양동철(2006)은 사이버범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욕설이나 위협을 하는 모욕, 협박 행위, 특정인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성적 수치감을 일으키는 문자나 영상 등을 전송하는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 행위,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 음란한 영상, 화상, 문자 등을 전시 및 배포하는 음란물 죄에 해당하는 행위, 나아가 초상권의 불법 사용, 개인의 사생활을 촬영한 이른바 몰래카메라 영상 유포 행위 등 인터넷상의 정보 내용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인식되어 정신적, 육체적, 재산적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로 국한하여 사이버폭력을 정의하였다. 2021년에 발행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1)은 사이버 학교폭력의 하위 유형으로 5가지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속칭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등을 통해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한편 국외에서는 사이버폭력을 일컫는 용어로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라는 용어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밖에 electronic bullying, e-bullying, cyber harassment 등의 용어로 연구되고 있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국외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Ybarra와 Mitchell(2004)은 온라인상에서 타인에게 외현적, 의도적인 공격을 가하는 행위로 보았고, Willard(2007)는 인터넷 또는 다른 디지털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위협적이거나 고통스러운 내용 혹은 이미지를 보내거나 게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Hinduja와 Patchin(2012)은 사이버불링을 이메일, SNS, 문자 메시지, 채팅방, 동영상 등을 통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행동으로 정의하였고, Kowalski와 Limber, Agatston(2012)는 이메일이나 블로그를 통해 상대를 비방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상대를 협박하는 경우, 메신저와 같은 인스턴트 메시지(IM: instant message)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동들을 사이버 괴롭힘으로 규정하였다. 국내외 연구에서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정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2> 사이버폭력의 주요 정의(김도희, 2021)

구분	정의	연구자
	컴퓨터, 핸드폰, 또는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동	Hinduja & Patchin(2014), Belsey(2005)
	전자적인 형태의 연락을 이용하여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격적이고 의도적인 행위	Smith et al.(2008)
국외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디지털 혹은 전자 미디어를 통해 의도적으로 다른 이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편함을 주기 위해 행하는 모든 행동	Tokunga(2010)
	연령에 관계없이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공격적, 경멸적, 유해하거나 원하지 않는 행동으로 인식하는 행위를 개인에게 행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	Grigg(2010)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인 해를 입히는 것	Smith et al.(2013)

구분	정의	연구자
	핸드폰과 같은 매체나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언어나, 문자, 이메일 혹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반복하여 피해를 주는 행동	오인수(2011), 김영은, 오인수, 송지연(2019)
국내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이메일, 휴대폰, 메신저, SNS, 웹사이트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동(Li, 2007)	홍솔지, 최윤경(2017)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정원(2005)
	인터넷 게시판이나 채팅, 메신저, 이메일, 쪽지 등에서 상대방에게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욕설이나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게시판 도배 및 성희롱 등을 하는 행위	정여주, 김한별, 전아영(2016)

이상에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국내외의 정의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학교폭력에 방법에 제시된 정의와 선행연구의 다양한 정의를 바탕으로 본 원고에서는 사이버폭력을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특정 학생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공격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였다.

2. 사이버폭력의 유형

가. 사이버폭력의 유형 정리

사이버폭력의 유형은 학자별로 매우 다양하게 분류되며, 새로운 유형이 빠르게 등장하고 사라지는(예: 카톡 감옥) 특징을 보인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이버폭력의 유형을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최근 최두진 외(2018)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유형에 사이버 갈취와 사이버 강요를 추가하여 8가지 유형으로 사이버폭력을 구분하기도 하였다. Willard(2007)는 가해 행동의 유형에 따라 사이버폭력의 유형을 플레이밍(flamming: 온라인에서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며 짧은 시간 동안 강렬하게 발생하는 다툼),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명예훼손, 사칭, 아웃팅(outing: 타인의 개인정보나 비밀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배제의 7가지로 분류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이버폭력의 유형을 정리하여 다음의 <표 III-3>에 제시하였다.

<표 III -3> 선행연구에서의 사이버폭력 유형

연구자	유형	유형 (수)
Patchin & Hinduja (2015)	상처 주는 글 게시, 나쁘게 표현하거나 상처를 주는 사진 및 동영상 게시, 잘못된 정보 유포, (문자를 통한) 위협,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남에게 상처를 줌	7
Willard (2007)	플레이밍,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명예훼손, 사칭, 아웃팅, 배제	7
두경희, 김계현, 정여주 (2012)	언어폭력, 폭로·공개, 아이디 도용·숨기기, 사기, 스토킹, 소외, 성희롱·성폭력, 해킹	8
방송통신위원회 (2021)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	8
서경원 (2006)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4
성동규, 김도희, 이윤석, 임성원 (2006)	사이버 모욕,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프라이버시 침해/신상정보 유포	5
신나민, 안화실 (2013)	이메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채팅, 온라인 게임에 따라 구분하고 가·피해 유형으로 놀림/무시, 욕설/협박, 허위 사실이나 소문 유포, 신상정보나 사생활 노출,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 및 합성 사진 유포 등으로 세분화	5
심홍진, 한은영, 박병선, 박남기 (2014)	웃음거리를 만드는 메시지, 비방 혹은 깎아내리는 메시지, 성적 불쾌감 유발 글 사진 동영상, 욕설, 인신공격, 위협 및 협박, 무시하고 유령 취급, 원하지 않는 대화방 초대, 혼자만 채팅방 남겨둠, 근거 없는 사실 유포	10
안성진 외(2015)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명예훼손, 해피슬래핑, ID 도용, 사진 변조, 사이버 갈취, 사이버 성폭력, 카톡 감옥, 사이버 차단, 플레이밍, 사이버 명령, 안티 카페, 사이버 왕따 놀이	13
윤미선, 김면주, 박정호 (2015)	사이버 모욕,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위장, 사이버 따돌림(소외와 배척)	6
이승현, 강지현, 이원상 (2015)	사이버 비방(직접 욕하기, 나쁜 소문 내기, 저격 글, 집중 공격), 사이버 감옥 및 스토킹, 개인정보 관련(아이디 도용 및 신상 털기), 사이버 갈취 및 명령(사이버 절취, 와이파이 셔틀, 사이버 명령), 사이버 성폭력, 이미지 불링, 플레이밍, 사이버 배제	8
이인태 (2012)	언어적 사이버불링, 비언어적 사이버불링, 사이버 따돌림	3
임상수 (2011)	단문 문자를 통한 유형, 사진 혹은 동영상을 전송하는 유형, 보이스메일을 통한 유형, 이메일을 이용한 유형, 채팅방을 통한 유형,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를 통한 유형, 블로그나 SNS를 통한 유형, 온라인 게임의 상호작용을 통한 유형	8
정여주 (2021)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	7

연구자	유형	유형 (수)
정완 (2005)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희롱, 음란 스팸메일,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매매, 사이버 음란물	7
정한호 (2012)	사이버 욕설,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위장, 사이버폭로, 사이버 배제, 사이버 스토킹	7
조운오 (2013b)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비방, 이미지 불링, 아이디 도용, 사이버 갈취,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감옥, 사이버 따돌림, 플레이밍, 사이버 명령, 안티 카페, 사이버 왕따 놀이	12
조희정 (2012)	인터넷 서비스 아이디를 도용하여 거짓 정보 올리기, 문자로 루머 퍼뜨리기, 동성애자라고 폭로하기, 휴대폰으로 음해 문자 보내기, 온라인에 거짓 소문 퍼뜨리기,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학생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하기, 성매매 사이트 등 불법·음란사이트에 피해학생의 신상 정보 노출하기	7
주용완, 이계남, 최영준, 윤은정 (2017).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 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7
최두진 외 (2018)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	8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6

본 원고에서는 위의 선행연구와 오인수 등(2019)의 연구 및 정여주(2021)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이버폭력의 유형을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의 7가지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의 개념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구체적 인 내용의 게시물을 사이버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인에게 노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사이버 공간에 유포되는 글이 특정인에 대한 비방할 목적을 분명히 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의 명예훼손에 비해 전파 속도가 월등히 빨라 피해학생의 인권 침해 정도가 오프라인에 비해 심각할 수 있다.
-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대인관계 문제가 사이버 공간으로, 명예훼손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 인터넷에 접속하는 즉시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유포될 수 있기에 피해가 광범위하며 심각성이 크다.
-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자기의 얼굴과 신상을 노출하지 않은 채로 얼마든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가능하다.
-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 의식 혹은 죄책감이 오프라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향을 보인다.
- SNS와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의 게시물 등록과 댓글 달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이버 명예훼손이 더욱 쉽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ASK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어나는 명예훼손의 경우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동조가 쉬워 다양한 학교급의 학생들이 폭력에 가담할 수 있다.
- 사이버 공간에서는 특정 정보가 다양한 경로로 이동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방법으로 명예훼손과 관련한 정보를 차단하고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의 경우 명예훼손의 직접적인 가해자를 찾아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어렵다.

2)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모욕은 추상적인 판단이나 감정적 표현을 통해 타인을 무시하거나 욕되게 하는 게시물을 사이버 공간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사이버 모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사이버 공간에서는 가볍게 재미나 장난으로 생각한 표현이 상대에게는 모욕감을 주는 등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 사이버 모욕은 단톡방 '떼카(카톡방에 초대 후 단체로 욕설하는 방식)'와 같은 새로운 사이버폭력의 유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 쌓인 부정적인 감정이 온라인으로 확장되어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글의 형태로 유포될 수 있다.
-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이버 모욕이 다시 오프라인 공간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폭력과 오프라인 폭력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보인다.

-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적인 글이 올라온 경우 이에 피해학생이 공격적이고 감정적으로 답을 하면서 가해학생이 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사이버 모욕이 발생한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별하기 어렵다.
- ASK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어나는 모욕의 경우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기에 동조가 쉬워 다양한 학교급의 학생들이 폭력에 가담하여 폭력이 집단화되는 경향이 있다.
- 사이버 공간에서는 탈억제 현상으로 인해 즉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증가한다. 따라서 오프라인보다 거친 말이나 상대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주저 없이 하는 경향이 있다(예: 패드립).

3)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은 사이버 공간에 특정인에 대한 게시물을 제작 또는 유포하여 해당 특정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성적인 표현, 성적 비하 발언, 성차별적 메시지, 음란한 동영상 및 사진 등을 사이버 공간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이버 성폭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딥페이크, 웹하드·다크웹 등의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성적인 사진과 영상의 불법적인 제작·유포가 더욱더 악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되고 있다.
-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사이버 성폭력을 마치 장난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일상에서 사이버 성폭력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2차 가해가 발생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 학생들에게는 사이버 성폭력이 일종의 청소년 하위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 성폭력 가해 및 사실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이 낮다.
- 사이버 성폭력은 소수의 피해자에 대해 익명의 수많은 가해자의 구도를 형성하기 쉬우므로 가해자를 찾아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 청소년들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왜곡된 성인식을 학습하여 성 인지 감수성이 떨어질 수 있어 많은 사이버 성폭력 가해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

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악의적인 사진합성과 비동의 영상 등이 사이버 공간에 유포되면 순식간에 무수한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어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심각하다.
- 사이버 공간에서는 정보가 다양한 경로로 이동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방법으로 성적인 영상물, 사진 등을 차단하고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4)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스토킹은 상대가 원치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이메일, 문자 등을 보내거나 특정인의 SNS에 방문 및 게시물을 남기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사이버 스토킹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사이버 스토킹은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아는 사이로부터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 사이버 스토킹에는 단순 위협, 피해학생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생활 침해, 음란물 전송, 바이러스나 유해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의 컴퓨터시스템이나 장비에 대한 공격, 피해자로 위장, 괴롭힘 행위 권장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 사이버 스토킹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학생이며 이전의 이성 친구 또는 현재의 이성 친구가 가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 SNS,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스토킹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실태 파악이 어렵고 익명의 가해학생이 SNS 메시지, 문자, 이메일 등을 보냈을 때 추적이 더욱 어렵다.
- 사이버 스토킹 피해를 보는 경우 그 영향이 피해학생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까지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해학생과 그 가족의 주변까지 위협하는 스토킹은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학생의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높다.
-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가해자는 이를 또 다른 범죄에 이차적으로 이용할 위험이 있다.

5)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은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참여시켜 주지 않거나, 단체 대화방 혹은 카페 등에 초대하였으나 그 공간에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등의 따돌

리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특정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사이버 따돌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사이버 따돌림은 시간 및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발생하므로 오프라인의 따돌림에 비해 정서 및 행동 측면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욱 크다.
- 익명성과 기기의 사용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사이버 따돌림은 오프라인의 따돌림에 비해 더욱더 반복적이며 악의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따돌림은 오프라인의 따돌림에 비해 목격자가 더욱 많을 수 있으나 목격자가 다수라 할지라도 이들이 방관하게 되면 폭력은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 따돌림은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집단의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집단의 역동이 폭력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의 특징 때문에 따돌림을 목격했을 때 가해자를 동조할 경향이 높아 폭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 사이버 따돌림의 피해학생은 사이버 공간으로부터 자신을 소외시켜 오프라인에서만 머무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등교를 거부하거나 가해학생을 피하고자 학교에서 병을 가장해 잦은 조퇴를 요구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6)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갈취는 사이버 공간에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사이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게임 아이템 등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사이버 갈취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금품갈취가 가능하기에 오프라인의 갈취에 비해 가해학생들의 죄책감이나 가해 행동에 대한 범죄 의식이 낮다.
- 최근 새로운 사이버폭력의 유형으로 주목되고 있는 와이파이 셔틀, 게임 아이템 셔틀, 기프트콘 셔틀 등 각종 셔틀이 모두 사이버 갈취의 특성을 보인 폭력에 해당한다.
- 실제 사물 외에도 사이버 공간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게임 머니, 게임 아이템 등에 대한 갈취가 많이 발생한다.
- 피해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갈취가 발생한

다. 과도한 용돈 요구 및 사용, 데이터 이용료 급증이 사이버 갈취의 가장 흔한 징후이다.

- 피해학생이 갈취하는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 혹은 학급에 있는 경우 등교를 거부하거나 병을 가장해 잦은 조퇴를 요구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7) 사이버 강요

사이버 강요는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말 또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제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사이버 강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자해를 강요하여 이를 사이버 공간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인증하도록 하는 등 강요의 위협성이 증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사이버 강요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발생해 피해학생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
- 오프라인 공간인 학교에서 발생한 강요가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이버 강요는 신체 폭행과 같은 오프라인에서의 전통적 학교폭력과 함께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 피해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강요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강요하는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 혹은 학급에 있는 경우 피해학생이 등교를 거부하거나 병을 가장해 잦은 조퇴를 요구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나. 증가하는 유형의 진화된 폭력 사례

스마트폰 보급률의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사이버 공간 노출의 장기화, SNS 사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사이버폭력의 유형은 다양해지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7b; 오인수 외, 2019; 이혜미, 양소은, 김은미, 2016; 조운오, 2017). 괴롭힘의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폭력에 동원되는 플랫폼이 다양해짐에 따라 진화한 사이버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사이버폭력의 유형이 정보통신기기의 발달과 더불어 계속하여 진화하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유형에 관한 사례는 <표 III-4>에 제시하였다.

1)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폭력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사이버 언어폭력 및 따돌림이 새로운 사이버폭력의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다(이승현, 강지현, 이원상, 2015).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떼카’란, 단체 대화방에 특정인을 초대한 후 일방적으로 욕설과 모욕적인 말 등을 퍼붓는 행위를 말한다. ‘카카오톡 감옥(카감)’은 떼카에서 더욱 진화된 사이버폭력 양상으로, 피해자가 욕설을 포함한 공격적인 말로 인해 단체 대화방을 나가면 계속해서 초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행히 ‘카감’은 카카오톡에서 새롭게 추가한 초대거부 기능을 사용하면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방폭’은 단체 대화방에 특정인을 초대한 후 갑자기 해당 특정인만을 남겨두고 한꺼번에 대화방을 나가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2) 각종 셔틀(shuttle)

‘셔틀’이란, 원래는 온라인 게임에서 운송 수단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일진에게 빵이나 먹거리를 사다 나르는 ‘빵 셔틀’, 담배를 사다 나르는 ‘담배 셔틀’ 등의 말이 사용되면서 이 용어가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행동이 사이버 공간으로 전이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이에 따라 기존의 사이버 갈취에서 더욱 진화된 형태인 ‘와이파이 셔틀’과 ‘기프트콘 셔틀’, ‘게임 아이템 셔틀’이 등장했다(이승현 외, 2015). 먼저, 와이파이 셔틀은 스마트폰의 핫스팟 기능을 활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무선 데이터를 지속적이고 강압적으로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기프트콘 셔틀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의 기프트콘을 피해자로부터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게임 아이템 셔틀은 게임을 하려고 필요한 아이템을 특정 피해학생으로부터 계속해서 상납받는 행위를 말한다(이승현 외, 2015). 이러한 셔틀은 앞서 살펴본 사이버폭력의 유형 중에서 강요와 갈취의 특징이 혼재하며 강요를 통해 갈취하는 형태를 취한다.

3) 지인 능욕

‘지인 능욕’이란 평소 알고 지내던 특정인을 모욕하고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인의 얼굴을 다른 사진과 합성하여 이를 사이버 공간에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범죄가 주로 연예인 혹은 유명인을 대상으로 발생하였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같은 학급 친구, 연인, 알고 지내는 선후배를 대상으로

도 이와 같은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인 능욕의 피해자가 여성일 때 합성된 사진이 음란물의 형태로 유포되어 사이버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이세림, 김진영, 전종설, 2021).

4) 놀이를 빙자한 폭력

최근 단순한 놀이의 형태에서 시작되었지만 끝내 사이버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멤버 놀이’와 ‘인증 놀이’가 이에 해당한다(교육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1; 황민규, 2020). 멤버 놀이란, SNS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본인이 특정 연예인인 척 연기를 하며 교류하고 때로는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형태의 놀이 문화를 의미한다. 인증 놀이란, 피해자에게 자해를 강요한 후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사이버 공간에서 인증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처음에는 재미를 위한 놀이로 시작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모욕, 강요, 갈취 등의 형태로 변화되어 결과적으로 사이버폭력의 형태로 변질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5) 신종 익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폭력

최근 익명으로 질문을 올리고 응답을 할 수 있는 ASK와 같은 신종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였다. 일부 청소년들은 이를 악용하여 특정인이 올린 질문에 대해 공격적이고 비방하는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다는 행위를 보인다. 또한,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해당 특정인을 저격하는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자주 발견된다(김영훈, 2021).

<표 III-4> 새로운 사이버폭력의 유형과 사례

유형	사례
떼카	고등학교 2학년 정양은 최근 익명의 링크를 SNS로 공유하여 떼카에 가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누군가로부터 공유받은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특정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성희롱하고 갑자기 나간다고 하였다(박우진, 2020).
카카오톡 감옥	중학교 2학년 A양은 최근 자신의 SNS 계정을 모두 삭제하였다. 지난해 친구와 다툼 이후 A양을 향한 카카오톡 감옥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반 친구들은 A양을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한 후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부었고, A양이 해당 대화방을 나가면 다시 초대해 더욱 심한 말을 쏟아내는 것을 반복하였다. 가해학생들은 A양의 허락 없이 SNS에 A양의 사진을 올려 외모를 비하하기도 하였다(허미담, 2021).
방폭	초등학생 B양은 친구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 일제히 대화방을 나가버려 큰 충격에 빠졌다. 가해학생들은 B양을 제외한 새로운 단체

유형	사례
	대화방을 개설해 A양을 험담하였다. 또한, SNS 프로필과 상태 메시지를 통해 A양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기도 하였다(송옥진, 2019).
와이파이 셔틀	중학교 1학년 A군은 최근 데이터 이용료가 24만 원가량 부과되었다. A군의 부모님이 상황을 묻자, A군은 ‘반 아이들이 핫스팟을 켜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며 울먹였다. 학교에 와이파이기가 없으니 일진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아끼기 위해 A군에게 와이파이 셔틀을 강요한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중학교 2학년 최모 군은 일진들의 집요한 요구에 무제한 요금제로 바꾸며 와이파이 셔틀을 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 박모 군은 각 반에 한 명씩 와이파이 셔틀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처음에는 몇 명만이 자신의 데이터를 썼지만, 이제는 반 전체가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정인혜, 2018).
기프트콘 셔틀	고등학교 김모 군은 자신이 간식을 먹고 싶을 때마다 한 학우에게 기프트콘 선물을 강요했다고 털어놓았다. 한두 번 받다 보니 어느새 이러한 상황이 당연하게 여겨졌다고 고백하였다. 또한, 학우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기프트콘 선물을 강요할 수 있어 죄책감이 덜했다고 하였다(장휘, 2018).
게임 아이템 셔틀	중학교 1학년 김모 군은 수업이 끝나면 종일 게임을 해야 한다고 토로하였다. 같은 반 일진이 게임 캐릭터를 ‘레벨 업을 시켜 놓으라.’고 강요했기 때문이다. 원하는 만큼 레벨을 올리지 못하면 곧바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기적으로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바쳐야 한다고도 털어놓았다(정유진, 2014).
지인 능욕	중학교 1학년 B군은 같은 반 친구 8명이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자기의 얼굴이 성적 행위를 하는 사진에 합성된 지인 능욕 피해를 보았다(김영훈, 2021).
멤버 놀이	고등학교 2학년 이모 양은 SNS에서 함께 멤버 놀이를 하던 사이버 지인들로부터 사이버폭력을 당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멤버 놀이를 하던 이양은 올 초부터 함께 어울렸던 지인 중 몇몇과 사소한 이유로 사이가 멀어졌다. 그러자 이 멤버가 이양의 신상정보를 SNS에 공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양은 익명의 다수가 모인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어 일방적으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다. 이 일로 인해 이양은 자살시도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황민규, 2020).
신종 익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폭력	전학을 온 중학교 1학년 C양은 또래 친구를 사귀고 싶어 익명 소통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하였다. C양은 성폭행 피해 경험이 있어 친구 사귀기가 어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2차 가해성 댓글이 달렸고, 익명의 학생들은 C양의 신상을 알아내어 공개하였다(이우림, 202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사이버폭력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주로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폭력(떼카, 카카오톡 감옥, 방폭, 신종 익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폭력)은 이제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수준에 이르렀다(이승현 외, 2015). 이와 같은 현상은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이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하는 범죄와 유사해지고 있으며 유형이 다양하게 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박선아, 이인재, 김봉제, 안인옥, 2019).

3. 사이버폭력의 특징

가. 일반적인 사이버폭력의 특징

1) 비대면성

비대면성은 사이버폭력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면대면 상황이 아닌 사이버 공간을 통해 간접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반응이나 상태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없어 괴롭힘의 강도나 수위 등 가해 정도가 심각해지고(박춘화, 2019; 이수경, 오인수, 2012; Varjas, Henrich & Meyers, 2009), 반복적인 폭력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정여주, 김동일, 2012). 또한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 저하되어 남을 놀리거나 따돌리는 행동을 놀이나 문화로 가볍게 여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선미정, 전종설, 2021; 안성진 외, 2015; 정아혜, 최윤경, 2020; 정한라, 2013).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는 대면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감정을 잘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친 발언을 하거나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생기기 쉽다(정여주, 김동일, 2012; Kowalski & Limber, 2007; Mishna, Khoury-Kassabri, Gadalla & Daciuk, 2012).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더욱 심각한 사이버폭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대면 상황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물리적인 행위로 드러난다. 반면, 사이버 공간의 비대면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사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정한라, 2013). 이주형과 안순철(2013)은 비대면성으로부터 익명성과 파급성, 시공간 초월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2) 익명성

익명성은 비대면성과 함께 사이버폭력의 주요 특징 및 원인으로 손꼽힌다(Vandelbosch & Cleemput, 2009). 선미정과 전종설(2021)의 연구에 의하면 사이버 공간에서 가해자들이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도 정보를 전달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무기로 작용한다. 또한, 익명성으로 인해 사회적 실재감이 낮아지고 탈억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오세연, 곽영길, 2013). Kowalski와 Morgan, Limber(2012)는 이러한 익명성이 가해자에게 더욱 쉽고 충동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도록 만들어 사이버폭력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가해자를 더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익명성으로 인해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발생한다. 방송통신위원회(2021)의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 대상 1위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나 선후배가 아닌,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가해자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은 피해자에게 공포감과 피해의식을 더욱 높인다(박춘화, 2019). Patchin과 Hinduja(2006)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익명성 때문에 사이버폭력의 가해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이버폭력을 행사한 후 그에 대한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Elglander(2013/2020)는 익명성에 기반을 두지 않는 사이버폭력의 비율도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약 74%가 가해자의 신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한다. 즉,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사이버상의 상호작용은 학교에서의 또래관계를 반영하고 더욱 밀접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3) 탈억제화

탈억제화는 익명성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변인들에게 자기 행동이 어떻게 평가될지를 의식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가해 행동이 억제될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은 익명성을 이용해 자신의 폭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목격되지 않기 때문에 억제 효과가 낮다(오인수, 2011). 또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어른이나 교사와 같은 주변인들이 감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은 규제도 명확하지 않고 감시 역할이 취약하다(선미정, 전종설, 2021).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는 오프라인과 달리 주위 사람들의 통제와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 가해자의 심각한 폭력 행위가 쉽게 유발되는 경향이 있다(박춘화, 2019; 손민지, 2013).

이성식(2004)은 탈억제화와 익명성을 Zimbardo(1969)의 '몰개성화 이론'을 통해 설명하였다. Zimbardo(1969)가 주장한 몰개성화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익명성을 가질 때 내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탈억제되어 공격적인 언행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이성식, 2004; 이수경, 오인수, 2012). 모든 청소년이 일탈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성인과 비교하였을 때 아직 자신의 소신대로 윤리적인 행동을 할 만큼 규범의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의 익명성이 갖는 영향력에 대한 부정적 결과는 성인보다 더 클 수 있다(유상미, 김미량,

2011; 이성식, 2004, 2005; 이수경, 오인수, 2012).

4) 시공간 초월성

시공간 초월성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없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사이버 폭력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발생될 수 있는 특징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매 순간 사이버폭력에 노출된다(정아혜, 최윤경, 2020; 정한라, 2013). 이주형과 안순철(2013)의 연구에 따르면 오프라인에서만 발생한 폭력의 경우 피해학생이 폭력을 피해 집에서는 안전할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폭력의 경우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학생은 어디에서도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며 계속해서 폭력이 지속된다. 이처럼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은 폭력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 더 큰 폭력을 자행하기도 한다. 김봉섭 등(2018)과 한희정(2015)에 따르면 전통적인 학교폭력의 경우 이사나 전학 등의 방법을 통해 가해자의 세력 범위를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이버폭력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학생이 다른 나라로 이민이나 유학을 가더라도 그 범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사이버폭력의 발생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국적을 불문하여 전 세계 학생들이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이버폭력은 시공간 초월성으로 인해 '멈추지 않는 불링(non-stop bullying)' 또는 '언제나 계속되는 불링'으로 불리며 전통적인 학교폭력에 비해 더 높은 지속성을 갖는 특징을 보인다(박성훈, 심현정, 2015; Mishna et al., 2012).

5) 빠른 확산성과 파급력

사이버폭력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피해의 확산이 매우 빠르고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전해지는 소문의 속도(신속성) 및 범위(확산성)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친다(김봉섭 외, 2018).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활용되는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손쉽게 글이나 사진 등의 자료를 게시 및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빠른 확산성과 파급력을 바탕으로 사실성과 진실성에 대한 검증이나 제재도 없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과 괴롭힘 동영상 등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이수경, 오인수, 2012; 정한라, 2013; 한희정, 2015). 사이버 공간에 한 번 올린 글이나 전송한 메시지는 다른 사람들의 무차별적인 퍼 나르기로 순식간에 확산되기 때문에 그 정도와 속도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처럼 온라인은 오프라인에 비해 확연히 빠른 전파 속도와

광범위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오프라인에서의 폭력에 비해 사이버폭력은 피해자에게 매우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더 크다(모정은, 오인수, 김연희, 2014; 이수경, 오인수, 2012; 정여주, 김동일, 2012; 정아혜, 최윤경, 2020; Elglander, 2013/2020).

6) 괴롭힘의 용이성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보급이 대중화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사이버 공간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상호 접근이 용이해져 손쉽게 상대를 괴롭힐 수 있게 되었다. 다수의 가해자가 손쉽게 폭력행위에 가담하여(두경희, 2015; 정한라, 2013) 피해자를 더욱 집요하게 괴롭힐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Patchin과 Hinduja(2013/2015)는 “원하면 언제든지 사이버폭력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7) 영구성

온라인을 통해 전파된 사이버폭력의 내용은 피해자가 상황을 인지한 후 삭제를 원할지라도 무한 복사와 빠른 공유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확산된 상태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자료의 완전한 삭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피해기록은 사이버 공간에서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가해자는 단 한 번 공격했을지라도 피해자는 평생 악성 게시물을 볼 때마다 반복된 고통을 경험하거나,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피해기록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게 된다(두경희, 2015; 정한라, 2013; 한희정, 2015).

8) 연속성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공간과 현실 공간은 그 경계가 모호하여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과 더불어 사이버폭력이 병행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조운오, 2013b; 오인수 외, 2019), 그 반대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폭력이 오프라인에서의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오세연, 곽영길, 2012; 오인수 외, 2019). 오인수 등(2019)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둘 사이에 특정한 인과관계가 있기보다는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연관 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9) 가· 피해자의 증첩성

사이버폭력은 전통적 폭력에 비해 특정 학생이 가해 및 피해 경험을 동시에 겪는 비율이 높다(오인수 외, 2019; Mishna et al., 2012).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오프라인에서 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완희 등(2017)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 청소년들은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 오프라인에서 폭력을 당한 피해학생들은 그로 인해 발생한 분노, 우울, 등을 사이버 공간에서 표출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보복심리로 사이버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김경은, 2012, 박성훈, 심현정, 2015). 또한, 앞서 언급한 특징과 같이 다수가 폭력의 내용을 쉽게 공유할 수 있고, 복사-붙이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많은 공범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등 복합적인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이주형, 안순철, 2013).

나. Olweus의 괴롭힘 3가지 조건과 사이버폭력의 위험성

사이버폭력은 전통적 괴롭힘(traditional bullying)과 비교하여 볼 때 유사한 점도 많으나 차이점도 존재한다. 모정은 등(2014)의 연구에서는 Olweus(1994)가 주장한 괴롭힘의 3가지 조건의 관점(힘의 불균형, 반복성, 의도적 피해)에서 사이버폭력과 전통적 폭력을 비교하였다.

먼저, Olweus(1994)가 주장한 전통적 괴롭힘은 의도적이고 반복적이며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인수(2011)의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특징을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정적 행동의 목표가 남에게 고의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의도성)”, “그 행위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것(반복성)”, “괴롭힘 행동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에 의해 지속되는 것(힘의 불균형)” 으로 요약하였다.

사이버폭력을 괴롭힘의 3가지 조건의 관점에서 그 위험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힘의 불균형이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과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는 힘의 불균형 없이도 폭력이 발생한다(오인수, 2011). 이는 육체적인 힘이나 사회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익명성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가해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히 사이버 공간에서 힘의 불균형은 전통적 괴롭힘과 달리 기술적인 실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전통적 괴롭힘에서는 피해

자보다 가해자가 연령과 사회적 관계, 신체 등의 측면에서 우세한 경우가 많지만 사이버폭력에서는 기술 수준이나 익명성 등으로 인한 비가시적인 힘의 불균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Patchin & Hinduja, 2015; Langos, 2012). 이는 오프라인에서의 피해자가 사이버폭력의 가해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이수경, 오인수, 2012; 전신현, 이성식, 2010).

반복성 또한 사이버폭력과 전통적 괴롭힘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차이가 있다. Langos(2012)는 반복성에 대한 논란을 반영하여 사이버 괴롭힘을 '직접적 사이버 괴롭힘(direct cyberbullying)'과 '간접적 사이버 괴롭힘(indirect cyberbullying)'으로 구분하였다(모정은 외, 2014). 직접적 사이버 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져 사이버 공간에서 대화가 존재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반면, 간접적 사이버 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없었으나 개방된 제3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상호작용을 통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적 사이버 괴롭힘은 전통적 괴롭힘과 같이 가해자가 반복적인 행동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여 심리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간접적 사이버 괴롭힘은 가해자의 가해 행동이 일회적일지라도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복사 및 저장을 통한 재생산 및 빠른 유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전통적 괴롭힘의 경우 반복성이 중요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접근의 용이성과 시공간을 초월한 빠른 파급력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는 충격은 더 클 수 있고(오인수, 2014; Hinduja & Patchin, 2009/2012), 반복적으로 충격이나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Langos, 2012). 실제로 여러 선행연구가 사이버폭력이 전통적 괴롭힘보다 더 큰 심리적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오인수, 2014; Campbell, Spears, Slee, Butler & Kift, 2012; Elglander, 2013/2020; Hinduja & Patchin, 2009/2012).

마지막으로 의도성과 고의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이버폭력은 전통적 괴롭힘과 달리 가해자의 의도성과 고의성이 더욱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Langos(2012)의 연구에 의하면 전통적 괴롭힘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을 고의성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이버폭력에서는 의도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 자체가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는 의사소통의 오류가 자주 발생하여 잘못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뜻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4. 사이버폭력의 영향

사이버폭력이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전통적 폭력이 미치는 영향과 유사하다 (Beckman, Hagquist & Hellström, 2012).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사이버폭력이 미치는 영향을 심리적, 행동적, 관계적, 신체적 영역별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사이버폭력이 미치는 영향

영역	영향	관련연구
심리적 영역	우울	민대기, 최미경(2016), 장덕희, 윤현자, 신현진(2020), 조운오(2013a), 손한결, 김은혜(2021), Bauman, Toomey & Waler(2013), Campbell et al.(2012), Chang et al.(2013), Schneider, O' Donnell, Stueve & Coulter(2012), Perren, Dooley, Shaw & Cross(2010), Wang, Nansel & Lannotti(2010)
	불안	정문경(2015), 최진오(2015, 2016), Campbell et al.(2012), Dempsey, Sulkowski, Nichols & Storch(2009), Hinduja & Patchin (2007), Nixon(2014), Sontag et al.(2011), van den Eijnden, Vermulst, van Rooij, Scholte & van de Mheen(2014), Wigderson & Lynch(2013)
	자살사고	오세윤, 심혜인, 조운오(2020), 장덕희, 윤현자, 신현진(2020), 정지선(2021), Bonanno & Hymel(2013), Nixon(2014), Hinduja & Patchin (2010), Klomek, Marrocco, Kleinman, Schonfeld & Gould(2008)
	스트레스	김종길(2013), 손한결, 김은혜(2021), 양영미, 이선영(2021), 정여주, 김동일(2012), 홍영수, 김동기(2011), Campbell et al.(2012), Nixon(2014)
	자기통제력	김은경(2012), 김현동, 송병호(2013), Williams, Cheung & Choi(2000)
	자존감	김은경(2012), Aliyev & Gengec(2019), Brewer & Kerslake(2015), Chang et al.(2013), Finkelhor, Mitchell & Wolak(2000), Palermi, Servidio, Bartolo & Costabile(2016), Rigby(2008), Roman & Rorie(2007), Zahid(2010)
	감정변화	두경희(2015), Campbell et al.(2012), Hinduja & Patchin(2007), Lee & Chun(2020), Ortega et al. (2013), Sourander et al.(2010)
행동적 영역	학교애착	Schneider et al. (2012)
	심리적고통	Schneider et al. (2012)
	폭력행동	김경은(2013), 김현동, 송병호(2013), 성동규 등(2006), 오세현, 신지혜(2021), 전대성, 김동욱(2015), 최진오(2015), Hinduja & Patchin(2007)
관계적 영역	비행	조운오(2013a), Goebert, Else, Matsu, Chung-Do & Chang(2011)
	자살시도	김재엽, 최윤희, 장대연(2019), 서화원, 조운오(2013), 이주형, 안순철(2013), Bauman et al.(2013), Schneider et al.(2012)
신체적 영역	교우관계	안은영(2020), Sourander et al.(2010), Campbell et al.(2012), Devine & Lloyd(2012)
	소속감	Williams et al.(2000)
신체적 영역	신체화	주은선, 강주희, 백경은(2019), Beckman et al.(2012), Carter(2011),
	증상	Kowalski & Limber(2013), Sourander et al.(2010)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아래의 <표 III-6>과 같이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후 감정으로 '상대방에게 복수 욕구'를 느꼈다는 응답이 29.2%로 가장 높았고, 19.5%가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또한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을 잃고 등교 거부의 심리를 보이는 학생도 11.4%로 높았으며,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8.3%의 학생이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자살·자해 욕구'도 8.1%로 확인되어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III-6>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폭력 피해 후 심리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초	중	고	남학생	여학생
(사례수)	(976)	(448)	(297)	(231)	(565)	(411)
상대방에게 복수 욕구	29.2	39.1	20.9	20.8	27.3	31.9
우울, 불안, 스트레스	19.5	23.2	15.2	17.7	15.2	25.3
공부/등교가 싫었음	11.4	12.5	11.8	8.7	9.0	14.6
사람 교제 어려움	8.3	9.6	5.7	9.1	6.0	11.4
자살, 자해 욕구	8.1	10.5	6.1	6.1	6.0	10.9
별 생각 없었음	53.2	50.4	55.6	55.4	53.6	52.6

가. 심리적 영역

1) 우울

사이버폭력이 심리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우울은 가장 많이 연구된 변인이다. 선행연구들은 사이버폭력의 피해자가 높은 우울을 보인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우울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세계 및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지니는데(Beck, 1967),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극대화하며 자기 비하를 나타내는 성향이 높다(Graham & Juvonen, 1998). 사이버폭력의 피해학생은 부정적인 시각을 지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이 지속하면 우울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우울은 외로움, 자살 행동 및 신체 증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심리적 특성이다(Nixon, 2014). 권문자(2014)의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피해 여학생의 경우 우울의 정도가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폭력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우울은 사이버폭력의 다양한 변인에 대해 매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운오(2013a)는 우울감이 사이버폭력과 비행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즉,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이 비행하는 경우는 오직 폭력 피해 이후 우울감을 겪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이버폭력의 피해로 인한 우울감에 대해 적절한 개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행 행동과 같은 또 다른 문제 행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Bauman 등(2013)의 연구에서도 사이버폭력과 자살시도의 관계에 대해 우울이 완전 매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오직 여학생의 경우에 대해서만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우울감의 정도가 높기 때문일 것으로 고려된다. 민대기와 최미경(2016)은 여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사이버폭력의 경우 피해 경험이 여학생들의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덕희 등(2020)의 연구 또한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우울감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마찬가지로 손찬결과 김은혜(2021)는 사이버폭력의 피해 경험이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다. 그리고 증가한 우울은 자퇴 충동을 높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우울을 매개로 학업 중단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러한 연구를 종합하면 사이버폭력은 피해학생의 우울감을 증가시키며 증가한 우울감은 또 다른 정서, 행동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우울로 인한 영향은 여학생에게서 더욱 많이 발견된다고 볼 수 있다.

2) 불안

사이버폭력이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불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Nixon(2014)의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사회적 불안의 정도가 증가할 수 있다. Wigderson과 Lynch(2013)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이버폭력에 가담하는 학생들은 높은 불안 수준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사이버폭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an den Eijnden과 동료들(2014)은 종단 연구를 통해 불안의 정도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의 증가를 예측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Hinduja와 Patchin(2007)은 앞서 살펴본 우울과 같이 사이버폭력의 피해학생의 불안은 폭력이나 약물남용과 같은 비행 행동에 대한 일종의 매개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정문경

(2015)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자체가 학생의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특히, 사이버폭력 피해학생들의 사회적 유능성이 저하되고 사회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될 경우 그들이 느끼는 사회불안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최진오(2015)도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가해 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이버폭력은 피해학생의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해학생은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폭력의 가해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의 피해 경험으로 인한 불안은 사이버폭력의 가해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최진오(2016)는 또 다른 연구를 통해 불안이 사이버폭력의 가해 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그는 불안의 다양한 원인 중 학업 스트레스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학업 스트레스는 불안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불안은 학업 스트레스와 사이버폭력의 가해 행동에 대해 매개효과가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이 사이버폭력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도 있고, 반대로 사이버폭력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연구가 혼재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연구는 사이버폭력과 심리적 특성을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자료를 분석하기 때문에 사이버폭력과 심리적 특성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자살사고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사이버폭력과 자살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Klomek과 동료들(2008)은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 중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진행하여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자살사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Bonanno와 Hymel(2013) 또한 캐나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사이버폭력의 피해 경험이 우울과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Nixon(2014)에 따르면 자살사고의 경향성은 사이버폭력의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 비해 2배가량 높다. 국내에서도 사이버폭력이 자살사고와 큰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장덕희 등(2020)은 사이버폭력의 피해 경험은 자살사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우울을 매개로 자살사고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이 우울감을 보일 경우 이에 대한 조기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울감이 자살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 오세윤 등(2020) 또한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은 자살사고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이때

반드시 우울을 거쳐 자살사고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장덕희 등(2020)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이 우울감을 보이지 않더라도 자살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정지선(2021)은 다양한 학교폭력 유형과 부모방임, 외로움이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의 피해 경험의 빈도가 높을수록 자살사고의 빈도가 높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이버폭력은 피해학생의 자살사고를 증가시키며, 특히 우울감이 동반되는 경우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4) 스트레스

사이버폭력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점차 확인되고 있다. 전통적 학교폭력과 비교하였을 때 사이버폭력의 경우, 익명성을 바탕으로 괴롭힘 행동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학교폭력보다 피해학생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가 유발할 수 있다(Nixon, 2014). 국내에서는 주로 사이버폭력의 피해 경험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스트레스가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김종길(2013)은 청소년의 폭력 피해 경험과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사이버폭력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신체적 폭력에 대한 피해 경험과 학업 스트레스의 정도가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홍영수와 김동기(2011) 또한 스트레스가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남학생의 경우 스트레스의 수준이 사이버폭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여학생의 경우 스트레스의 수준이 사이버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사이버폭력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도 있는데, 먼저 손한결과 김은혜(2021)의 연구가 있다. 사이버폭력의 피해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이 자퇴 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남녀 청소년 모두에 대해 사이버폭력의 피해 경험은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자퇴 충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였다. 특히,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유발된 스트레스는 여학생의 경우 자퇴 충동에 대해 완전 매개 효과를, 남학생의 경우에는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양영미와 이선영(2021)은 부모 학대와 사이버폭력이 청소년의 인권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은 피해학생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여 결과적으로 인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높이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스트레스는 주로 사이버폭력의 원인으로 확인되었고 결과로도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자존감

사이버폭력과 자존감의 관계에 관해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존감은 그동안 인터넷 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다루어졌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들이 현실 세계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사이버 공간에서 실현하면서 사이버 비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해 왔다. 김은경(2012)의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 두 가지를 동시에 모두 경험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oman과 Rorie(2007)는 사이버폭력 시작 단계에서는 피해학생의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한편, Zahid(2010)는 사이버폭력의 피해학생은 불필요한 죄책감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며, 자존감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는 피해학생이 점차 가족과 멀어져 혼자 있기를 선호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Rigby(2008) 역시 대부분의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은 낮은 자존감과, 잦은 분노, 그리고 잦은 슬픔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Aliyev와 Ramin(2019), 그리고 Brewer와 Kerslake(2015)는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자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Brewer와 Kerslake(2015)는 자존감이 낮은 학생은 가해자 혹은 피해자로서 사이버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Palermi와 동료들(2016)의 연구 또한 사이버폭력의 피해학생들은 비교적 더 낮은 자존감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자존감이 낮은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 혹은 피해학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자존감이 사이버폭력 피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그 결과로 작용하는지 구분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자존감은 피해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명백하게 낮다는 점이다.

6) 감정변화

사이버폭력의 피해학생은 다양한 감정변화를 경험한다. Ortega와 동료(2012)는 여러 감정 중에서도 특히 당황함(embarrassed), 분노(anger), 속상함(upset), 긴장(stressed), 걱정(worried), 두려움(afraid), 외로움(alone), 무력감(defenseless)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분노라고 밝혔다. 분노는

자신의 자율성이 침해당했다고 느끼거나 권리를 위협당할 때 발생하는 정서이다. 연구진들은 사이버폭력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폭력과 인터넷을 이용한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활용한 폭력의 경우 피해학생이 더 많은 감정변화를 경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휴대전화로 피해학생을 괴롭히는 경우가 인터넷을 통해 괴롭히는 경우보다 비교적 더욱 직접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이버폭력은 피해학생에 대해 직접적인 학교폭력과 유사한 감정변화를 일으켰다.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괴롭힘은 간접적인 학교폭력과 유사한 감정변화를 일으켰다. 두경희(2015)는 사이버폭력이 피해학생에게 미치는 정서적, 인지적 영향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사이버폭력을 통해 피해학생이 어떠한 감정변화를 겪게 되는지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피해학생들이 폭력 직후 가장 많이 보고하는 공통적인 감정은 충격, 당황, 억울함, 분노, 두려움 등의 감정이다. 피해학생들은 이후 유사한 상황에서 공포감을 느끼기거나 일상생활에서 무력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타인에 대한 불신이 커져 사람을 지나치게 경계하거나 회피하는 등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의 영향을 연구한 Lee와 Chun(2020)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은 좌절(frustration), 분노(anger), 슬픔(sadness)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피해학생들은 공통적으로 트라우마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피해학생들은 사이버폭력을 통해 다양한 부정적 감정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정적 감정이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이버폭력은 학생의 행복을 저해하는 매우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나. 행동적 영역

1) 폭력 행동

사이버폭력이 행동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된 것은 폭력 행동이다. 김현동과 송병호(2013)의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경험과 학교폭력 가해 행동 사이에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경험을 무선 데이터, 게임 아이템, 의사소통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카페·블로그와 관련한 것으로 구분하여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무선 데이터와 게임 아이템, 인터넷 카페·블로그는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사소통 애플리케이션은 학교폭력 가해 행

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induja와 Patchin(2007)은 사이버폭력의 피해가 오프라인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사이버폭력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이 간접적으로는 학교폭력과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사이버폭력의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매개변인과 조절변인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김경은, 2013; 성동규 외, 2006; 오세현, 신지혜, 2021; 최진오, 2015).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에서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사이버폭력의 가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이버폭력의 피해 경험은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대성과 김동욱(2015)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 또한 사이버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분노나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전환하기 위해 죄책감 없이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에 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사이버폭력의 피해 경험이 가해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최진오(2015)는 학습으로 인한 전이와 사이버폭력을 하나의 놀이 또는 장난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전통적인 학교폭력과 달리 힘의 위계가 보이지 않는 익명성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였을 때, 사이버폭력의 피해 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의 경우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이 유발되고, 이는 다시 폭력적 행동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과 상관없이 손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학생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2) 비행

한 개인이 타인에 의해 지속적인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심리적 불안이나 긴장, 우울감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감정을 없애기 위해 비행 행동과 같은 부적응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커진다(조운오, 2013a). 이를 통해 사이버폭력의 피해자가 피해 경험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감정을 없애고자 비행 행동을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운오(2013a)의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피

해 경험이 피해자의 비행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사이버폭력을 통해 경험한 우울감이 비행 행위를 유발하는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더 우울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매개로 비행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oebert 등(2011)의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피해자와 청소년 약물남용 문제 간에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를 통해 사이버폭력 피해학생들은 사이버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마약과 폭음을 할 가능성이 2.5배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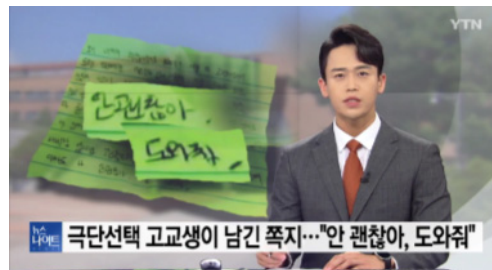
3) 자살시도

사이버폭력이 미치는 영향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자살시도라 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최근 보도를 통해 이와 관련한 사건이 잇따라 소개되고 있다.



[그림 Ⅲ-1] ‘멤버 놀이’ 라는 사이버폭력으로 괴로워하던 여고생이 목숨을 끊은 사건

출처: SBS NEWS(2018.09.1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32269&plink=ORI&cooper=NAVER)



[그림 Ⅲ-2] 사이버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으로 괴로워하던 남고생이 목숨을 끊은 사건

출처: YTN NEWS(2021.07.06. https://www.ytn.co.kr/_ln/0115_202107062225232145)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행한 ‘2021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청소년 자살률과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6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2021년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이 2019년보다 증가하였고, 10대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청소년 자살이 41.1%로 1순위를 차지하였다.

전통적인 폭력과 자살의 관계를 분석한 37개의 연구를 요약한 Kim과 Leventhal (2008)은 폭력의 가해 및 피해 경험과 자살시도가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

다. 사이버폭력과 자살시도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Hinduja & Patchin, 2010). 그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Schneider 등(2012)의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과 전통적 폭력을 둘 다 경험한 학생이 사이버폭력과 전통적 폭력 중 한 가지만 경험한 학생보다 심리적인 고통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전자의 경우 후자보다 우울 증상이나 자살시도를 경험한 비율이 확연히 높음을 지적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과 전통적인 폭력을 모두 경험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자살시도 경험이 5.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auman 등(2013)은 사이버폭력이 청소년의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며 우울과 자살시도,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여학생들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시도 간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연구진은 이들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국내 연구 중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에 비해 자살시도와 관련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중 김재엽 등(2019)의 연구에서는 자살 생각, 자살 계획 및 시도 단계를 자살행동으로 정의하여 사이버폭력과 전통적 폭력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의 피해 경험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사이버폭력과 전통적 폭력을 동시에 경험한 중복 피해학생의 경우,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어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다. 이주형과 안순철(2013)은 이러한 이유에 대해 비대면성과 탈억제성,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전이 등과 같은 사이버폭력의 특징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받는 정신적인 고통이 자살로 이어질 만큼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또한, 서화원과 조윤오(2013)는 사이버폭력의 경우 가해 행동이 24시간 동안 가능함에 따라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폭력에 노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는 피해학생이 경험하는 분노와 좌절감, 고립감 등을 심화시키며 극단적인 경우 자살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다.

다. 관계적 영역

1) 교우관계

교우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발달상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 청소년들은 또래와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안정감을 얻고 대인관계 기술 등을 발달시킨다. 그런데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피해학생들은 또래 학생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Sourander 등(2010)의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의 피해자들은 전통적인 폭력의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또한, Campbell 등(2012)의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의 피해자들이 전통적인 폭력의 피해자들보다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밝혔다. Devine과 Lloyd(2012)의 연구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교우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도 좋지 않음을 밝혔다.

현재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SNS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사용자 간의 정보공유, 자유로운 의사소통, 인맥 확대 등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및 강화가 우리 삶에 일상화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SNS는 교우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안은영(2020)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위한 대인관계의 매체로 SNS를 활용하여 관계를 맺고 친구들과 소통함으로써 친밀함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관계 욕구와 SNS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욕설이나 비난, 따돌림 등과 같은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에 문제를 겪고 있다(안은영, 2020). 이처럼 온라인에서 다양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학생의 경우, 사이버폭력은 이들의 관계 형성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소속감

가해학생들은 재미나 장난, 또는 스트레스 해소 등의 이유로 언제 어디서든지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사이버폭력을 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만의 유대감이 형성되어 그것이 우정을 견고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로 피해를 입는 학생들은 집단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거나, 소속감이 반감되기도 한다. Williams 등(2000)은 사이버 괴롭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온라인에서 그룹을 형성하였을 때 그 안에 소속된 학생들에 비해 소속되지 못한 학생들은 낮은 소속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통해 사이버 따돌림이 청소년들의 소속감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단체 대화방에서 따돌림을 당할 경우 피해학생은 수치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관계에서 심한 상실감을 경험하며 낮은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이버폭력은 불안과 우울감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사이버폭력의 피해 경험은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저해하여 피해학생의 소속감을 높일 기회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라. 신체적 영역

사이버폭력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피해학생의 심리적, 행동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이 신체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몇몇 연구자들이 사이버폭력이 신체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이버폭력과 청소년의 신체적 문제 사이의 관련성을 밝혀왔다. 먼저,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Sourander 등(2010)은 사이버폭력과 정신 의학, 신체적 질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사이버폭력 피해학생들과 가해 및 피해를 모두 경험한 학생들은 사이버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수면장애, 두통, 식욕 부진, 피부 질환 등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Carter(2011)의 연구와 Beckman 등(2012)의 연구에서도 사이버폭력과 청소년들의 신체화 증상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미국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에 관해 연구한 Kowalski와 Limber(2013) 또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수면 장애, 두통, 식욕 부진, 피부 질환 등과 같은 건강 문제를 더 많이 겪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국내에서는 주은선 등(2019)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사이버폭력의 피해 경험이 신체화 증상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며 신체화 증상에 대한 주요 설명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이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여 앞선 해외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5. 사이버폭력의 실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과 함께 다양한 기관에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본 원고는 공공기관인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사단법인인 푸른나무재단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가. 사이버폭력의 발생률 추이

1) 교육부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부가 가장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결과는 <표 III-7>과 같다.

- 조사방식: 온라인 조사
- 조사 대상: 초4 ~ 고3 재학생 전체(약 387만 명)
- 조사지역: 전국 17개 시·도
- 조사 기간: 2021.4.5. ~ 4.30.

<표 III-7> 교육부: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응답률 (2021년 1차)

구분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 (%)p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언어폭력	340	126	346	82	333	61	340	53	341	56	347	356	335	417	82				
집단 따돌림	166	59	170	39	173	29	183	26	166	26	172	232	260	145	△115				
스토킹	92	32	111	23	127	19	109	16	123	17	118	87	67	62	△05				
신체폭력	117	41	115	27	119	21	121	18	117	17	100	86	79	124	45				
사이버 폭력	91	34	93	23	92	17	91	15	98	17	108	89	123	98	△25				
금품갈취	100	33	80	18	72	12	68	10	64	10	64	63	54	58	04				
성폭력	33	12	38	09	42	07	45	07	51	08	52	39	37	41	04				
강요	61	19	47	10	42	07	43	06	40	06	39	49	44	54	10				

피해유형별 중복응답 기능(중복응답 건수 포함)

*2018년부터 2차 조사는 심층 조4.1사를 위해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로 진행되었음

교육부는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1차는 전수조사, 2차는 표본조사로 진행한다. 2019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에는 1차에 한해 전수조사로 진행하였다. 위의 결과는 전국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방식을 통해 전수 조사한 결과이다.

사이버폭력의 경우 전체 비율에서 매년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1차부터 2021년 1차까지 사이버폭력 피해 응답은 9~10%대이나 최

근 증가추세를 보이며 코로나가 확산된 2020년에는 12.3%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래의 <표 III-8>을 보면 학교급별 사이버폭력 발생 건수를 비교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고등학교, 초등학교의 순서로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8> 교육부: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현황 (2018.6 ~ 2021.6)

(단위: 건)

기간	학교급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기타
18학년도 (18.3.1-19.2.28)	초	2,734	1,029	65	116	309	479	1,218
	중	9,642	3,118	527	454	482	1,800	1,939
	고	5,424	1,495	139	228	223	972	1,067
	기타	148	15	0	4	13	20	75
	총계	17,948	5,657	731	802	1,027	3,271	4,299
19학년도 (19.3.1-20.2.29)	초	3,642	1,994	257	175	389	583	1,679
	중	8,284	4,154	1,433	727	600	1,702	2,738
	고	4,476	2,274	475	343	273	793	1,422
	기타	114	49	4	3	7	13	74
	총계	16,516	8,471	2,202	1,248	1,269	3,091	5,913
20학년도 (20.3.1-21.2.28)	초	1,038	565	123	82	111	413	517
	중	2,485	1,322	672	526	176	1,469	1,190
	고	1,614	833	233	204	112	574	835
	기타	31	10	2	1	1	10	43
	총계	5,168	2,730	1,030	813	400	2,466	2,585

2)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교육부와 달리 사이버폭력에 초점을 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조사방식: 증화계통추출로 대상 학교 추출 후 조사 대상 학급 무작위 선정 후 대상 학교와 연락하여 담당 교사를 통한 온라인 조사 링크 공유
- 조사 대상: 초등학생 4학년~6학년, 중고등학생 총 4,958명
- 조사지역: 전국 17개 시·도
- 조사 기간: 20.10.06.~11.13.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10.06~11.13일까지 학생, 일반성인, 교사, 학부모(총 7,456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아래의 <표 III-9>와 같다.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 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등 8개 유형에 대한 가·피해 경험률을 조사하였다.

<표 III-9>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해 경험 비율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초	중	고	남학생	여학생	
(사례 수)	(4,958)	(1,738)	(1,645)	(1,575)	(2,568)	(2,390)	
전체 가해 경험률	9.5	12.4	9.3	6.3	13.1	5.5	
언어폭력	9.0	11.7	9.0	6.0	12.4	5.3	
명예훼손	1.6	1.9	1.8	1.0	2.2	0.9	
스토킹	0.8	0.9	0.8	0.6	1.1	0.4	
가해 유형	성폭력	0.6	0.5	0.9	0.5	0.9	0.3
신상정보 유출	0.8	0.9	0.9	0.6	1.1	0.5	
따돌림	1.0	1.6	0.9	0.5	1.5	0.5	
갈취	0.8	1.3	0.7	0.3	1.3	0.2	
강요	0.5	0.6	0.5	0.3	0.7	0.2	

<표 III-10>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 비율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초	중	고	남학생	여학생	
(사례 수)	(4,958)	(1,738)	(1,645)	(1,575)	(2,568)	(2,390)	
전체 피해 경험률	19.7	25.8	18.1	14.7	22.0	17.2	
언어폭력	16.2	21.5	15.0	11.7	18.4	13.9	
명예훼손	6.6	7.7	6.9	4.9	6.7	6.4	
스토킹	4.0	3.6	4.3	4.1	3.7	4.2	
가해 유형	성폭력	2.9	2.6	3.4	2.6	3.2	2.5
신상정보 유출	3.1	3.3	3.5	2.5	3.7	2.4	
따돌림	3.0	5.1	2.1	1.5	3.5	2.3	
갈취	2.4	4.0	2.1	1.0	3.7	1.0	
강요	1.7	2.1	1.7	1.1	2.2	1.1	

위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해 경험(9.5%)보다는 피해 경험(19.7%)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유형별 비율을 비교해 보면 사이버 언어폭력과 명예훼손의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가해와 피해 경험 모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순서로 비율이 높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가해와 피해 경험 모두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연도별 추이는 아래의 <표 III-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018년부터 2020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가해는 줄어드는 반면 피해의 사례는 상대적으로 감소의 폭이 매우 작았다. 특히 학교급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줄어드는 추세는 주로 중, 고등학교에서 나타났다. 반면 초등학교의 감소세는 상대적으로 작았고, 오히려 2020년의 경우 피해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11>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폭력 경험률

(전체, 단위: %)

구분	사례 수	전체	학교급			성별		
			초	중	고	남학생	여학생	
가·피해 모두 경험	2020년	4,958	6.4	9.7	5.8	3.4	8.3	4.3
	2019년	4,779	10.1	7.9	13.6	8.8	11.9	7.9
	2018년	4,662	12.2	9.7	14.3	12.5	14.7	9.1
가해	2020년	4,958	9.5	12.4	9.3	6.3	13.1	5.5
	2019년	4,779	18.0	13.3	23.1	17.7	21.5	13.8
	2018년	4,662	20.8	14.3	25.1	22.9	25.2	15.5
피해	2020년	4,958	19.7	25.8	18.1	14.7	22.0	17.2
	2019년	4,779	19.0	18.8	22.9	15.4	18.1	20.0
	2018년	4,662	20.8	19.8	22.2	20.6	22.0	19.5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 이는 조사 문항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교육부는 8가지의 학교폭력 유형 중 하나의 유형으로 사이버폭력을 조사한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오직 사이버폭력에 초점을 두어 9가지의 하위 유형을 조사하였다. 실태조사에서 문항의 수가 많아지면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두 조사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 아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이 이를 목격하는 학생, 즉 주변인(bystander)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폭력을 목격한 주변인의 반응에 따라 폭력이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 장면 목격 후 대응 방법으로 '피해 입은 사람을 위로'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그만하거나 사과하도록 요구(39.7%)'하는 경우가 그다음으로 높았다. 그러나 폭력이 지속되도록 하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음(23.2%)'의 비율 또한 낮지 않았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주변인으로서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의 비율이 초, 중,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반면(예: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그만하거나 사과하도록 요구 등),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의 비율은 증가한다는 점이다(예: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음).

<표 III -12>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폭력 목격 후 대응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초	중	고	남학생	여학생
(사례 수)	(453)	(213)	(125)	(115)	(234)	(219)
피해당한 사람을 위로	42.8	41.8	40.0	47.8	38.5	47.5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그만하거나 사과하도록 요구	39.7	52.1	34.4	22.6	41.5	37.9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음	23.2	15.0	27.2	33.9	23.5	22.8
친구, 선후배, 선생님 등 주변에 알림	15.5	17.8	14.4	12.2	13.2	17.8
상담 및 신고센터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	4.9	3.8	5.6	6.1	4.7	5.0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의 이유로는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폭력의 피해학생이 가해 학생으로 쉽게 역할을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프라인 폭력과 달리 피해 학생이 손쉽게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를 보복으로 공격하는 도발적 피해자(provocative victims)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어 '상대방이 싫어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29.0%)',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16.6%)', '내 의견과 달라서,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서(10.9%)', '주변에서 함께 하므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6.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는 응답의 경우 13.0%이며, 2019년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13>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폭력 가해 이유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초	중	고	남학생	여학생
(사례 수)	(469)	(216)	(153)	(100)	(337)	(132)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	49.0	45.8	56.9	44.0	49.6	47.7
상대방이 싫어서, 상대방에서 화가 나서	29.0	26.9	29.4	33.0	24.9	39.4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16.6	15.7	17.6	17.0	18.7	11.4
내 의견과 달라서,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서	10.9	7.9	11.1	17.0	10.4	12.1
주변에서 함께 하므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6.4	7.9	4.6	6.0	6.5	6.1
특별한 이유 없음	13.0	16.2	11.1	9.0	13.9	10.6

한편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의 36.6%는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ID/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29.9%는 ‘상대방에게 직접 삭제나 사과를 요구’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7.3%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하는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표 III -14>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폭력 피해 이유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초	중	고	남학생	여학생
(사례 수)	(976)	(448)	(297)	(231)	(565)	(411)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ID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	36.6	36.6	35.4	38.1	34.5	39.4
상대방에게 직접 삭제하도록 하거나 사과를 요구	29.9	33.7	26.6	26.8	24.8	37.0
해당 웹사이트에 신고	16.7	14.1	18.9	19.0	19.5	12.9
친구, 가족, 선생님 등 주변에 알림	10.5	12.7	9.8	6.9	5.8	16.8
상담 및 신고센터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	1.0	1.1	1.7	0.0	1.4	0.5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음	27.3	24.6	30.3	28.6	29.9	23.6

3) 경찰청

경찰청 보고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만 10세~만 19세)의 사이버 범죄 검거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통상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고, 2020년에는 불법콘텐츠 범죄 증가율이 높다고 보고된다. 세부 유형으로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메신저 이용 사기(아이디나 탈취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지인에게 메시지로 금전 요구)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몸캠피싱은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으나 가해자인 경우도 늘고 있다고 보고된다. 학생 관련 비율을 살펴보면, 메신저 이용을 통한 사기 비율은 2019년 45명에서 2022년 225명으로 증가하였고, 몸캠피싱은 2018년 12명, 2019년 26명에서 2020년 75명으로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다양한 기관의 발생률 비교

1) 푸른나무재단,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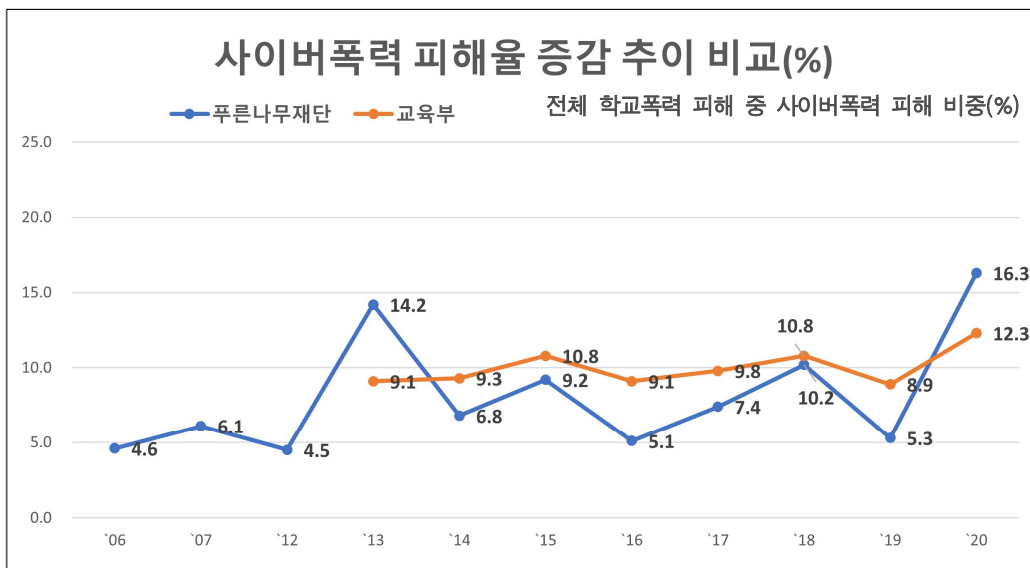
푸른나무재단, 교육부, 방통위에서는 사이버폭력 및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3년부터 피해율의 변화 추이는 아래의 표, 그림과 같다.

<표 III -15> 기관별 사이버폭력 피해율

년도	푸른나무재단	교육부
2013	14.2%	9.1%
2014	6.8%	9.3%
2015	9.2%	10.8%
2016	5.1%	9.1%
2017	7.4%	9.8%
2018	10.2%	10.8%
2019	5.3%	8.9%
2020	16.3%	12.3%

기관별 사이버폭력 피해율을 살펴보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푸른나무재단의 경우 2013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가장 낮을 때는 5%대의 피해율과 가장 높을 때는 16%대의 피해율이 보고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반적으로 9-10%대의 균일한 피해율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표집방법 및 문항의 구성 차이에 기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푸른나무재단,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 피해율을 비교하면 2013년에는 각각 14.2%(푸)와 9.1%(교)로 다소 수치상의 차이를 보이거나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반적인 사이버폭력 피해는 2013년을 기준으로 소폭 증가한 수치를 보인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2020년에는 두 기관 모두 증가한 패턴을 보인다.



[그림 Ⅲ-3] 푸른나무재단-교육부 사이버폭력 피해율 증감 추이 비교

IV. 사이버폭력 예방역량 강화

1. 학교폭력예방법 및 사이버폭력 관련 법령(제도)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외에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폭력 행위에 대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마련되었다.

아래에 제15조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표 IV-1> 학교폭력예방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 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학교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을 포함한 교직원, 학부모가 학교폭력의 개념과 실태를 이해하고 대처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학교폭력의 범주 안에 포함된 사이버폭력에 관해서도 동일하다. 따라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여 학교의 장은

1) 법률 자문: 한창훈 변호사(법무법인 모약), 이상우 교사(경기 금양초)

학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예방 이외에도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폭력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사이버폭력 역시 학교폭력예방법에 제시된 조항을 모두 따르기 때문에 사이버폭력이 확인된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피해학생은 제16조에 근거하여 심리상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가해학생은 서면사과부터 퇴학 처분에 이르는 처벌적 조치를 받게 된다.

<표 IV-2> 학교폭력예방법 중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 관련 조항

■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p>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p>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 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나. 학교폭력예방법 이외의 적용 가능 법

대부분의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처리되지만, 피해학생 측에서 가해학생을 고소하는 등으로 형사절차를 제기하면 법원을 통해 형사처분(형사처벌 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가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인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여(제9조) 일체의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여(제2조) 19세 미만인 자에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10세 미만인 자(범법소년)에게는 어떠한 형사처분을 할 수 없고²⁾, 10세이상 14세 미만인 자(촉법소년)에게는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기소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검사의 재량에 따라 소년부 송치 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IV-3> 연령에 따른 형사처분(형사처벌,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부

연령	해당되는 법
만 10세 미만	민법(아동에 대한 직접 처벌은 없으며 부모의 관리·감독에 대한 처분)
만 10~14세 미만	소년법(1~10호 처분) 적용 가능
만 14세 이상	형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

1) 민법상 손해배상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책임은 그 행위의 책임을 인식하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능이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배상책임을 부담하며(제753조), 피해자는 사안에 따라 가해행위를 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포함한 감독의무자의 교육 및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특히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학교장·교사,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인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대법원 2004다48775, 대법원 2005다16034 등 판결).

2) 범법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부모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할 뿐임.

손해배상의 내용은 대부분의 경우 금전지급을 하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에 같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훼손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764조).

2) 소년법

소년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취하여 건전한 성장을 돕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미한 수준의 사이버폭력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에게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소년법은 1호부터 10호에 이르기까지 사안의 경중에 따른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급도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저연령화되고 있는 사이버폭력의 경우 특별한 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호처분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V-4> 소년법의 보호처분 종류

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또는 시간제한	대상 연령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연장 가능)	10세 이상
6	'아동복지법'에 다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3) 형법 및 이하 특별법(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형사 미성년자로 정의하며 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법 및 이하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 사이버폭력의 경우 형법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스토킹처벌법')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보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의 경우 성에 따라 차이가 다소 있지만,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은 흔하게 발생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여학생에게는 사이버 성폭력과 사이버 스토킹이 더욱 두드러지는 편이며, 남학생의 경우 사이버 모욕이 우세하다. 각 사이버폭력 유형이 다양한 법에 적용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이버 성폭력: 적용법규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 처벌법"이라 함)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등이 있다. 성폭력 처벌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글이나 도화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제14조)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를(제74조 제1항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 밖에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제공자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제73조 제2호)를 처벌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제73조 제3호)에 대하여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나) 사이버 스토킹: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제74조 제1항 제3호)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추가)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1.10.21. 이하 ‘스토킹처벌법’)로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벌칙을 제정하였다. ‘스토킹행위’의 정의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사이버스토킹과 관련된 행위는 다.항의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이버스토킹을 저지른 사람도 이에 포함된다.

다)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제70조 제1항)를 규정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의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제70조제2항)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게 되었다.

라) **사이버 모욕:** 사이버 상에서의 언어폭력은 형법상 모욕죄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므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제311조)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출처 : 윤해성, 2009)

현재 정부에서는 무관용 정책 기조가 반영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학교폭력예방법에 마련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처벌을 포함하여 강력한 예방교육과 분쟁 조정을 지체 없이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심리치료를 담당할 전문 기관을 사전에 교육감이 지정해 놓도록 강제한다. 이러한 치료와 보호에 드는 비용을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부담하게 하며,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까지 특별교육 이수를 강제한 점은 교육과 치료에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법률적 대응책의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임상수, 2013).

4) 사이버폭력과 오프라인 폭력의 처벌 비교

사이버폭력과 오프라인 폭력 모두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

데 사이버폭력의 특성상 비슷한 정도의 폭력 사안이라 할지라도(예: 친구에 대한 비방을 대면으로 한 경우와 SNS에 비방글을 올린 경우) 사이버폭력이 더 처벌의 강도가 높을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비해 더욱 큰 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의 수준을 결정할 때 사이버폭력은 오프라인 폭력에 비해 더욱 무거운 판정 결과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위해 아래에 제시된 조치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친다. 조치를 위한 판단 요소는 아래의 표와 같이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및 화해 정도로 구성된다.

<표 IV-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표-오프라인 폭력 경우

가해학생 기본 판단요소 판정 점수 협의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없음	판정 점수별 조치	
심각성	4	3	2	①	0	1~3점	1호 서면사과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없음	(필요시)	2호 보복금지
지속성	4	3	2	①	0	4~6점	3호 학교봉사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없음	7~9점	4호 사회봉사
고의성	4	3	2	①	0	(필요시)	5호 특별교육
	*없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0~12점	6호 출석정지
반성 정도	4	3	2	①	0	13~15점	7호 학급교체
	*없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6~20점	8호 전학
화해 정도	4	3	2	①	0	16~20점	9호 퇴학처분
	총 점수						위원회 평균이 아닌 협의로 점수 산정(5)점 (3)호 조치

(출처: 점수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준하여 작성됨)

중요한 점은 이 요소 중에서 심각성, 지속성 및 고의성의 경우 사이버폭력은 오프라인 폭력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을 교실에서 험담한 경우를 가정할 경우 위의 표와 같이 심각성과 지속성 및 고의성이 높지 않으며,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있고 화해의 의지도 있어 총 5점으로 평가되면 3호 조치(학교봉사)를 받게 된다. 그런데 유사한 정도의 험담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되면 아래의 표와 같이 보다 심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표 IV-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표-사이버폭력 경우

가해학생 기본 판단요소 판정 점수 협의							
심각성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없음	판정 점수별 조치	
	4	③	2	1	0	1~3점	1호 서면사과
지속성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없음	(필요시)	2호 보복금지
	4	3	②	1	0	4~6점	3호 학교봉사
고의성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없음	7~9점	4호 사회봉사
	4	③	2	1	0	(필요시)	5호 특별교육
반성 정도	*없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0~12점	6호 출석정지
	4	3	2	①	0	13~15점	7호 학급교체
화해 정도	*없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6~20점	8호 전학
	4	3	2	①	0	16~20점	9호 퇴학처분
총 점수	위원회 평균이 아닌 협의로 점수 산정(10)점					(6)호 조치 5호병과	

(출처: 점수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준하여 작성됨)

혐담 메시지를 공개적인 SNS에 올렸다면, 그 메시지는 불특정 다수가 읽을 수 있으며 해당 메시지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심각성이 낮음(1점) 정도의 혐담일지라도 이를 SNS에 올렸다면 높음(3점) 이상의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지속성의 측면에서도 살펴보면 SNS상의 내용은 일회적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며 유포의 범위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상처를 줄 수 있어 낮음(1점)에서 보통(2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학생은 사이버 상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영구 삭제하기 힘들다. 또한, 고의성 측면에서도 혐담 메시지를 공개적인 SNS에 올렸다는 것은 피해학생에 대한 혐담이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을 알면서도 올렸기 때문에 고의성에서도 높음(3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의 처분은 가벼울 수 없다.

일반적인 학교폭력의 피해가 대면하여 이루어지고 가해학생을 특정할 수 있다면 사이버 상의 폭력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익명성은 가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폭력의 가장 큰 특징이다. 가해자는 익명성에 숨어 피해자를 불안,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두 표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같은 폭력이 오프라인에서 발생하였을 때 총점 5점으로 '3호 학교 봉사'의 조치를 받는 경우가, 온라인에서 발생하면 총점 10점으로 '6호 출석정지'로 조치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버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5호 특별교육'도 병과할 수 있다. 폭력의 종류가 유사할지라도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면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측면에서 더 큰 위험성을 지니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5) 법적 처벌이 이루어진 사이버폭력 사례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사이버폭력에 법적 처벌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보도 자료를 통해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학교폭력예방법 이외에도 사이버폭력 사례에는 다양한 법이 적용될 수 있다.

- 온라인과 전자기기를 통해 따돌리고 괴롭힌 가해 사례
- 피해자는 옥상에서 투신하여 끝내 숨진 사건
- 경찰은 가해학생에게 명예훼손,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

(출처 : 정락인, 2018)

지난 9월 2일 오후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충북 제천에서 고등학교 1학년인 A양(16)이 상가 건물 옥상에서 투신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수사 결과, A양은 같은 학교 선배와 동급생 등 여고생 6명으로부터 SNS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같은 반 친구와 갈등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친구가 A양에 관한 허위 소문을 만들어 유포했다.

이후 A양은 동급생과 선배의 욕설과 협박에 시달리면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즉, 사이버폭력을 당한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A양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학교 측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A양은 누구로부터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은 A양에게 언어폭력 등을 행사한 여고생들을 명예훼손,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 폭력행위와 사이버불링을 자행한 인천 여고생 오물 폭행 10대들 사례
- '사이버 왕따' 당한 10대 여학생 피해자 작년 9월 숨져
- 폭력행위 등의 처벌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장기 1년~단기 10개월 징역형

(출처: 손현규, 2021)

이른바 '인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 가해자인 10대 남녀 2명이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을 상대로 '사이버불링'(온라인에서 모욕하거나 따돌리는 행위)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A(17)양과 B(17)군은 지난 9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각각 장기 1년~단기 10개월 징역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양 등은 올해 6월 16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여고생을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 등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또래 여학생을 상대로 모욕하거나 괴롭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앞서 이들은 C(사망 당시 16세)양이 2019년에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문내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등 SNS 단체 대화방에서 집요하게 괴롭혔다. C양은 성폭행 가해자의 신고 공판을 열흘 앞둔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 가해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C양을 괴롭힌 A양은 공갈·폭행·협박·모욕 등 혐의로, B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인천지법이 지난 5월 이들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항고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항고심에서 A양의 소년부 송치 결정은 취소됐지만, B군에 대한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이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 여학생에게 성적으로 비방하는 사이버폭력을 가한 남학생 사례
- 해당 여학생은 비방글이 올라온 당일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
- 벌금 500만원형 선고 받음

(출처: 허미담, 2021)

지난해 페이스북 등 SNS에서 여학생에게 사이버폭력을 가한 한 남학생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남학생은 2018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여학생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여학생은 비방글이 올라온 당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고층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가.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 주도형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2018년부터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어울림 프로그램이 2015년부터 개발·보급되어 왔지만, 학교폭력의 증가와 심각성이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정부 차원의 예방적 개입의 필요성이 강화되었다. 이에 사이버폭력 예방역량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어울림(기본) 프로그램과 사이버폭력 유형에 중점을 둔 사이버어울림(심층) 프로그램이 2018년부터 다각적으로 개발되었다. 이후 2020년에는 중등학교 현장에서 교과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 다양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교과연계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은 사이버폭력 예방 요소들을 역량으로 개념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예방역량 신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콘텐츠 유형에 따라 교사용 교재와 원격연수 동영상으로 구분되며, 콘텐츠 내용에 따라 기본과 심층 및 교과연계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과 심층 프로그램은 교과과정을 기본으로 해당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제작된 것으로 예방 '역량'과 또래 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최신 사이버폭력 '유형'을 고려하여 예방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반면, 교과연계 프로그램은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교과별로 제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본(역량) 프로그램은 8가지 역량을 도출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통해 평소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와 태도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심층(유형) 프로그램은 최근 문제가 되는 6개의 주요 사이버폭력 유형을 선별하여 담임·교과 시

간이나 창의·체험 시간 등을 통해 단시간 심층 예방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교과연계 프로그램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별로 구분하여 제작되었다.

<표 IV-7>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유형과 구성

유형	구성	차시/대상
사이버어울림 기본(역량) 프로그램	8가지 역량 공감, 의사소통, 자기존중감, 자기조절, 감정조절, 인터넷 윤리의식 및 활용, 사이버상의 갈등 관리와 문제해결,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처	3권 23종(71차시) 초등 저학년/고학년용, 중등용
사이버어울림 심층(유형) 프로그램	6가지 유형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영상유포	2권 12종(32차시) 초등용, 중등용
교과연계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교과별·학교급별로 제작한 중등학교 사이버어울림 기본(역량) 프로그램 중학교 : 국어/도덕/사회/영어/기술·가정/체육 고등학교 : 국어/윤리/통합사회/영어/기술·가정/체육	12권 95종(260차시)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나.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1) 사이버어울림 기본(역량) 프로그램

사이버어울림 기본(역량)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그리고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사이버 공간, 정보통신기술의 양면성, 사이버폭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8가지 역량을 도출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어울림에서 제시한 공감, 의사소통, 자기존중감, 갈등관리, 감정관리 역량과 사이버폭력에 초점을 두고 사이버 갈등관리와 문제해결, 인터넷 윤리의식과 활용, 사이버폭력 인식과 대처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교과 수업, 교육과정 연계 등 일상적인 교육에서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용 자료로 사용된다. 각 차시는 단위 모듈과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차시를 연계하거나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IV-1]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기본(역량)

<표 IV-8> 사이버어울림 기본(역량) 프로그램 개요

역량	내용
공감	타인의 경험을 자신의 것처럼 이해하며 느끼고 표현하는 것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인지적 요인(관점 및 역할 채택, 상상하기)과 정서적 요인(공감적 관심, 공감적 각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내적 과정
의사소통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생각, 관점, 느낌, 메시지를 전달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면대면 공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인간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필수적인 소통 수단
자기존중감	자신의 장점이나 좋은 점에 대하여 자부심이나 효능감을 느껴 자신을 인정하고 소중하게 대우함으로써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는 것
인터넷 윤리의식 및 활용	사이버 공간에서 네티즌으로서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요청되는 바람직한 가치관 및 윤리관
자기조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옳음과 그름, 좋고 나쁨의 판단 기준에 따라 자신에게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욕구를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행동하는 것
감정조절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한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표현하며, 알맞게 조절하여 표출하는 것
사이버 상의 갈등해결 및 문제해결	사이버 공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과 유형을 인식하고, 사이버 상의 갈등 상황에서 중재 기술과 행동 요령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처	다양한 사이버폭력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며, 그 각 유형은 왜 발생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이해하여 사이버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

2) 사이버어울림 심층(유형) 프로그램

사이버어울림 심층(유형) 프로그램은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초·중등 학생들이 관여되기 쉬운 일상적인 사이버폭력과 자주 발생하거나 집중 교육 활동이 필요한 사이버폭력의 신종 유형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단시간에 심층적이고 집중적으로 예방교육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사이버폭력 유형에 특화된 예방 교육 자료로 담임 시간 등 사이버폭력 유형별 집중 교육이나 특별 예방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 각 차시는 단위 모듈과 같이 독립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해당 사이버폭력 유형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역량(기본)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표 IV-9> 사이버어울림 심층(유형) 프로그램 개요

유형	내용
사이버 언어폭력	(비)언어적 형태의 사이버 괴롭힘 예) 온라인 비방, 악성댓글, 모욕 등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이나 거짓정보유출로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고, 개인정보유출로 모욕 행위와 관련된 고의적·악의적인 정보 유포 형태의 폭력
사이버불링·따돌림	관계적 폭력으로 발생하는 유형으로 떼카, 방폭, 카톡감옥·유령 등 사이버감금 형태
사이버 갈취	힘의 불균형 관계를 이용한 금품 갈취형으로 와이파이셔틀, 게임머니, 중고나라 사기 등 갈취형태의 폭력
사이버 스토킹	메신저, SNS상의 쪽지나 댓글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지속적인 괴롭힘
사이버 영상유출	도촬, 몰카, 사이버음란물 등 유해성 영상을 찍거나 유포하는 형태로 괴롭힘 (초·중등의 경우 직접적인 성폭력 보다는 이러한 형태로 사이버 모욕을 동반한 괴롭힘이 일반적)

3) 교과연계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연계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은 2020년에는 국어·도덕·사회, 2021년에는 영어·기술가정·체육 교과가 개발되었으며, 2022년에는 한문·진로 교과가 추가로 개발되어 보급될 예정이다. 교과연계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은 교과의 수업 진도 등을 고려하여 단원별·차시별로 선택적 활용이 가능하며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를 통해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때, 교과연계라는 것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안에 반드시 사이버폭력이 언급된 부분을 대상으로 연계

한 것은 아니다. 성취기준 안에 사이버폭력이 직접 기재된 부분은 희소하므로 성취기준 안에 언급된 대인관계나 정보윤리 등의 내용을 사이버폭력 예방과 연계하여 재구성하였다. 즉, 교과연계 사이버어울림은 교육과정의 내용을 발전시켜 재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사이버어울림은 교과와 범교과, 비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발전시켜 재구성한 것을 의미하며 사이버폭력 관련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학생 중심 활동에 초점이 있다. 또한 학교 상황에 따라 선택적·탄력적으로 유연한 교육 활동이 가능하다.



[그림 IV-2]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심층(유형)과 교과연계(국어)

<표 IV-10> 사이버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과목 별 예시

구분	과목	프로그램(예)	성취기준	사이버폭력 예방역량	차시
중	국어	사이버 공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어울림	9국01-02	사이버 공감 사이버 의사소통	3
	도덕	사이버폭력 이제 그만!	9도02-07	사이버 감정조절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처	2
	사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다른 사람이 보는 나	9사(일사)01-01	사이버 자기존중감 사이버 자기조절	4
	영어	Pause, Think and Work Together!	9영01-06 9영02-08 9영03-06 9영04-04	사이버 상의 갈등 관리 및 문제해결	2
	기술 가정	소셜미디어 화단 가꾸기	9기가05-06	인터넷 윤리의식 및 활용	2
	체육	조절해 봐 나의 감정을 배드민턴의 세계에서	9체03-10	사이버 자기조절 사이버 의사소통	2

구분	과목	프로그램(예)	성취기준	사이버폭력 예방역량	차시
고	국어	내 안에 나 있다	10국01-02	사이버 의사소통 사이버 자기조절	2
	윤리	신상 털기와 정보 지키기	12생윤04-02	인터넷 윤리의식 및 활용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처	4
	통합 사회	이제 그만 사이버폭력	12사탐03-02 12사탐03-03	사이버 갈등관리 및 문제 해결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처	5
	영어	Control Yourself in SNS	12영03-02 12영03-04 12영04-02 12영04-03	사이버 자기조절	3
	기술 가정	우리 문화는 다문화, 사이버 문화도 다문화	12기가02-02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처	3
	체육	집에서 하는 올림픽, 홈림픽으 로 사이버 인성 금메달따기	12스생01-04	사이버 공감 사이버 의사소통	2

다.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활용의 실제

학교에서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을 실제로 활용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역량)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상의 교육 활동에서 예방역량을 배양하거나, 심층(유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문제 유형별 관심군 학생이 소속된 학습 대상을 집중 개입하기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양한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예방교육 주간의 주제로 정하여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간의 빈번히 발생하는 사이버폭력 유형 교육에 활용하거나 예방교육 시간에 운영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표 IV-11> 교육과정 연계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운영방안(예시)

교육부 2019년 교육정책 안내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자료 참조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학교(사이버)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으로 간주
-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확대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 수립)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교육과정 연계 교육활동을 학교 운영 계획에 반영

교육부 2019년 교육정책 안내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자료 참조

-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주간 운영) 교육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주간(6월 셋째주) 운영
 (안전교육연계운영)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폭력예방교육'과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연계 운영
 (창의적체험학습활동, 자유학기제 선택활동 연계) 현장중심·선택적 편성·운영
 - 중학교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선택활동 시간에 자유학기제용 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 자유학기제 주제선택활동으로 현장중심 예방교육으로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교원역량강화) 학교(사이버)폭력 예방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및 교원 연수에 활용 등
 (기타, 학교환경을 고려하여 선택적·탄력적 운영)
 - (학생인성 및 예방교육) 가·피해 우려가 높은 관심군 학생 및 학습의 집중 개입 (심층)프로그램으로 활용
 - (학부모상담주간운영) 3, 4월 학부모 상담 기간 중 학부모연수 및 교육자료로 활용
 - (수업보조자료) 수업 들머리 교육 및 사이버폭력 예방 관련 수업자료로 활용 등

둘째,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모듈 단위 차시로 구성되어 있고 각 차시는 교육 목적상 상호 연계되어 있어 학교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각 차시의 주제는 사이버폭력 예방에 관련되거나 필요한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전문가 협의를 통해 선별하였다. 일상적 교육활동과 연계한 예방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1-3차시 모듈화된 차시의 구성으로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적·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표 IV-12> 사이버어울림 기본(역량) 프로그램

역량	학교급	프로그램 명	1차시	2차시	3차시
공감	초등	e공감 토크 (talk talk)	내 마음이 들리니?	공감씨는 능력자!	e공감 토크
	중등	넌 나와 같이 소중한!	나와 나의 연결고리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난 너를 존중해!
의사소통	초등	사이버 공간의 의사소통 왜 중요할까요?	새로운 의사소통 방법이 필요해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의사소통 할 수 있어요	올바른 사이버 의사소통 방법을 스스로 실천해요
	중등	실생활과 사이버 공간의 연결열쇠, '역지사지' 의사소통	어서와, 이런 대화 처음이지?	내 의견 좀 들어줄래?	네 생각에 날개를 달아보자

역량	학교급	프로그램 명	1차시	2차시	3차시
자기존중감	초등	사이버 세상에서 현명하게 우리를 지키는 방법	쫓! SNS의 숨겨진 이야기	사이버 세상에서 자존감을 부탁해!!	-
	중등	라이프 온 디지털! 자존감 높이고 응원하기	사이버 세상 속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크리에이터!
인터넷 윤리 의식 및 활용	초등	쑥쑥 자라는 인터넷 윤리의식	인터넷, 아는 것이 윤리! 내가 바로 미래의 디지털 시민!	디지털 흔적 무엇이 문제죠! 정직한 나, 밝은 인터넷 세상의 씨앗	사이버 윤리의식, 책임감! 미래 역량이죠!
	중등	서로를 잇(IT)는 건강한 마음가짐	브라보! 디지털 마이 라이프!	눈을 크게 뜨고 마음으로 그려봐!	너는야 체이지 e메이커!
자기조절	초등	내 행동의 책임은 나!	나의 시간은 내가 통제한다!	그래! 결정했어!	할 수 있어! 스스로 조절하기
	중등	사이버폭력 예방의 열쇠! 자기조절하기	사이버 공간의 자기조절! 무엇이 필요할까?	사이버 공간의 '나' 극복하기	그래! 결심했어! 스스로 통제하는 사이버 공간 속의 나
감정조절	초등	감정, 나의 길잡이!	너의 이름은?	너와 나의 감정고리	너와 나의 감정 이야기
	중등	들쭉날쭉 마음 다스리기	너와 나의 감정 알기	나의 감정 표현하기	나는 내 감정의 주인
사이버 상의 갈등관리 및 문제해결	초등	갈등과 다툼없는 사이버 월드	찾아라! 사이버 갈등	사이버 갈등? 리얼(REAL)한 상황!	갈등? 이렇게 해결해요
	중등	'협력과 절충' 으로 함께 해결하는 사이버 갈등관리	갈등? 넌 누구니?	갈등! 친구처럼 만나보자	우리는 갈등해결사!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처	초등	사이버폭력 로그아웃!	사이버 세상에도 '폭력' 이 일어난다고요?	이것도 사이버폭력이 될 수 있나요? 아하 그랬구나!	무엇부터 할 수 있나요? 함께해요!
	중등	듣지도 보시도 못한 현명한 사이버폭력 대처!	사이버 세상에서 폭력이란?	내가 올린 글이 폭력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표 IV-13> 사이버어울림 심층(유형) 프로그램

유형	학교급	프로그램 명	1차시	2차시	3차시
사이버 언어폭력	초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생각 없는 언어폭력! 가장 나쁜 습관	사이버 공간에서 욕설, 주먹보다 깊은 상처	-
	중등	사이버 언어폭력, 당신의 손은 깨끗한가요?	무심코 저지르는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언어폭력 대처하기	-
사이버 명예훼손	초등	사이버 명예 존중을 실천하는 디지털 젠들맨	Mission Impossible! 신상정보를 사수하라!	키보드 위리어의 종말!	진실 혹은 거짓, 그래! 결심했어!
	중등	사이버 세상에서는 생각+	사.명.책(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	Fake와 Fact 사이	내 신상도 혹시?
사이버 따돌림	초등	사이버 세상 우리는 하나!	사이버 따돌림이 뭐지?	사이버 따돌림, 어떻게 대처할까?	-
	중등	함께하는 사이버 세상 우리가 만든다	사이버 따돌림의 문제와 원인 분석	사이버 따돌림으로부터 나와 친구 보호하기!	사이버 따돌림 NEVER, 무엇부터 하지?
사이버 갈취	초등	친구야 우리 함께 하자!	친구야, 이것도 사이버 갈취가 되는거야	친구야 우리 스스로 지키자!	친구야 같이 실천하자!
	중등	나를 지키는 힘	보이지 않은 검은 손	나를 지키는 하얀 손	-
사이버 스토킹	초등	사이버 스토킹으로부터 나 보호하기!	좋아하면 관찮아?	내가 흘린 정보들이 사이버 스토킹으로	열 번 짝어 안 넘어가는 나무
	중등	사이버 스토킹, 사랑과 집착 사이	좋아하면 관찮아? 내가 흘린 정보들이 스토킹으로...	사이버 스토킹 예방과 대처, 무엇부터 할까?	사이버상의 교우 사귀, 어떻게 할까?
사이버 영상유포	초등	우리 자신을 지켜요	내가 인터넷에 올라왔다!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도와줄게	사이버 불법영상 OUT! 우리 자신을 지켜요
	중등	나도 모르게!	그냥 보는 것 인데 어때	나의 몸은 당신의 유희거리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셋째,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한 자료는 수업지도안, 활동지, 참고자료, 교사 Tips 등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역량), 유형(심층), 교과연계 등 내용적 요소를 고려하여 학습자 활동에 반영하였으며 현장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형태의 교육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넷째,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은 각 집필진의 수업은 물론 2018년 사이버폭력 예방 초·중등 선도학교(150개교)의 교육과정 연계 교육 활동에 접목한 파일럿 검토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방교육을 위한 현장 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청소년 또래 간 빈번히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의 최신 유형을 고려하였으며 유형별 세부 유형이 있는 경우 각 차시에서 다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계 가능한 예방역량과 유형을 안내하여 예방교육의 시너지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역량에 초점을 둔 기본 프로그램과 유형에 초점을 둔 심층 프로그램은 예방교육의 관점에서 상호 연계되어있다. 예를 들면 공감 역량이 부족할 경우 사이버 언어폭력이나 따돌림 등을 쉽게 일으킬 가능성이 크듯이 사이버폭력의 유형별 특징을 고려하여 관련 예방역량을 배양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관련된 기본(역량) 프로그램과 심층(유형)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라.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정태성(2021)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6학년 1개 학급 25명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적용하였으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집단 내 프로그램 적용 전과 적용 후 설문조사(인터넷 윤리의식,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처 역량, 프로그램 적용 이후 삶의 변화 등)를 실시하였고 학생 인터뷰 및 행동 관찰을 수행하였다. 효과성 검증 결과,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을 적용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인터넷 윤리의식이 일부 향상되었으며 사이버폭력 인식 대처 역량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인터뷰에서 학생 대다수가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윤리와 사이버폭력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행동 관찰을 통해 학생들이 사이

버폭력 대처 방법을 익히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사이버폭력을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초등학교 고학년의 사이버폭력 예방에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과연계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탐색한 연구로 오인수, 조규복, 반지윤(2021)은 LDA기반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서술형 의견을 분석하였다. 교직경력 5년 이상 현직 교사의 지도하에 2020년 교과연계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1,212명(중학생 880명, 고등학생 332명)의 서술형 의견을 분석한 결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해결 방법을 생각하는 수업은 긍정적이지만 내용이나 생각할 것이 많아 시간이 부족한 수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좋았던 점은 사이버 상 젠더 관련 차별·혐오 표현의 폭력성 인식, 사이버폭력 유형 및 위험성 인식과 대처 역량 증진, 온라인 기반 디지털 매체의 장점과 역기능 인식, 체험 활동을 통한 사이버폭력 피해의 심각성 이해 및 공감 향상이었다. 반면, 개선할 점은 체험 기회의 부족으로 공감 및 표현의 어려움, 난도 높은 용어와 많은 학습 분량으로 인한 어려움, 시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한 수업 운영, 사이버폭력과 연계성 부족과 많은 내용, 총 네 가지 토픽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교과연계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이 사이버 성폭력과 혐오 표현 등에 대한 개념을 고찰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프로그램 운영 시 수업의 시간을 고려하여 내용의 양과 활동 등을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해외 사례 분석 및 활용 방안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해외 각국에서는 다양한 교육자료 제작 및 제공,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 시행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9)이 발행한 청소년 사이버폭력 양상 및 예방에 관한 분석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여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을 재구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미국

미국은 정부와 여러 센터가 함께 사이버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PACER's

National Bullying Prevention Center, Cyberbullying Research Center, Stop Bullying, Violence Prevention Works 등이 있다.

먼저, PACER's National Bullying Prevention Center³⁾는 PACER 재단이 2006년에 설립한 센터로 사이버폭력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전체를 다루며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센터는 사이버폭력의 정의, 특징, 발생률, 관련 연구 동향, 피해 등 사이버폭력의 종합적인 내용을 참고문헌과 함께 요약 및 설명한다. 또한, 사이버폭력과 관련한 신문과 영상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사이버폭력이 낮은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 등이 사이버폭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센터에서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과정, 관련 활동 등과 같이 교사들이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를 함께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 교육과정을 통해서 사이버폭력을 소개하고 토론 수업에서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고민하도록 한다. 또한, 교사는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간 단위 수업계획, 주간 수업계획, 연간 수업계획 등을 제공한다. 그 외에도 학년별로 읽을 수 있는 사이버폭력 관련 도서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다.



[그림 IV-3] PACER's National Bullying Prevention Center 웹사이트

3) <https://www.pacer.org/bullying/>

두 번째로 Cyberbullying Research Center⁴⁾는 2005년에 개설된 비영리 웹사이트로, 사이버폭력 연구 전문가인 Sameer Hinduja와 Justin Patchin가 운영하고 있다. 본 사이트에서는 두 연구자가 사이버폭력과 관련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인 만큼, 최신 사이버폭력의 연구논문 및 조언 등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사이버폭력의 의미와 유형, 원인 및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 법조인, 상담가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10가지의 구체적인 사이버폭력 대응방법과 조언, 사이버폭력 대응과 관련한 워크숍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본 사이트에서는 교사나 학생 등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된 뉴스레터 형식으로 만들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웹사이트와 주별 법적 근거 및 자료 등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 특히, 본 사이트에서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이버폭력과 관련한 연구 및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 프레젠테이션 및 워크숍 정보 제공, 사이버폭력의 양상 등에 대해 분석한 학술지 무료 배포, 해외 사이버폭력 연구에 대한 학술지와 저서 소개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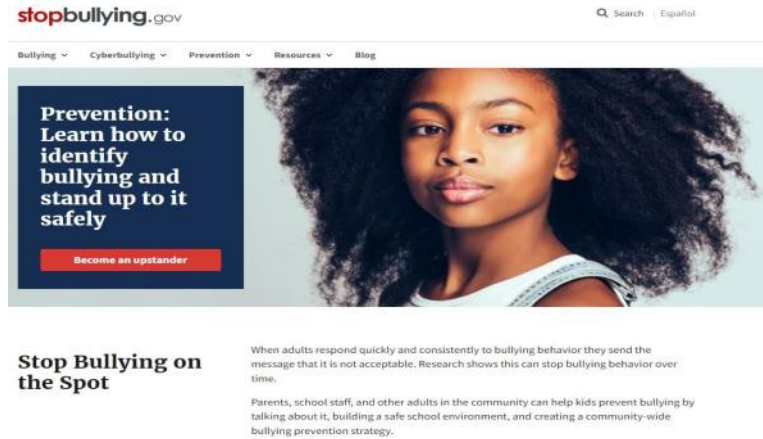
[그림 IV-4] Cyberbullying Research Center 웹사이트

세 번째로 Stop Bullying⁵⁾은 대부분의 사이버폭력 예방센터가 민간 설립인 것과 달리 미국 정부 기관이 관리하는 웹사이트이다. 정부에서 별도의 사이버폭력 예방센터를 운영하지는 않으나, 국가 소속의 웹사이트에서 사이버폭력을 언급하며 법적인

4) <https://cyberbullying.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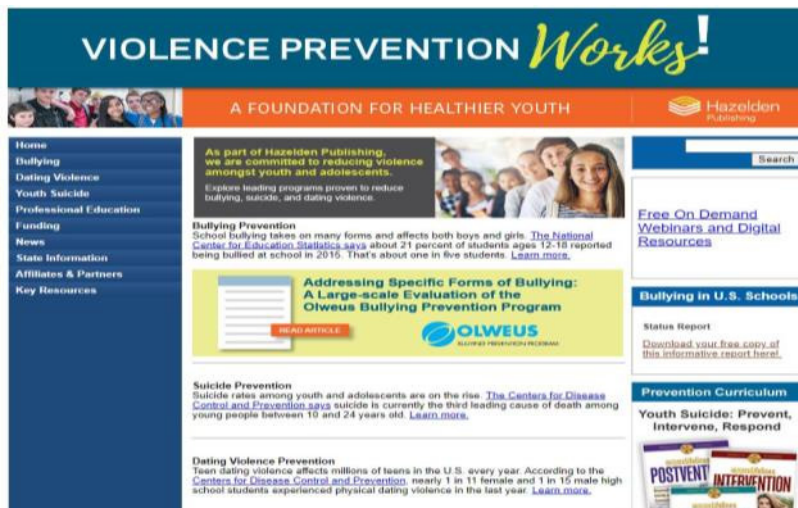
5) <https://www.stopbullying.gov/>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을 통해 미국이 사이버폭력 문제에 관해 관심을 크게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웹사이트에서는 사이버폭력의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IV-5] Stop Bullying 웹사이트

마지막으로 Violence Prevention Works⁶⁾는 PACER's National Bullying Prevention Center와 마찬가지로 사이버폭력을 포함한 여러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을 3~6학년, 6~12학년의 두 단계로 나누어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림 IV-6] Violence Prevention Works 웹사이트

6) <https://www.violencepreventionworks.org/public/index.page>

나. 호주

2015년에 설립된 Office of the eSafety Commissioner⁷⁾는 호주 정부의 산하 기관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긍정적인 온라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해당 기관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예방 및 대응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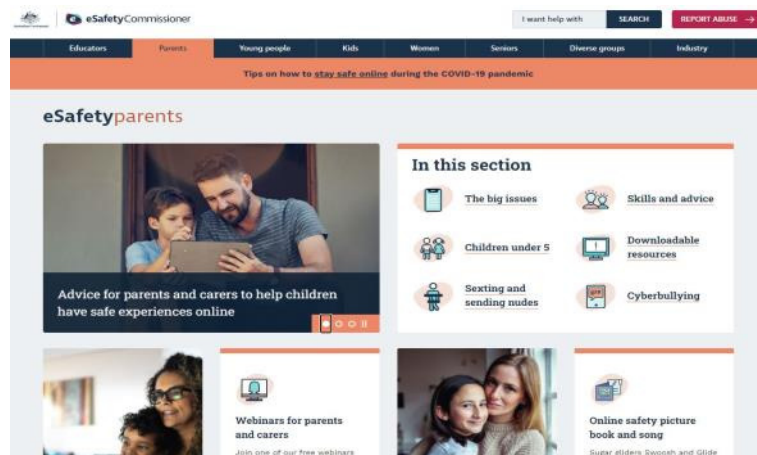


[그림 IV-7] Office of the eSafety Commissioner 웹사이트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이버폭력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관에서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이버상의 이슈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폭력, 게임중독, 유해 사이트와 콘텐츠 등의 다양한 사이버상의 이슈에 대한 특징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이버폭력 대응과 관련하여서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을 목차로 구성하여 단계마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단계를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웹사이트와 이메일 주소 제공, 본 기관 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타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온라인 채팅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 연결 등 사이버폭력 대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⁷⁾ <https://www.esafety.gov.au/>

또한, 해당 기관은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를 위해 기관 웹사이트 내에 'iParent' 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하였다([그림 IV-6]). 이를 통해 학부모는 자녀가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당하였을 때 경우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대처 방법 등과 같이 사이버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가 안전하고 올바른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육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교사를 위해서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교급별 수업 계획, 교육용 애니메이션, 사이버 안전 교육 게임과 퀴즈, 역할 놀이, 온라인 수업 등의 자료들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교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교사들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과 사이버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주제로 하는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젝트를 제시함으로써 학교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학교가 요청하면 정부가 공인하는 연수를 받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과 교사를 위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및 연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림 IV-8] 부모를 위한 자료제공 페이지

본 기관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위한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자료 제공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기관은 꾸준한 실태조사와 사례 연구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등 사이버폭력 관련 연구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본 기관의 웹사이트는 다양한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여러 목차 중 원하는 목차를 클릭하면 관련한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 뉴질랜드

1998년 설립된 NetSafe⁸⁾는 안전한 사이버 활동을 독려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본 단체는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디지털 기술로 인한 문제에 대해 친 기술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청소년과 성인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잘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사이버상의 문제에 대한 전화 및 이메일 상담, 사이버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 정기적인 뉴스레터, 사이버 안전과 관련한 교육,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이에 관한 연구, 학부모나 교사를 위한 온라인 사이트 등 여러 주제에 대한 자체 워크숍 제공 등이 있다.



[그림 IV-9] NetSafe 웹사이트

본 단체는 학생들이 올바른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곱 가지 사이버 안전을 위한 키워드를 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행복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사이버폭력을 처음 경험하거나 알게 된 교사와 학부모 및 학생을 위해 사이버폭력의 정의와 특성, 유형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각 대상에 알맞게 필요한 자료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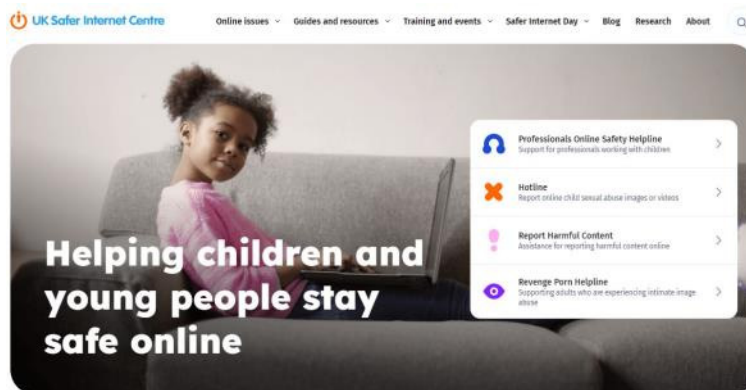
먼저, 학생들에게는 사이버폭력의 대처법으로 증거 남기기, 신고하기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8) <https://www.netsafe.org.nz/>

있다. 학부모에는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 가지 온라인 활동과 관련하여 안내한다. 특히, 자녀의 온라인 활동 이해하기 또는 좋은 예시 제안하기 등과 같이 자녀의 건전한 온라인 활동을 돕기 위한 10가지의 조언을 제시하고 있다. 본 단체는 특별히 학교와 교사를 위해서 웹사이트 내에 NetSafe Kit라는 페이지를 개설하여 사이버폭력과 관련한 더욱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보, 교육과정,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가 NetSafe School 회원으로 가입하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플래너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가 원하는 교육 영역을 설정하면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시민 교육 계획을 설계할 수 있고, 관련 교육자료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교육 후 실시할 수 있는 평가까지 자동으로 생성되어 학교는 해당 기능을 통해 교육계획과 실행 및 평가를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본 단체는 교사에게는 학교급별 혹은 주제별로 교실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며, 본 단체 이외에 다른 나라와 기관의 자료 또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라. 영국

영국의 UK Safer Internet Centre⁹⁾는 Childnet International과 Internet Watch Foundation, South West Grid for Learning 기관이 2011년부터 협력하여 운영하는 단체로, 유럽에 있는 주요 사이버폭력 관련 센터 중 하나이다. 본 센터는 영국의 청소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인터넷과 각종 매체, 전자기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학부모,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인터넷 사용법을 안내 및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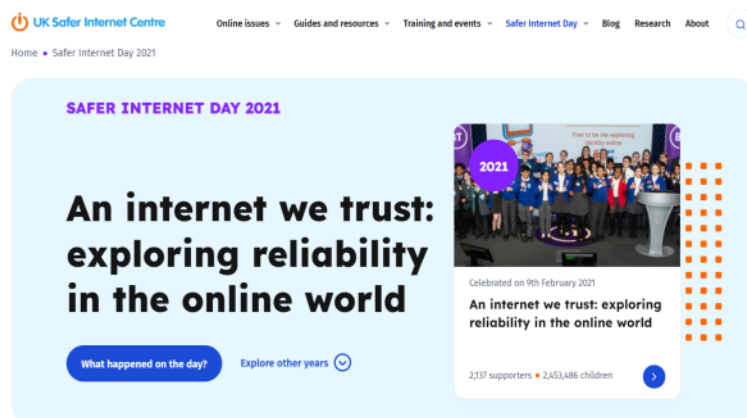
[그림 IV -10] UK Safer Internet Centre 웹사이트

9) <https://saferinternet.org.uk/>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교육, 상담, 치료로 나뉘며, 교육지원의 예로 청소년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인 Digital Leaders Program이 있다. 본 프로그램은 모든 영국 학교에 제공되는 학생 주도형 온라인 안전 프로그램으로, 학생이 자신의 친구나 주변 학생들에게 온라인의 안전에 대해 교육하도록 한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학생은 학교급별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고, 영국 전역의 다른 학생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며 안전한 온라인 활동과 관련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다.

한편, Advice Centre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사, 사회복지사, 기타 전문가들을 지원한다. 본 센터는 이들이 청소년들의 안전한 인터넷 활용 방법을 교육하는 활동을 돕고,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과 절차들을 숙지하도록 한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핫라인 IWF(Internet Watch Foundation)는 전 세계 인터넷 산업 및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지원을 받아 사이버 공간에 떠도는 아동의 성적인 이미지나 비디오 등을 신고하고 제거하는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본 센터는 전 세계적으로 성적 학대의 피해자들을 보호하며 돕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Professionals Online Safety Helpline은 2011년에 설립되어 사이버 공간에서 안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온라인 댓글, 게임, 사이버폭력, 소셜 미디어 등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판단하고 신고하는 것이 있다. 본 단체는 영국 전역에서 Safer Internet Day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이버 활용이 안전하고 절제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림 IV-11] Safer Internet Day 2021 행사 페이지

마. 프랑스

프랑스 교육부에서 승인한 공공협회인 e-Enfance¹⁰⁾는 2005년에 설립되어 아동과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전자기기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한다. e-Enfance는 온라인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와 그를 통한 교류, 그리고 여러 지식에 대한 접근 도구로서의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 긍정적이다. 다만 유해한 매체 및 내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와 교사, 교육 전문가에게 미성년자가 온라인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올바른 디지털 활용에 대한 가치와 그 방법을 파악하는 한편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도구를 찾아 문제에 잘 대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과 사이버폭력과 같이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IV-12] e-Enfance 웹사이트

e-Enfance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e-Childhood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정보통신 기기 및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돕는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와 교육 전문가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학생이 사이버폭력과 계정 해킹,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에 처했을 경우 학부모와 교육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한다.

10) <https://e-enfance.org/>

e-Enfance가 지원하는 활동을 대상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랑스 전역에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2017년에는 총 89,00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또한, 'Behind the door'과 같은 대화형 영상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정보통신기기 및 인터넷 사용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감독하는 방법을 조언한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사용 시간, 개인 정보 보호, 음란 동영상 노출, 잘못된 정보와 거짓 뉴스 등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미나와 연수 등을 연 200회 이상 실시하여 청소년을 직접 가르치는 교육 전문가들이 먼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교육 전문가들이 올바른 미디어 사용에 대해 학습하고 사이버폭력 발생 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e-Enfance는 특히 사이버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필요한 정보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쉽게 정보를 확인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e-Enfance는 학교에 사이버폭력 대응 가이드와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Google과 협력하여 사이버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 SNS를 통해 자주 발견되는 사이버폭력의 특징과 더욱 심화되는 양상에 대해 파악하고 그 문제를 교육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e-Enfance는 학교급별로 즉시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통신기기 및 인터넷 사용이 활발해진 현재,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위험 예방 지식과 방법 등을 안내한다.

바. 시사점

이상을 종합하면, 해외 각국에서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노력하며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 사례들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PACER's National Bullying Prevention Center에서는 학교폭력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는 NetSafe, Office of the eSafety Commissioner와 같이 사이버폭력만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센터는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기 때문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을 중

점적으로 다루는 반면, 뉴질랜드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을 포함한 스캠 등 전반적인 온라인 관련 문제나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성인들이 더욱 안전한 사이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폭넓은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대부분의 웹사이트나 기관 및 단체가 비영리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미국의 Stop Bullying과 호주의 Office of the eSafety Commissioner는 정부가 관리하거나 산하에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e-Enfance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공공협회로 운영되고 있다.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각국은 다양한 형태의 기관을 운영하여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해외 사례 요약에 기초하여 각국의 사례들이 한국의 사이버폭력 예방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의 달을 정해 마라톤 대회 등의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따돌림과 관련한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느낀 감정이나 생각 등을 포스터, 글, 영상 등으로 표현하고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수상하는 Students with Solutions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도 하였다. 사이버폭력은 오프라인 폭력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화하기 때문에 예방교육을 지도해야 할 성인의 기술대응력이 떨어져 교육의 효과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인 교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넘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학생이 중심이 되는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학생 중심의 다양한 예방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관련 기관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교수학습계획을 포함한 교육과정과 학습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Cyberbullying Reserach Center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이버폭력 예방센터와 웹사이트는 학교와 교사들을 위해 학년별로 교육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교사들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욱 쉽고 용이해졌다. 학생들의 문제가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 지면서 문제를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한 교사의 노력 또한 예전보다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교육자료를 직접 개발하기 보다는 이미 개발된 질 높은 교육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가 되었다. 그런데 현재 학교폭력 예방교육자료는 사이버폭력보다는 오프라인 폭력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부모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등 학부모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의 폭력 예방 대책의 공통점 중 하나는 예방적 개입과 협력의 대상을 학부모(보호자)까지 확대하는 접근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사회성의 근간이 되는 공감, 정서 인식, 의사소통 능력 등은 모두 부모(보호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기초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학부모(보호자)의 양육방식이 자녀(아이)의 학교폭력 위험요인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단순한 정보 전달부터 적극적인 모임 조직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부모 활동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청소년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정보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단순히 안내 자료와 활동지 등이 아닌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임과 춤, 아바타 키우기 등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 자료의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예방에 대한 접근성 용이 및 흥미 유발을 통해 적극적인 사이버폭력 예방 참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Toda와 Oh(2021)는 사이버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기존의 교수-학습 방식의 틀을 벗어나 보다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양한 게임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다 창의적인 교수학습자료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외 각국의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구체화된 교육자료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에 보다 실제적이고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자료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이버폭력에 관한 연구와 교육자료 등에 대한 개발도 지속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부와 학교, 교사, 학생 및 학부모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더욱 의미 있고 효과적인 사이버폭력 예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V. 사이버폭력 지도역량 강화

1. 사이버폭력 징후 발견과 지도방법

가. 사이버폭력의 징후

사이버폭력의 징후를 발견하는 것은 빠른 개입과 조치를 가능하게 하며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들은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같은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데 보낸다. 따라서 이러한 기기 사용 시간의 변화는 가장 두드러진 사이버폭력의 징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사이버폭력 피해와 관련한 징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사이버 공간과 학교, 또래 사이에서의 학생의 행동 변화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몇 가지 징후는 다음과 같다.

1) 문자나 SNS를 자주 확인하며 긴장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학생들은 많은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응시하는 표정과 행동을 보면 이들이 영화를 보는지,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자료를 검색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폭력 피해학생들은 두려움 때문에 문자나 SNS를 확인할 때 긴장하거나 불안한 표정을 보이기 쉽다. 또한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은 분노와 같은 감정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두경희, 2015; Campbell et al., 2012; Hinduja & Patchin, 2007; Lee & Chun, 2020; Ortega et al., 2013; Sourander et al., 2010). 따라서 문자나 SNS를 확인한 후 화를 내거나 휴대전화를 팽개치는 다소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것 또한 사이버폭력의 주요한 징후가 될 수 있다.

2) 등교를 거부하거나 학교생활 및 학업에 어려움을 보인다.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은 학생의 불안을 높인다(정문경, 2015; 최진오, 2015, 2016; Campbell et al., 2012; Dempsey et al., 2009; Hinduja & Patchin, 2007;

Nixon, 2014; Sontag et al., 2011; van den Eijnden, 2014; Wigderson, 2013). 특히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인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매우 심한 불안을 느낄 수 있다. 만약 갑작스럽게 자주 결석하거나 조퇴하려는 학생이 있다면 사이버폭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은 등교 후 학교생활에서도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없이 발생하는 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은 밤새 괴롭힘을 당할 수 있으며 불면증을 겪을 수도 있다. 이는 피로의 축적으로 이어져 학생이 이전과는 다르게 학교에서 자주 잠을 자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학교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 또한 사이버폭력의 징후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평소와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경우 사이버폭력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3)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평소보다 스마트폰의 이용요금이 과도하게 많이 나오거나 용돈을 많이 요구한다면 학생이 사이버 갈취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다. 특히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요금은 와이파이 셔틀로 인한 데이터 사용량의 증가, 혹은 게임 아이템 셔틀로 인한 스마트폰 소액 결제 금액 및 횟수의 증가와 관련될 수 있다. 최근에는 와이파이 셔틀 피해학생에게 스마트폰 요금제를 무제한 요금제로 바꾸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피해학생은 갑작스럽게 스마트폰 요금제 변경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4) 온라인 계정 혹은 활동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피한다.

자신의 온라인 계정 혹은 활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이버폭력의 주요 징후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피해학생은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말하기 두려워한다. 또한, 말을 했을 때 어른들이 보일 반응을 무서워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보는 경우, 학생이 이전과는 달리 숨기려는 것이 많아질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정보통신기기를 만지거나 확인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거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또한 사이버폭력 피해의 징후일 수 있다.

5) SNS에 게시하는 사진이나 글이 갑작스럽게 어둡거나 우울하다.

사이버폭력의 피해 경험은 학생의 우울감을 증가시키며(민대기, 최미경, 2016; 장덕희 외, 2020; 조운오, 2013a; 손한결, 김은혜, 2021; Bauman et al., 2013; Campbell et al., 2012; Chang et al., 2013; Schneider et al., 2012; Perren et al., 2010; Shaw & Cross, 2010; Wang et al., 2010) 피해학생은 종종 무력감(두경희, 2015; Ortega et al., 2013)을 보고한다. 하지만 이는 실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성인과 달리 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은 전형적인 우울 증세가 아닌 비전형적인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가면성 우울'로 불린다. 많은 청소년은 SNS를 통해 평상시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기에 SNS에 올리는 글이나 사진을 통해 근황을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SNS에 게시하는 글이나 사진의 분위기가 이전과는 달리 갑작스럽게 우울하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심리를 보이며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은 사이버폭력의 주요한 징후일 수 있다.

6) SNS 계정을 갑작스럽게 삭제하거나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청소년 대부분은 SNS 계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또래 사이에서 결속력을 느끼거나 또래 문화를 형성한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에서도 SNS를 통해 공지사항을 안내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SNS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SNS를 통해 사이버폭력이 지속되는 경우, 피해학생은 갑작스럽게 자신의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며 괴롭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학생의 SNS 게시글 혹은 그림의 내용뿐만 아니라 계정 유지 상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려면, 학생의 SNS 계정에 대해 부모와 친구 맺기 등을 하여 평소 자녀의 SNS 활동에 부모가 관심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

7) SNS 등에서 집단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당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비하 발언이나 욕설 등이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집단따돌림이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가고 청소년 사이에서 신종 익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 등이 폭발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익명성에 기대어 특정 학생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저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신상정보를 추적하여 유포하는 등의 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김영훈,

2021; 방송통신위원회, 2021; 심홍진, 2014; 안성진 외, 2015; 이승현 외, 2015; 정한호, 2012; 주용완 외, 2017; 최두진 외, 2018;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Willard, 2007).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또래로부터 이름보다는 비하적인 성격의 별명이나 욕설로 불리는 경우도 사이버폭력의 징후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8) 식욕을 잃거나 체중이 감소하며 두통, 복통 등의 건강상의 문제를 자주 보인다.

신체화 증상 또한 사이버폭력의 주요 영향 중 하나이다(주은선 외, 2019; Beckman et al., 2012; Carter, 2011; Kowalski & Limber, 2013; Sourander et al., 2010).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은 식욕 부진, 두통, 복통 등이 있다. 성인과 비교하여 아동 및 청소년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언어 표현의 제한으로 신체화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중 식욕 부진은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학생이 장기간 폭력에 노출되어 급격한 건강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9) 또래나 가까운 사람들로 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킨다.

가족과 또래 친구, 교사와 같이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 피해학생을 점차 격리하는 것은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이 보이는 행동 중 하나이다. 또한, 피해학생 스스로 또래와의 활동이나 상호작용에 참여하기를 꺼리거나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을 피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사이버폭력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기 때문에, 사이버폭력을 당하면 관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이는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학생의 자존감을 낮추는 것과 관련된다(Zahid, 2010). 교사는 갑작스럽게 주변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학생은 없는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해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10) 자살 또는 자해, 복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은 자살사고(오세운 외, 2020; 장덕희 외, 2020; 정지선, 2021; Bonanno & Hymel, 2013; Nixon, 2014; Hinduja & Patchin, 2010; Klomk et al., 2008)와 실질적인 자살시도와 자해로 이어질 수 있다(김재엽 외, 2019; 서화원, 조운

오, 2013; 이주형, 안순철, 2013; Bauman et al., 2013; Schneider et al., 2012). 또한, 사이버폭력은 또 다른 가해 혹은 위협 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김종길, 2013; 서봉언, 2016; 신나민, 안화실, 2013). 따라서 자살사고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가장 위험한 징후로 고려된다. 만약 자살과 자해, 복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또한, 최근에는 피해학생에게 자해를 강요한 후 이를 사이버 공간에서 인증하도록 하는 인증 놀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나. 사이버폭력 지도 방법

앞선 절에서 사이버폭력의 징후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이버폭력 징후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도 방법을 알고 신속하고 적절한 개입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특히 교사가 사이버폭력 징후를 발견한 경우 가정과 협조하여 함께 상황에 대처한다면 학생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도울 수 있다. 사이버폭력은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교사가 사이버폭력 지도 방법을 숙지하여 평상시에 학급 내에서 학생들과 함께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폭력 징후와 관련한 지도 및 예방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을 보호하도록 지도한다.

간혹 친구에게 자신의 계정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험한 행동으로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친한 친구에게 공유된 비밀번호는 본의 아니게 제3자인 가해학생에게 전달될 수 있다. 그리고 가해학생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계정 소유자인 것처럼 온라인에서 행동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른 친구와의 관계를 훼손하는 등 다양한 위장 행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이버폭력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자신을 특정인처럼 사칭하여 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SNS 등에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다.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다. 비밀번호에는 영문 대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고 최소 7글자 이상이 되도록 하여 유추가 어려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2) 규칙적으로 사이버폭력의 위험성 및 심각성, 그리고 예방법에 관해 토론할 기회를 마련한다.

각자의 온라인 활동과 사이버폭력에 대해 열린 분위기 속에서 주기적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때 사이버폭력은 엄연히 처벌이 가능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호주 정부가 운영하는 안전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기관인 eSafety Commissioner (<https://www.esafety.gov.au>)의 홈페이지나 Hinduja와 Patchin(2009/2012)의 저서에는 학생들이 사이버폭력의 가해 및 피해, 그리고 목격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와 질문을 제공하고 있다. 교사는 이와 같은 토론과 교육을 통해 사이버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분명하게 강조해야 한다.

3) 학생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상담한다.

사이버폭력은 가해 및 피해 사실이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들이 사이버폭력에 가담하거나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학생들의 온라인 활동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정기적으로 사이버폭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 설문에는 학교의 학생 사이에서 사이버폭력이 발생하고 있는지, 발생하고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온라인에서의 문제로 인해 학교에 나오는 것이 두려운 적이 있었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포함할 수 있다(정여주, 2021; Hinduja & Patchin, 2009/2012). 하지만 평가만으로는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평가와 함께 주기적인 상담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교사와 학생이 평소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학생이 자신의 온라인 활동을 솔직하게 보고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학생과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은 학생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또한, 피해 사실이 나 사이버폭력 징후를 더 빨리 발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4) 사이버폭력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징후를 알아차리는 것에 대한 가정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부모들도 사이버폭력의 심각성과 위험성, 사이버폭력의

징후, 사이버폭력 예방법, 사이버폭력 피해 시 대처방안, 사이버폭력 신고 절차 등을 정확히 아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가정에서도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사이버폭력 발생 시 학교와 협력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개입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에 사이버폭력과 관련하여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가정에서도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부모교육을 위한 안내문을 통해 가정에서도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다. 또한,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관찰하고 사이버폭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해 정보를 차단하거나 모니터링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학부모에게 소개할 수도 있다.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애플리케이션은 V장 3절에 소개하였다.

5)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한다.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고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정보통신기기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정보통신기기 중독을 호소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7a).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사이버폭력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교육하는 것이 좋다. 이에, 교사는 진로와 학업에 유용한 애플리케이션 이용, 약속된 장소에서만 스마트기기 사용, 스마트폰 메신저 사용 시간을 줄이는 메신저 다이어트 실천 등(방송통신위원회, 2017a;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안전행정부, 2014;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을 안내할 수 있다. 또한,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SNS 메시지나 문자 등을 열람하거나 답장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론을 통해 정보통신기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학급 규칙을 학생들과 함께 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에서도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타인을 존중해야 함을 지도한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자체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예절과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평소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며 온라인에서도 타인에게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하여 악플 대신 선플 달기 활동을 해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글 혹은 사진을 게시할 때 타인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함부로 게시하거나 유포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무엇보다 익명성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나 게시할 수 없는 사진에 대해서는 이를 게시하기 전에 학생이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 공간에서는 더욱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와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지도해야 한다.

7) 사이버폭력 피해를 보는 경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직접 만나거나 보복하는 등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주위 어른과 우선 상의할 것을 강조한다.

피해학생은 순간적인 분노나 자신의 책임이라는 자책, 어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알리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등에 사로잡힐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피해학생은 혼자서 가해학생을 직접 만나거나 보복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보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또 다른 가해 행동이나 더욱 심각하고 위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에 노출된 경우 부모와 교사는 무조건적으로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해 줄 것을 평소에 학생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피해를 보았을 때 피해학생이 주변의 어른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해 행동에 대해 반응하거나 보복하기보다는 그 즉시 반응을 차단하고 증거를 확보한 후 괴롭힘이 발생한 사이버 공간을 떠나야 함을 안내한다.

8) 주기적으로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을 교육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한다.

학생들에게 사이버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때 신고할 수 있는 기관과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함께 안내한다. 대표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17 학교폭력 신고 센터,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사이버폭력 신고가 가능하며, 학생 위기 상담 종합지원 서비스와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 센터, 스마트쉽센터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은 당황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피해 사실을 보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평소 사이버폭력에 관하여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다.

9) 사이버폭력 피해가 의심될 경우 해당 학부모에게 즉시 알리고 협력하여 지도한다.

사이버폭력 피해가 의심스러운 징후가 발견되었다면 교사는 즉시 모든 관련 학생의 학부모에게 사실을 알리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한다. 특히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혹은 가해학생의 학부모를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 가해학생 혹은 가해학생의 학부모를 만나는 것은 지양하도록 안내한다. 그리고 그보다는 피해학생과 함께 문자, SNS 게시물 등 피해 사실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출력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한다. 이후 협력할 수 있는 기관과 전문가, 다양한 대응 방식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잘 조율해 나간다. 이에 대비하여 교사는 평소 사이버폭력과 관련하여 협력할 수 있는 기관과 전문가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법적인 문제가 필요한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폭력 관련 법령이 아직 미비하므로 학부모와 함께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교사는 피해학생에게는 정서적 지지와 신체적 안전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가정에서도 심리적 지지와 안정감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안내한다.

10)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급 분위기를 형성한다.

학급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폭력 가해 행동 및 피해 경험에 영향을 준다(Hinduja & Patchin, 2009, 2012). 평소 학급 내에서 괴롭힘이나 폭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급 내에서 사이버 문화 혹은 사이버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명확한 학급 규칙 및 정책을 학생들과 함께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와 더불어 학급 내의 바람직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건강한 학급 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학급 내에서 교사가 말과 행동을 통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차별 또는 폭력적인 말과 행동은 옳지 않다는 것과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사의 평소 말이나 행동을 통해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최근에는 학급 내에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교사는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학생들의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사이버폭력 유형별 교육방법¹¹⁾

본 장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의 총 7가지 사이버폭력 유형에 관해 사례와 교육 및 대응 방법을 소개하였다. 사이버폭력의 유형은 상호위배되게 존재하지 않아 특정 행위가 다양한 사이버폭력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예를 들어 패드립의 경우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에 모두 해당하며 성적인 불쾌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사이버 성폭력에도 해당한다. 무단으로 특정 피해학생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을 사이버 공간에 유포하는 경우도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성폭력 모두에 해당한다. 한편, SNS 메시지, 문자 등을 이용해 특정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 이는 사이버 스토킹과 사이버 성폭력에 모두 해당한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이버폭력의 유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계속해서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의 빵 셔틀이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가 와이파이 셔틀, 기프티콘 셔틀, 게임 아이템 셔틀 등 다양한 양상으로 변한 것처럼 딥페이크, 메타버스 등의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사이버폭력의 유형은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은 사이버폭력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대응이 가능하게도 한다. 카카오톡 감옥에 대응하여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초대 거부기능이 도입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사이버폭력의 유형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진화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변하겠지만 이에 대하여 충분히 기술적 대응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사이버 명예훼손

1) 사례(박우진, 2020; 이우림, 2020 참고)

익명으로 질문을 올리고 답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ASK에서는 전학을 온 한 학생이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학생을 알아본 이전 학교의 학생은 과거 사실을 폭로하는 댓글을 달았고, 이 학생을 전혀 모르는 제3자를 포함한 여러 학생이 몰려와 무차별적인 욕설이 가해졌다. 결국 피해학생의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되었다. 이처럼 ASK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특정 학생에 대한 인신공격과 함께 가족 관계, 신상정보가 언급되는 명예훼손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11) 제시된 유형은 괄호에 제시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수정된 사례임

2) 교육 방법

-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한 글과 사진 등을 캡처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즉시 주변의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도한다.
- 직접적인 가해학생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해당 학생의 이름, ID 등 사이버 공간에서 공개된 개인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안내한다.
-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같은 수사기관이나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 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피해학생은 정보 삭제 또는 반론 게재를 요청할 권리를 가짐을 안내한다.
-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학생 관련 글 또는 사진을 목격한 학생들이 피해학생에 대한 낙인을 찍거나 다른 소문을 지어내어 확산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 사실에 근거하였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상대를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는 엄연한 명예훼손임을 학생들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게시물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확대재생산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의 부정적 영향이 심각함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킨다.
-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의 위험성이 매우 클 수 있음을 지도한다.
- 피해학생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담 교사나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피해학생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나. 사이버 모욕

1) 사례(김문희, 2021 참고)

최근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이 우스꽝스럽게 나오도록 화면을 캡처한 후 놀리거나 피해학생의 화면에 나오는 집안 모습을 보고 '가난하다'라며 조롱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친구 관계가 틀어진 학생들의 경우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특정 학생을 상대로 '저격글'을 올려 부정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사건도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또래들로 이루어진 단체 대화방에서는 지속적으로 특정 피해학생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사진을 합성한 후 유포하는 등의 폭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2) 교육 방법

- 사이버 모욕의 피해를 보는 경우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상대방의 문자나 채팅 내용 등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도록 지도한다.
- 직접적인 가해학생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해당 학생의 이름, ID 등 사이버 공간에서 공개된 개인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안내한다.
-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즉시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불특정 다수로부터 사이버 모욕의 피해를 보는 경우 상담교사나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사이버 모욕을 목격한 학생들은 피해학생에 대해 낙인을 찍거나 소문을 만들어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생산 및 유포하는 행위가 더욱 쉽고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사이버 공간에서 글 또는 사진 등을 게시할 때 자기의 게시물이 누군가에게 불쾌감이나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더욱 주의해야 함을 지도한다.
- 게시물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확대재생산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사이버 모욕의 부정적 영향이 심각함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킨다.
- 사이버 모욕을 방관하는 행동도 가해학생은 자신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도하고 목격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사이버 모욕의 위험성이 매우 클 수 있음을 지도한다.

다. 사이버 성폭력

1) 사례(김경희, 김수아, 김은경, 2020; 조기호, 2019 참고)

남학생들만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 혹은 지인의 사진과 영상을 올려 외모를 평가하고 비하하거나 사진을 악의적으로 재가공 후 유포하는 지인 능욕 사건이 장난처럼 벌어졌다. 이로 인해 특정 피해학생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까지 생겼다. 같은 학교 학생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학생은 이후 SNS를 통해 자신을 모르는 학생을 포함한 다수의 학생들에게 2차 가해 성격의 메시지를 받는 사건도 보고되었다. SNS를 통해 지속적인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글 또는 그림을 메

시지로 전송하는 사건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 교육 방법

- 사이버 성폭력 피해를 보는 경우 관련 글과 사진, 영상 등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즉시 주변의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도한다.
- 직접적인 가해학생이 명확한 경우 이름, ID 등 해당 학생에 대해 사이버 공간에서 공개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지도한다.
-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같은 수사기관이나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 상담 센터를 통해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 피해학생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정보 삭제 또는 반론 게재를 요청할 권리를 가짐을 안내한다.
- 사이버 성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의 보호가 우선임을 명심한다.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 혹은 학급에 있거나 사이버 성폭력이 오프라인 성폭력으로 이어진 경우 즉시 분리 및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 피해학생을 상담교사나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단체 대화방에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영상, 글을 전송하는 것은 엄연한 사이버 성폭력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킨다.
- 사이버 성폭력을 목격한 경우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발언할 수 있어야 함을 지도한다.
- 사이버 성폭력을 방관하는 행위 또한 가해학생에게는 폭력을 지지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음을 지도하고 목격한 즉시 신고할 것을 강조한다.
- 사이버 성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이 피해학생에 대해 낙인을 찍거나 피해학생을 비난하고 다른 소문을 만들어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라. 사이버 스토킹

1) 사례(허미담, 2018 참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된 사진을 보고 관심이 있다며 익명으로 연락을 시작한 A군은 피해학생에게 끊임없이 협박 및 위협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리고 피해학생의 학교와 나이, 이름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수시로 만남을 요구했다. 이러한 스토킹은 SNS 메시지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모든 게시물에 협박 및 위협의

성격의 댓글을 지속적으로 다는 형태로도 나타난다. 또한, SNS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사진이나 메시지를 피해학생에게 계속해서 전송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2) 교육 방법

- 피해학생이 본인 또는 가족의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 있으므로 사안이 심각한 경우 경찰 등에 연계하여 학생과 가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가해학생이 직접 만날 것을 요구할 경우 피해학생이 이에 절대 응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 사이버 스토킹 피해를 보는 경우 SNS 댓글 및 메시지, 문자 내용 등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자료를 확보 후 즉시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하여 상대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사이버 스토킹의 피해학생은 공포심과 불안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으므로 상담 교사나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한다.
-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과 낮은 죄책감 등으로 인해 관심에서 시작한 행동이 상대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킨다.
- 사이버 스토킹은 관심의 표현이 아닌 엄연한 폭력이며 처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지도한다.
- 사이버 스토킹은 특히 주변인의 태도가 가해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킨다.
- 학생들이 사이버 스토킹을 방관하지 않고 목격하는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마. 사이버 따돌림

1) 사례(조성미, 2020; 허미담, 2021; 백운, 2018 참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무리와 다툼 이후 특정 학생을 SNS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하여 욕설을 퍼붓는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카카오토크를 통해 얼굴도 모르는 학생들로부터 일방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멤버 놀이(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가장을 해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을 즐기는 놀이로 ‘멤놀’이라고도 함)를 하는 친구들 무리와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 공개적으로 특정 피해학생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욕설을 쏟아내고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여 조롱하는 등의 행위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2) 교육 방법

- 사이버 따돌림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복수를 계획하거나 가해학생을 직접 만나서 해결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 사이버 따돌림의 피해를 보는 경우 문자나 SNS 등 관련 내용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즉시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 최근 SNS에서는 가해학생 혹은 가해 집단의 괴롭힘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을 안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따돌림이 지속될 경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로그아웃한 후 24시간 동안 오프라인 상태를 유지할 것을 안내한다.
-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접속하지 않을 것을 강조한다.
- 사이버 따돌림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즉시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 학부모가 자녀의 피해 사실을 관련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한다.
- 사이버 공간에서는 탈억제 현상과 비대면성, 그리고 익명성으로 인해 따돌림이 더욱 쉽고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 사이버 따돌림을 방관하는 것 또한 가해학생에게는 지지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도하고 목격한 즉시 신고할 것을 강조한다.

바. 사이버 갈취

1) 사례(신영경, 2021; 장휘, 2018; 정유진, 2014; 정인혜, 2018 참고)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물건을 살 것처럼 접근한 가해학생 무리는 동급 피해학생의 학교, 집 주소 등 신상정보를 알아내었다. 그리고 직접 만나 피해학생의 물건을 빼앗고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빌미로 협박을 이어갔다. 특정 간식을 먹고 싶을 때마다 피해학생에게 기프트콘 선물을 하도록 하거나 주기적으로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여 바치도록 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와이파이가 없는 학교에서 특정 피해학생에게 핫스팟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심한 경우 무제한 요금제로까지 바꾸면서 와이파이 셔틀

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특정 피해학생의 데이터를 반 전체가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

2) 교육 방법

- 갈취의 내용이 담긴 문자나 SNS 메시지 등을 받았다면 해당 가해학생을 차단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가해학생의 ID, 이름 등 사이버 공간에서 공개된 개인정보를 최대한 알아둘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사이버 갈취의 피해를 보는 경우 관련 문자나 SNS 메시지를 캡처하고 갈취한 물품의 종류, 피해 금액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즉시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 사이버 갈취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오프라인에서의 신체 폭행은 없었는지 확인한다.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나 학급, 혹은 인근 학교에 있다면 분리 및 보호조치를 실시하여 오프라인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한다.
-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갈취가 더욱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사이버 갈취를 방관하는 것 또한 가해학생에게는 지지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도하고 목격한 즉시 신고할 것을 강조한다.
- 금액에 상관없이 상대방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는 엄연히 처벌이 가능한 범죄임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킨다.
- 사이버 공간에서는 비대면성으로 인해 갈취가 더욱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도한다.
- 오직 사이버 공간에서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갈취 또한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킨다.

사. 사이버 강요

1) 사례(정유진, 2014 참고)

가해학생으로부터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특정 수준까지 올려놓으라는 강요를 받은 후 이에 부응하지 못하면 오프라인에서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최근에는 특정 피해학생에게 SNS, 문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해를 강요한 후 이를 인터넷에 인증하도록 하는 ‘인증 놀이’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 교육 방법

- 사이버 공간에서 문자, SNS 메시지 등을 통해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요구받은 경우 우선 해당 가해학생을 차단하여 반응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상대가 강요를 지속할 경우 관련 문자, SNS 메시지 등을 캡처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즉시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을 강조한다.
- 가해학생의 ID, 이름 등 이미 알고 있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공개된 해당 가해학생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알아둘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자해와 같이 심각한 수준의 위협과 협박이 따르는 경우 사이버수사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사건 종결 후에도 강요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이버수사대에 재발 방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 혹은 학급, 인근 학교에 있다면 교사는 학교나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등 분리 및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사이버 강요로 인해 오프라인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이버 강요를 방관하는 것 또한 가해학생에게는 지지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도하고 목격한 즉시 교사에게 신고할 것을 강조한다.
- 상대가 원치 않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이를 거부의 메시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행동을 멈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3. 사이버폭력 학부모 지원방법

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역할

사이버폭력 예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이 두 당사자가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노력해야 한다(전인식, 2021). 방송통신위원회(2021)가 실시한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교사의 98.3%는 1순위가 학부모, 90.7%는 2순위가 교사라고 응답하였으며, 학부모의 88.3%는 1순위가 교사, 86.9%는 2순위가 학부모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 학부모의 서로에 대한 기대를 받

영한 것으로 보인다. 교사는 아래의 내용을 통해 학부모가 가정에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1) 학부모-학생 간 신뢰 관계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미국의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 Stop Bullying 웹사이트에 따르면, 학생들은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부모와 보호자에게 조언이나 도움을 요청한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15분이라도 학부모가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 자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모와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부모가 자녀의 일상과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소통하며 공감한다면 자녀가 위기 상황에서 부모를 신뢰하며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언제든지 부모가 자신을 지원하고 도와줄 것이라는 사실을 자녀가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사이버폭력 예방과 조기 발견 및 빠른 대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부모 상담 시 학부모와 학생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학생이 학부모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일상적 대화의 중요성과 일상적 대화가 사이버폭력 예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안내할 수 있다.

2) 학부모의 모범적인 온라인 사용태도가 미치는 영향 교육

학생의 주 양육자인 학부모의 평상시 모습은 학생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학생들은 별 관심이 없는 듯 보여도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온라인에서의 언행 및 소통 방법, 또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배운다. 만약 부모가 온종일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자신은 무분별한 언어표현을 사용하면서 자녀에게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강압적으로 느껴질 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어렵다. 따라서 학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과 기타 정보통신기기를 바르게 사용하고, 온라인에서 바른 언어를 사용하여 올바르게 소통하며 친절과 존중으로 타인을 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교육부, 에듀넷 티-클리어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학부모 간담회 또는 학부모 교육 세미나를 통해 학부모의 모범적인 정보통신기기 사용이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사이버폭력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안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학부모가 자신의 스마트폰 및

PC 사용 시간과 태도를 점검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중독 또는 온라인 예절에 대한 자기 보고식 체크표를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

3) 가족이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 제시

교사는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안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족용 온라인 사용 규칙 만들기, 온 가족 취미활동 하기, 사이버폭력에 대한 가족 토론하기 등을 안내할 수 있다. 각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가족용 온라인 사용 규칙 만들기

온 가족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온라인 기기를 언제,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논의하여 학생이 스스로 적절한 규칙을 세우도록 도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보호하기,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하지 않기 등과 관련해 상세한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장시간 온라인에 노출되거나 스마트폰 또는 PC에 중독되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 함께 논의하여 지키기로 약속한 규칙을 통해 학생이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통신기기 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나) 온 가족 취미활동 하기

온 가족 취미활동 하기는 학생이 좋아하는 활동에 대해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거나 학생의 관심사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각자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SNS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흥미 있는 대안 활동을 제시하고 함께함으로써 스마트폰 사용의 절대적인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통해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여 학생들이 가정 안에서 안정감과 친밀감을 느끼도록 돕는다.

다) 사이버폭력에 대해 가족토론하기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해 교육하는 것만으로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학부모에게 제공한 교육자료 및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여 학부모와 자녀가 가정에서 함께 정기적으로 사이버폭력에 관해 이야기 나누며 토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 사이버폭력

의 개념과 유형, 학생 또는 학부모 본인이 이미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본 사이버폭력 사례, 사이버폭력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토론하여 가족이 함께 사이버폭력에 대해 인식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며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다.

교사는 위의 3가지 활동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구상하여 캠페인을 시행하거나 교과교육과의 적절한 연계를 통해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가정의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다.

4) 학생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관리 방법 안내

사이버폭력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항상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집에 설치된 PC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교사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윤현주(2021)에 따르면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와 개입 여부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 실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사는 학부모에게 다음 장에서 제시한 ‘사이버안심존’, ‘스마트안심드림’, ‘푸른코끼리’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안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불법 및 유해 매체나 사이트를 차단하여 온라인에서의 여러 문제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교사는 학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

5) 사이버폭력 예방 관련 교육자료 제공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등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자료와 동영상, 학부모 소식지, 카드뉴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V-1], [그림 V-2]가 관련 자료의 예시이다. 이와 같은 자료는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특징부터 대표적인 유형, 예방 및 대처방법, 도움기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에듀넷 티-클리어¹²⁾의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서비스에서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한 정책, 수업 사례, 연수자료, 기타

관련 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의 가장 좋은 점은 여러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학부모가 사이버폭력 예방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는 이러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학부모에게 직접 교육을 할 수 있고, 관련 사이트를 안내하거나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학부모가 사이버폭력에 대해 인식하도록 도울 수도 있다. 특히, 자녀의 사이버폭력 피해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대화를 통해 자녀의 상태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폭력, 이렇게 예방해요. +

- | | |
|----------------------------------------------------------------------------------------------|-----------------------------------------------------------------------------------|
| <p>01
평소에 대화를 통해 바른 언어습관을 기르도록 하고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봅니다.</p> | <p>02
음란물과 폭력물 등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p> |
| <p>03
사이버상의 상대방을 현실세계처럼 존중하도록 알려줍니다.</p> | <p>04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 사용법을 익히고, 자녀들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합니다.</p> |
| <p>05
자녀와 사이버폭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사이버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과 피해 시 도움 요청 기관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p> | <p>06
자녀가 사이버상에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도록 (혹은 알지 못하도록) 관리합니다.</p> |
| <p>07
자녀가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말고 어른과 먼저 상의할 것을 강조합니다.</p> | <p>08
사이버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자녀가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p> |

사이버폭력, 이럴 때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 ✓ 자녀가 갑자기 계정을 탈퇴하거나 아이디를 삭제한다.
- ✓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녀의 이야기나 소문을 알고 있다.
- ✓ 컴퓨터 혹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
- ✓ 불안한 기색으로 스마트 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 음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스마트 기기의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 ✓ SNS 상태 글귀나 사진의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
- ✓ 부모가 자신의 스마트 기기를 보거나 만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 온라인에 접속한 후 또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괴로워 보인다.
- ✓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에게 자녀 혼자만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당한다.
- ✓ 사이버상에서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호칭되거나 아무나 침담이 많이 올라온다.



[그림 V-1] 2021 학부모용 사이버폭력 예방·대응가이드

12) https://cyberethic.edunet.net/cyberethic/main/mainForm.do?menu_id=120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 내 아이를 학교폭력으로부터 지키는 부모의 지혜 -

2020. 6월 Vol. 1

04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한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이해하기

코로나 19로 인한 거리두기로 자녀들의 활동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톡감옥'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니까?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부모님에게는 보이지 않는 폭력,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는 신종 사이버폭력 유형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톡감옥	떼카	카톡방폭	와이파이서블	기프티콘서블	개인정보유출

<p>사이버폭력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은 자녀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특히 피해자는 우울이나 불안 등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의 피해 징후를 파악하고 초기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p>	<p>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자녀의 징후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안해하며 핸드폰이나 SNS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함 단체 대화방에서 집단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당함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핸드폰의 소액결제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옴 부모가 자녀의 핸드폰을 만지거나 문자 또는 메신저의 내용을 확인하려고 할 때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함 자녀가 SNS계정을 탈퇴하거나 아이디가 없음
-----------------------------------------------------------------------------------------------------------------------------------------------------------------------------------------------	------------------------------------------------------------------------------------------------------------------------------------------------------------------------------------------------------------------------------------------------------------------------------------------------------------------------------------

<p>『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¹⁰⁾에 따르면, 청소년의 가해 행동 이유 중에서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가 45%로 많은 경우 가해 행동 전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님의 세심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p>	<p>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¹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를 존중하며 의사소통하는 방법 지도하기 자신이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치기 사이버 공간에 모욕적인 글꼴 게시하지 않도록 지도하기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의사소통 내용은 영구히 저장되어 인성에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니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자녀에게 알려주고 주의시키기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지도하기 개인정보가 사이버 공간에 유출되면 그 전파성으로 인해 모욕, 명예훼손, 범죄 등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개인정보를 SNS나 대화방에 게시하지 않도록 지도하기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 갖기 불분명한 출처의 사이트 혹은 메신저에 접속하지 않도록 지도하기
-----------------------------------------------------------------------------------------------------------------------------------------------------------------------------------------------	---------------------------------------------------------------------------------------------------------------------------------------------------------------------------------------------------------------------------------------------------------------------------------------------------------------------------------------------------------------------------------------------------------------------------------------------------------------------------------------------------

자녀가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면, 부모님께서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⁹⁾.

<p>적극적 초기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에게 가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가해자에게 보복하지 않도록 교육하기 ▶ 자녀의 사이버 관계망에 연결되어 있는 가해자를 차단하기 	<p>증거자료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하거나 욕설하는 메시지 또는 영상 등을 삭제하지 말고 증거자료로 확보하기 	<p>도움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경우, 학교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117로 신고하기
-------------------------------------------------------------------------------------------------------------------------------------------------------------	----------------------------------------------------------------------------------------------------------------------	----------------------------------------------------------------------------------------------------------------------

[그림 V-2]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20년 6월호)

6) 학부모 인식 개선 지원 및 가정 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필요성 강조

윤현주(2021)는 많은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사이버폭력에 연루되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대부분 우왕좌왕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 노력과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전인식(2021)은 교사와 학부모가 사이버폭력에 대해 서로에게 협력과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교사가 학교에서 기본적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학부모가 평소 가정에서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자녀의 온라인 행태를 관찰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처럼 학부모는 사이버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례와 다양한 교육자료를 통해 학습하고, 가정에서 자녀와 꾸준히 소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문화를 이해하여 그에 맞는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이러한 필요성을 학부모에게 안내하며 학부모의 인식 개선을 돕고, 도움을 요청할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7) 학부모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자녀교육 방법 안내

디지털 매체와 분리될 수 없는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중요한 역량이 되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하여, 미디어 정보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로 책임감 있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교육부, 2021). 이는 크게 활용 및 접근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소통 능력, 표현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부는 카드뉴스와 ‘호모 미디어쿠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EBS는 ‘미래교육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한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에듀넷 티-클리어는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및 연구 자료와 교육정책자료, 교사의 시연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윤현주(2021)는 특히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한 교육자료를 먼저 학습하고 재구성하여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학부모가 자녀를 직접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을 안내한다. 교사는 이처럼 쉽고 재미있게 구성된 자료를 학부모가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가정에서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나. 온라인에서 자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애플리케이션

가정에서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과 유해 매체물,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사이버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교사는 이러한 앱과 소프트웨어를 학부모에게 안내함으로써 학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지도하여 사이버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Toda와 Oh(2021)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앱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접근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앱을 활용하면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의 온라인 사용 실태, 사이버폭력 평가 결과 등의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학생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사이버폭력에 대해 함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1) 국내 이동통신사 3사에서 제공하는 앱(부가서비스)

국내의 대표적인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각각 아동 및 청소년을 유해 매체와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앱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이동통신사에 가입하는 청소년들에게 유해 매체 차단 앱의 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법과 관련이 있다. 아래의 <표 V-1>과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9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며, 차단 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법정 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제 유해 매체 차단 앱의 설치율은 현저히 낮고 안드로이드를 제외한 일부 운영체제에서는 설치 실태 파악이 어려워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전완수, 2021).

<표 V-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중 청소년유해매체물과 관련한 법령

법령	내용
제32조의7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	내용
제37조의9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p>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이라 한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p> <p>제1항에 따라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 체결 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나.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2.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

가) T청소년 안심팩 (SKT)

통신 3사중 가장 많은 유해 차단 앱 다운로드 건수를 가지고 있는 SK텔레콤은 ‘T청소년 안심팩’과 ‘T청소년 안심서비스’라는 2가지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Tworld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중독 상담 및 사이버폭력예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앞서 소개한 앱인 사이버안심존 설치와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등을 안내하고 있다.

T청소년 안심팩은 청소년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고 유해매체를 차단하며 위치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당 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용고객 중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태블릿 PC는 가입이 불가하다. 또한, 이용 시에는 앱을 자녀의 휴대폰에 먼저 설치한 다음 부모의 휴대폰에 설치해야 한다. T청소년 안심팩의 주요 기능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V-2> T청소년 안심팩의 주요 기능

주요 기능	내용
실시간 자녀위치 확인	자녀 한 명 당 법정대리인 보호자 한 명을 등록하여 학교나 학원 등 자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보호자는 최대 5명의 자녀를 등록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심 문자 자동전달	자녀가 학교폭력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을 경우 그 내용이 T청소년안심팩 부모용 앱을 통해 부모님께 자동으로 전달된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 조절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현황 조회 및 시간제어가 가능하며 유해콘텐츠 차단 을 포함하여 다양한 자녀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한편, T청소년 안심서비스는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내용등급 Level 3 또는 4정도로 판단한 유해 음란정보(웹사이트, 앱, 동영상)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직접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T청소년 안심서비스는 청소년이 신규가입/번호변경/기기변경/유심기변 시 자동 가입되며, 스마트폰에 T청소년 유해차단 앱을 설치하여 활용 가능하다. 본 서비스는 자녀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시에 해지가 가능하다.

나) 안심박사 (KT)

KT에서는 기존에 제공하던 무료 서비스인 KT 자녀폰 안심프리, 유료 서비스인 자녀안심플러스와 KT 자녀폰 안심 서비스를 통합하여 유료 서비스인 KT 안심박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표 V-3>과 같이 자녀 위치 알림, 스마트폰 사용 습관 관리, 유해 사이트 및 유해 앱 차단이다. 보호 대상자인 자녀가 가입한 후 부모와 자녀가 앱을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현재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만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며, 태블릿 PC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표 V-3> KT 안심박스의 주요 기능

주요 기능	내용
타임라인	자녀의 현재 상태와 위치, 스마트폰 관리 이력을 시간 단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위치 확인	자녀의 실시간 이동 경로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주기적인 위치 알림을 제공한다.
사용 습관 관리	템플릿을 통해 보호적용 시간을 확인하고 사용가능 앱과 이용시간 등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열공모드를 설정하여 전화, SMS, 카메라, 갤러리, 전화 번호부만 사용가능하도록 관리할 수 있다.
유해차단 및 통계	유해 앱이나 유해 사이트를 자동으로 차단한다. 또한, 자녀 보호보고서를 통해 휴대폰 사용시간에 대한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다) 자녀폰 지킴이 (LGU+)

LG유플러스는 유해 정보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길러주는 자녀폰 지킴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녀폰 지킴이는 LG유플러스에 가입한 안드로이드폰에서 U+자녀폰지킴이 앱을 설치 및 가입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의 기능은 무료와 유료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무료의 경우 자녀의 휴대폰에만 설치

할 수 있고, 유료의 경우 자녀와 보호자 휴대폰 모두 설치할 수 있다. 자녀폰 지킴이의 주요 기능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V-4> 자녀폰 지킴이의 주요 기능

주요 기능	내용
유해 정보 접근 차단(무료)	제휴사의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유해사이트 또는 유해 앱을 차단한다.
앱 사용 이력 확인(무료)	앱 별로 사용한 순위와 시간을 어제, 이번 주, 이번 달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녀 앱 사용관리(유료)	일일 시간제를 통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하고 현재까지 사용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앱 차단 시간을 설정하여 앱 별로 사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완전 차단 기능을 통해 통화 기능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할 수 있다.
자녀 보호(유료)	SOS(긴급 호출) 기능을 통해 자녀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미리 저장해준 보호자에게 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 자녀의 스마트폰에 스팸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가 수신된 경우 보호자에게 바로 안내한다. 요일과 시간 별로 주기를 설정해두면 자녀의 현재 위치 정보를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전송한다. 안심 보행 기능을 통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할 수 있다.
자녀 위치 정보(유료)	자녀의 현재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녀 보호 메뉴의 [자동 위치 알림] 이력을 통해 설정해둔 주기에 따라 자녀의 위치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폰 관리(유료)	자녀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잠금 상태로 설정할 수 있으며, 휴대폰의 위치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녀의 스마트폰 배터리 잔량을 알려주며 자녀의 스마트폰 와이파이 또는 블루투스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다.
자녀 사이트관리(유료)	자녀의 스마트폰에서 차단하고 싶은 웹사이트 주소를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스마트폰에서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했는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2) 사이버안심존

사이버안심존은 학교와 가정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예방 및 유해 정보 차단 앱(프로그램)이다. 가정에서 사이버안심존 앱을 활용하면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행태를 점검하고 이용 시간을 지도 및 관리할 수 있다. 교사는 PC에서 스마트폰 중독상담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학생의 스마트폰 이용 행태에 대한

분석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기초자료로 참고하여 학생과 1:1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학생의 상황에 따라 학부모에게 지도관리를 요청하거나 외부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상담 치료를 연계할 수 있다. 설치 방법이나 이용 안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안심존 홈페이지¹³⁾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안심존(앱)의 주요 기능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V-5> 사이버안심존(앱)의 주요 기능

주요 기능	내 용
이용행태 분석	부모님과 자녀의 스마트폰에서 자녀가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이용한 평균 시간과 주로 이용한 시간대, 주로 이용한 정보의 카테고리 등에 대한 분석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불법·유해 차단	자녀가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불법·유해 앱을 실행하거나 인터넷사이트를 접속할시 차단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에서 고시한 불법·청소년유해매체물과 MOIBA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afenet 등급 기준에 따라 자체 수집한 불법·유해 정보 등을 차단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관련한 앱이나 인터넷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한다.
자동 업데이트	프로그램 및 불법·유해 DB의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DB 유지
앱 삭제 방지	사이버안심존 앱은 자녀가 부모님의 확인 없이 임의로 삭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님께서 삭제를 원하시는 경우에만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후 삭제 가능 방법을 안내한다.
스몸비 ¹⁴⁾ 예방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 중 스마트폰 잠금설정이 가능하다.
몸캠피싱 방지	자녀가 채팅앱을 통한 몸캠 피싱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채팅앱의 카메라와 파일 다운로드 기능을 차단한다.
사용시간 설정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함으로써 그 시간 내에서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크웹 차단	자녀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다크웹 접속 프로그램을 통해 다크웹에 접속을 시도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차단한다.

13) <https://ss.moiba.or.kr/main/sub1.do?ms=1&cate=3>

14) 스톱비란, 스마트폰과 줌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몰입하여 주변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사고 발생률과 위험도가 높다(방송통신위원회, 2017a).

3) 스마트안심드림

스마트안심드림(앱)은 자녀의 스마트폰으로 욕설, 따돌림, 협박 등이 의심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수신되거나 자녀가 인터넷에 학교폭력, 자살, 가출 등의 단어를 검색했을 때, 그 내용을 감지하여 부모에게 알린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의 상태를 빨리 파악하고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 설치 방법이나 이용 안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안심드림 홈페이지¹⁵⁾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V-6> 스마트안심드림(앱)의 주요 기능

주요 기능	내용
불법·유해 차단	자녀의 스마트폰 문자와 카카오톡 등으로 수신하는 메시지 중 욕설, 폭행, 협박, 약취, 모욕, 따돌림 등 사이버폭력이 의심되는 내용이 감지될 경우 즉시 부모님의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내용은 부모님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스마트안심드림 앱 뿐 아니라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용행태 분석	자녀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학교폭력 관련문제, 가정·성정·이상·교우·외모문제, 일탈, 비행, 자살 및 범죄 등과 관련한 단어 등을 검색한 경우 자녀의 고민 단어를 감지하여 부모님의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 관리	부모님 또는 자녀가 학교폭력과 관련한 문제로 상담을 원할 경우 스마트안심드림 앱 내에 있는 상담·신고 메뉴를 통해 117 전화나 안전 Dream앱 등을 이용한 상담이 가능하며 이메일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자동 업데이트	사이버언어폭력 및 고민단어에 대해 최신의 데이터베이스(DB)를 유지한다.
앱 삭제 방지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스마트안심드림 앱은 자녀가 임의로 삭제가 불가능하다.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부모님이 자녀의 앱 삭제를 허용할 경우에만 삭제가 가능하다.

4) 푸른 코끼리

푸른 코끼리(앱)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시민사회에 알리고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청예단)에서 개발한 것이다. 사이버폭력에 관한 상담부터 예방교육과 캠페인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앱뿐만 아니라 PC로 홈페이지¹⁶⁾에 접속해 활용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체제가 아닌 ios 체제도 지원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 종류와 상관없

15) <https://ss.moiba.or.kr/main/sub2.do?ms=1&cate=1>

16) <https://bepuco.or.kr>

이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담임교사가 푸른 꼬끼리(앱)을 통해 학생의 사이버폭력 검사에 대한 예방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과 또래 관계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다. 푸른 꼬끼리(앱)의 주요 기능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V-7> 푸른 꼬끼리(앱)의 주요 기능

주요 기능	내용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일회성 교육이 되지 않도록 부모와 함께 반복해서 수강하도록 돕는다. 학교로 찾아가는 예방교육(현장교육) 전에 사이버폭력의 이해와 유형, 대처방법 등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배울 수 있도록 사전교육으로 쉽고 재미있게 구성하였다.
사이버폭력 도움상담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당했을 때 1:1 카톡상담, 전화상담, 게시판상담 등을 통해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이버폭력 체험/위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친구는 어떤 감정일지 피해학생의 목소리를 들어보거나 실제 사례가 재구성된 영상을 통해 체험해보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사이버폭력에 노출되지는 않았는지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제공한다.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 만들기	푸른 꼬끼리 대국민캠페인 등 다양한 캠페인이나 동아리를 통해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사이버세상 만들기 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자신이 상상하는 사이버폭력 예방정책과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다.
푸른 꼬끼리 키우기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아기푸코(푸른 꼬끼리)를 안전하게 키우는 게임을 제공하고 있다.

5)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 i-Net’

그린 i-Net은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앱이 아닌, PC에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이트이다. 총 7가지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며, 각각의 특징과 기능을 비교하여 필요에 따라 다운받을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제공하고 있는 7가지 중 한 가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윈도우 체제만 지원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살펴보면, 모든 소프트웨어가 유해사이트 및 동영상 차단, 특정프로그램과 파일공유프로그램(P2P) 차단, PC 사용 시간 제한, 유해차단 내역 및 사용시간 조회 등이 있다. 또한, 종류에 따라 게임사이트 차단, 인터넷 사용 시간 제한, 다자녀 모두, 학습 기능, 사용화면 조회 등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표 V-8> 그린 i-Net에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종류 및 특징

소프트웨어 종류	제품 특징
사이버가디언	음란 사이트 및 검색어, 동영상 실시간 차단, 사용자 지정 사이트 및 검색어를 등록하여 차단, 4가지 사용모드를 이용한 올바른 PC 사용습관 제공, 휴대폰을 이용한 간편한 원격제어 기능, 메신저/P2P 프로그램 완벽 차단, 모든 기능 GS(Good Software)인증 1등급 취득
PC보안케어	국내시장 점유율 1위, 유해사이트/악성바이러스 사이트 차단Database 제공, 청소년보호기능으로 PC/인터넷/게임/메신저/프로그램 등 편리한 관리화면 제공
i안심	인터넷 음란물 종합차단 (내용등급사이트+음란동영상차단), 게임/P2P등의 프로그램 차단 정책 설정, 시간대별/요일별 PC사용시간관리, 인터넷 청정지수(안심/관심요망/위험 상태) 제공, 각 기능별 통계 및 기간별 SMS&이메일 통계
맘아이그린	게임 및 PC 사용시간 제한, 유해동영상 및 유해사이트 차단, PC 사용화면 스크린샷 조회, 허용사이트 외 모든 사이트 차단, 윈도우7 64bit 운영체제 지원, 멀티 브라우저 지원(IE/크롬/사파리등)
아이눈	청소년 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 유해 동영상 차단 / 검색 및 삭제, 쉬운 사용시간 관리를 통한 인터넷 중독방지, 사용화면 캡처 기능을 통한 PC 사용 관리, 사용자 설정 프로그램 지정 차단 기능, 20년 노하우의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
엑스키퍼 LITE	강력한 컴퓨터 사용시간 관리 기능, 유해사이트 및 게임사이트 실시간 차단, 유해 동영상 및 유해유통 프로그램 검색 및 삭제, 메신저/P2P 프로그램 차단, 휴대폰으로 컴퓨터 사용 시간 제어 가능, 강력한 프로그램 자기보호 기능(무력화 방지)
아이보호나라	국내최초 유일한 광고차단 기능, GS인증(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획득 음란성 성인광고 원천차단, 강력한 유해사이트 실시간 차단, 유해동영상 자동 차단, P2P프로그램차단 및 메신저 차단

다. 사이버폭력 피해, 가해학생 학부모 지원방법

1)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 지원방법

가)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학부모의 심리적 고통 이해 및 공감

학부모에게 자신의 자녀가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은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학부모는 불안함과 걱정으로 인해 피해학생 자녀를 체근하거나 학교와 담임교사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화를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교사는 학부모의 심리적

고통에 충분히 공감하며 학부모의 입장을 이해하는 표현을 통해 학부모를 안심시켜야 한다. 또한, 대화를 통해 학부모의 불안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학부모가 보다 침착하게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학부모는 사이버폭력의 사안이 처리된 후에도 자녀의 마음이 회복되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학급 친구들의 시선에 대한 염려, 사이버폭력 재발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감정들이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교사는 자녀의 학교생활을 학부모와 공유하고, 학교에서 지원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신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나) 피해학생 자녀와의 대화 및 상담방법 안내

피해학생의 경우 신체적 안전과 더불어 무엇보다 정서적인 지지를 통한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가 피해학생을 정서적으로 돕고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는 피해학생 자녀와 학부모가 대화할 때 학부모가 어떠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지 안내할 수 있다. 먼저, 학부모는 자녀가 안심할 수 있도록 지지의 표현을 사용하고 흥분하거나 자녀에게 선부른 표현과 비난 등을 하지 않고 침착해야 한다. 또한, 자녀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피해학생 자녀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차분한 태도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한다. 자녀가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 가치 판단하기보다는 자녀를 위로해 주고 충분히 공감해주며 솔직하게 말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해야 한다. 그런 다음 부모가 사이버폭력 문제의 해결을 주도하기보다는 자녀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해야 한다. 사건과 관련한 정보탐색은 학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뢰를 형성한 다음 진행해야 하며 이때, 정보탐색은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진행해야 한다(김승혜, 김영미, 최희영, 2021). 한편, 교사는 학부모가 피해를 입은 자녀가 그 누구보다 가장 힘들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사이버폭력 피해가 발생한 후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함을 안내해야 한다.

다) 피해학생 자녀의 보복 방지 및 사이버폭력 증거 확보 안내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은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을 직접 만나거나 온라인상에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는 자녀가 보복성으로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며 객관적으로 사이버폭력 사안을 파악하고 피해 사실

을 확인한 즉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등 초기 대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미리 확보해 놓은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부모는 피해학생 자녀와 함께 사이버폭력 피해상황에 대해 관련 내용을 캡처하고 메시지를 저장하며 필요시 녹음 및 녹화하여 날짜 및 시간과 함께 세부적인 정보를 기록해두어야 한다. 가해학생에게 캡처한 사실을 알린 후에도 폭력이 지속된 경우 이 모든 정황에 대해 확보한 증거는 더욱 효력이 크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면 가해학생에게 캡처 사실을 알리고 이후 지속되는 폭력에 대한 증거자료를 저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교사는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방법 등을 지도 및 안내함으로써 학부모가 피해학생 자녀와 함께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도울 수 있다.

라) 피해학생 자녀의 스마트폰 압수 및 사용 통제로 인한 부정적 영향 안내

피해학생 자녀의 학부모는 당장 자녀의 스마트폰을 압수하거나 인터넷과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통제함으로써 학생의 온라인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대처는 자녀들이 스마트폰과 온라인 사용을 제한받을 것을 걱정하여 사이버폭력 상황을 숨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듯 상황을 단순히 통제하는 조치는 사이버폭력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부모에게 자녀의 스마트폰을 일방적으로 압수하거나 기타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등의 조치보다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화를 통해 피해학생 자녀의 마음을 먼저 공감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 사이버폭력이 의심되는 문자 수신 여부, 자녀의 현재 위치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버 안심존’, ‘스마트 안심드림’ 등과 같은 스마트폰 앱과 서비스를 학부모에게 안내할 수 있다.

마) 학교에 도움요청 안내

교사는 피해학생의 학부모에게 학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즉시 학교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원하는 조치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학부모와 피해학생을 도울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은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학부모가 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인 절차와 내용을 안내하고 공유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가 교사의 조언이나 학교의 대처과정에 신뢰를 두고 임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마음에 공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안내하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사이버폭력이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도 영향을 주며 상호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내에서 자녀의 생활에 대해 염려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학생을 보호하고 학부모와 이에 대해 소통할 필요가 있다.

바)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 안내

교사와 학부모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자녀의 상처가 회복되기 어렵거나 진단 및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사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기관을 안내할 수 있다. 관련 기관은 주요 기능에 따라 크게 사이버폭력 신고 담당 기관, 사이버폭력 관련 정보 제공 기관, 사이버폭력 관련 상담 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사이버폭력 신고는 117을 통해 아동□여성□장년 경찰지원센터인 안전드림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상담사와 연결하여 전문적인 상담 받기를 원하는 경우 Wee센터, 1388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해맑음 센터, 우리아이 행복프로젝트,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푸른나무재단, 에듀넷(도란도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 등(2019)에 따르면 피해학생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교육이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 변화에 큰 도움이 된다. 교사는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다양한 전문 기관과 신고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가 빠르게 대처하고 자녀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2)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 지원방법

가)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학부모의 복잡한 마음 이해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사이버폭력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이버폭력을 가해한 자녀에 대한 원망,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죄책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으나 폭력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한 상실감과 분노, 자신의 자녀는 잘못이 없다는 억울함, 가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자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불안 등이 있다(김승혜 외, 2021). 교사는 가해학생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하되, 학부모로서 느끼는 여

러 가지 불안과 걱정, 분노 등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며 그 마음을 이해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부모가 자녀의 가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자녀 또한 반성하지 않고 가해 사실을 왜곡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갈등이 깊어져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사는 가해학생 학부모와 대화를 통해 복잡한 심정에 공감함으로써 학부모가 문제를 인정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학부모가 직접 역할모델이 되어 가해학생 자녀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감 있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을 안내해야 한다.

나) 가해학생 자녀와의 소통방법 안내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자녀의 학부모는 가장 먼저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꾸짖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대화하며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 행동의 동기를 밝히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친구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가해한 것인지, 학부모와의 갈등이나 학업 스트레스를 사이버폭력으로 표출한 것인지, 또는 특정 학생을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가해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김승혜 외, 2021).

김승혜 등(2021)에 따르면 가해학생의 가해 이유에 따라 그들이 겪는 혼란이 다를 수 있고, 가해학생이 이를 인정해야 솔직한 대화가 가능하다. 또한, 가해학생 자녀와 학부모가 대화할 때 학부모는 적극적 경청과 감정의 반영을 통해 자녀의 감정이 가해 행동의 처벌에 대한 불안인지, 학교에서 자신에 대한 낙인이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인지, 학부모와 교사가 자신의 가해 행동으로 인해 느낄 실망감에 대한 죄책감인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인지, 혹은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는 우쭐함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탐색해야 한다.

교사는 학부모에게 적극적 경청과 감정의 반영에 대해 설명하며 자녀의 표현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고 자녀의 상태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안내할 수 있다. 특히, 가해학생 자녀와 대화할 때 학부모가 화를 내며 야단을 치거나, 자녀에게 문제의 원인이라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하거나, 가해 사실과 사이버폭력 발생상황을 축소 또는 과장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자녀를 무시하거나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고, 말할 준비가 되지 않은 자녀를 추궁하는 행동

을 삼가는 것이 좋다는 것 또한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교사는 가해학생 자녀의 학부모가 적극적이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며 자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승혜 외, 2021).

다)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의 심각성 및 영향에 대한 토론 및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 지도

학부모와 가해학생 자녀가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의 심각성과 영향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피해학생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 앞으로 사이버폭력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 교사는 학부모와 가해학생 자녀가 토론할 때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사례 또는 뉴스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가해학생이 보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떠올리며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사이버 명예훼손 혹은 모욕의 경우 가해학생 자녀는 오프라인에서는 자신이 소중한 여기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않을 말을 온라인에서는 사용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만약 가해학생이 소중한 사람에게 동일한 표현을 하거나, 혹은 그 표현을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 어떠한 감정일지에 대해 자녀와 함께 토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해학생 자녀의 학부모는 피해학생의 고통에 대해 생각해 보며 자녀가 자신의 가해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교사는 학부모가 가해학생 자녀와 함께 토론할 때 사이버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자녀가 인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자녀의 가해 행동을 예로 들어 토론함으로써 사이버폭력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녀가 자신의 반성하여 사이버폭력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가해학생 자녀의 온라인 행동 주시 및 휴대폰 관리기능 설정 방법 안내

학부모가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즉시 가해 행동을 멈춰 피해자 발생을 줄이고 더욱 심각해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는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에 따라 온라인 활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는 이를 위해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온라인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하며 자녀의 관심 검색어를 공유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자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앱을 안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부모는 자신이 원하는 기능에 따라 자녀의 온라인 사용 실태와 자녀의 SNS 계정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교사는 앱을 설치할 때 가해학생 자녀가 휴

대폰 관리기능 설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그럼에도 학부모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보호의 목적임을 설명하고 자녀의 동의하에 설치 및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은 접근이 쉽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철저한 부모의 통제나 가해 행동 재발 예방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교사는 학부모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특별한 행동이 발생할 시 대화를 나누며 교육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마) 학교에 도움요청 안내

피해학생 자녀의 학부모와 마찬가지로 가해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또한 학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학부모는 가해학생 자녀가 이후 학교생활에서 위축되지는 않을지, 생활기록부 기록 등으로 진학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 등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학교와 교사는 가해학생 학부모의 불안을 충분히 공감해주며 앞으로 진행될 절차와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한, 가해학생의 부모는 학교가 자녀에 대한 편견을 갖거나 선생님 혹은 친구들에게 낙인이 형성될까 우려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사는 부모의 우려를 이해해주어야 한다. 또한, 해당 학생이 가해 행동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해당 학생이 또 다른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 교사는 가해학생 학부모가 요청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함께 검토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다. 이처럼 학부모와 학교 및 교사가 협력하여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육할 때 사이버폭력의 재발 확률을 보다 낮출 수 있다.

바) 전문적인 상담 및 자문 제공 기관 안내

가해학생의 사이버폭력 동기가 단순한 문제가 아닌 분노나 인터넷 중독 등 더 큰 문제에 기인할 수 있다. 이처럼 사안이 심각한 경우 가정과 학교의 협력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문제를 탐색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때, 교사는 학부모가 전문적인 상담 및 자문할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폭력이 범죄 수준으로 발생하여 학부모와 가해학생이 법적인 조치를 밟게 되는 경우, 학부모는 이러한 법적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참고하여 학부모에게 경찰청과 교육청 등에서 안내하는 사이버 범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을 안내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육과 상담에 학부모와 가해학생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자녀뿐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효과적임을 안내하는 것이 좋다.

VI. 사이버폭력 상담역량 강화

1.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보호방법

가. 피해학생의 심리적 회복

1) 불안 감소

피해학생의 대표적인 심리적 특성은 불안 증가이다. 불안(anxiety)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정상적인 감정적 반응으로 외현적 행동 반응(예: 목소리 떨기), 신체적 반응(예: 심장 박동 변화), 주관적 반응(예: 무섭다는 생각) 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어떤 목적이나 대상이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은 위협적인 상황이나 이를 적절히 대응해 나가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박선희, 박현주, 2009). 불안은 대부분의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정서적 반응이지만 학교폭력과 같은 사건의 피해 경험은 피해학생의 불안을 높이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괴롭힘을 경험한 집단은 일반 집단보다 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선미, 유성경, 2013).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학생 또한 사회적 불안감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Juvonen & Gross, 2008), 특히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불안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omşa, Jenaro, Campbell & Neacşu, 2013).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한 불안 등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려는 방편으로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을 하여 사이버폭력 가·피해 중복경험을 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접근이 중요하다.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에 초점을 두어 상담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사이버 공간의 어떤 특정 상황에서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는지 탐색하도록 있도록 돕는다.
(활동) 사이버 상에서 주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을 인식하고 불안할 때 어떤 신체적·생리적 반응을 경험하는지 이야기하기.

- 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이완훈련을 익히도록 돕는다.
(활동) 불안을 느낄 때 이완하기 위해 복식호흡, 점진적 근육 이완, 평화로운 장면 상상하기 등 연습하기.
- 사이버 공간에서 불안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생각을 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돕는다.
(활동) 사이버 공간의 특정 상황에서 느끼는 부정적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대안적 사고를 카드 형식으로 만들어 긍정적 사고 증진시키기.

2) 우울 감소

우울 역시 피해학생의 대표적인 심리적 특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울을 매개로 자살사고와 자살시도가 증가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울(depression)이란 기분장애의 한 형태로 슬픈 감정이나 침울한 기분이 특징적이며 인지적 증상(예: 자기 비난과 자기비하), 정서적 증상(예: 과민, 외로움), 신체적 증상(예: 수면장애)을 동반한다. 우울은 지각, 판단, 기억, 인지, 판단, 사고, 태도에 있어 대인관계나 광범위한 일상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하는 부정적 정서로 열등감, 무기력감, 무가치감, 슬픔 및 상실감이 나타난다(김재엽, 남석인, 최선아, 2009). 정신분석학에서 우울은 분노가 무의식적으로 자기에게 향해진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죄책감 등으로 인해 분노의 감정이 외부로 발산되지 못하고 결국 자신에게 향하게 되어 나타나는(조미경, 2014)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학생은 폭력에 노출된 지 한 달 이내에 우울 증상을 포함한 외상 후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김재엽, 이근영, 2010)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역시 청소년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춘범, 2015; Klomek et al., 2008; Schneider et al., 2012). 사이버폭력 경험과 우울의 관계를 알아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우울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전은숙, 2013; Price et al., 2013; Rose & Tynes, 2015),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우울을 유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우울은 불안장애, 주의력 결핍, 무기력, 불면증, 좌절감 등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와 학교생활에도 어려움을 주며(Angold, Costello, Erkanli & Worthman, 1999), 자살과 관련하여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알려져(김재엽, 이근영, 2010; 문동규, 김영희, 2011; 박병금, 2007; 박재연, 2009; Fotti, Katz, Afifi & Cox, 2006; Mazza & Reynold, 1999; Wild, Flisher & Lombard, 2004)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피해학생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두어 상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우울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증상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활동) 사이버폭력 이후 어떤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지 다양한 증상 점검하기.
- 사이버 상에서 우울을 일으키는 사고 오류를 확인하고 자신의 사고 오류(예: 과잉일반화, 흑백논리 등)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활동) 사이버 공간의 특정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고 오류의 예를 제시 및 구분하여 자신의 사고와 비교하기.
- 사이버 상에서 우울을 일으키는 부정적 사고를 보다 긍정적 사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활동) 사이버 공간의 특정 상황에서 생겨나는 부정적 사고를 카드로 만들고 이 카드의 뒷면에 긍정적인 대안적 사고를 적어보기.

나. 피해학생의 사회정서 역량 신장

1) 자존감 향상

사이버폭력은 피해학생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힌다. 자존감(self-esteem)이란 자신에 대한 가치와 자아에 대한 평가로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이다(Rosenberg, 1965).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며 가치 있게 여기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자존감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폭력과 부적 관계를 나타낸다(임숙희, 송영일, 곽대훈, 2018).

피해학생의 자존감은 여러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학생들이 주로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고, 괴롭힘의 피해로 인해 대체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계속해서 위축되어 자존감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종효, 2003; 신혜섭, 2005). 낮은 자존감은 또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주장하는 능력과 동기를 약화시키고,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보여 학교폭력의 피해를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Egan

& Perry, 1998; Rigby, 2008). 따라서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자존감 향상은 사이버폭력의 지속적인 피해를 차단하며 피해 경험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개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피해학생의 자존감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두어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돕고 단점의 부정적인 측면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전환하도록 돕는다.
(활동) 학생과 자신의 장점(특별한 점), 단점의 긍정적인 측면 및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부정적인 측면을 고치는 방법 설명하기.
- 온라인으로 자주 대화하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을 찾고 그들과 어떤 방식으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탐색하도록 돕는다.
(활동) 온라인상에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물을 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상대와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나누는지 탐색하기.
-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과 그 가치를 탐색하도록 돕는다.
(활동) 자신의 개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물건을 정하고 그렇게 선택한 이유와 그 특성이 지닌 고유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기.

2) 자기 주장성 증가

피해학생의 경우 자기 주장성(self-assertiveness)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기 주장성이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타인과의 갈등 없이 자신의 관심사나 느낌, 생각 등을 편안하고 솔직하게 말하거나 표현하는 능력(Albert & Emmons, 1975)을 말한다. 또한 자기 주장성은 바람직한 의사소통 행위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신을 두고 기술적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폭넓게 전달하는 능력(Adler, 1982)이다. 낮은 자기 주장성은 또래의 폭력을 허용 또는 지속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성 부족과 결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자주 논의되고 있다(강은희, 이은희, 임은정, 2002; 김교현, 왕소정, 2000).

Salmivalli, Karhunen & Lagerspetz(1996)은 괴롭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기 주장훈련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하였고, 신성자(2005)는 피해자의 언어적 거절 능력이 가해자의 공격을 막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도 중요

함을 강조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자기 주장훈련을 시행한 결과, 피해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대인관계 능력의 향상으로 괴롭힘의 피해 경험이 감소함을 밝혔다(박수정, 김도연, 2014; Olweus, 1993). 따라서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큰 사이버 상황에서 이를 적절하게 차단하고 사이버폭력의 지속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 학생의 자기 주장성 증가가 필요하다. 피해학생의 자기 주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두어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주장 행동, 소극적 행동(비주장 행동), 공격적 행동을 파악하고 탐색하도록 돕는다.
(활동)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행동 목록을 작성한 후 이를 주장 행동, 소극적 행동(비주장 행동), 공격적 행동으로 유목화하기.
- 사이버 공간의 특정 상황에서 소극적 행동(비주장 행동), 공격적 행동을 일으키는 비합리적 사고를 발견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활동)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는 상황 카드에 대한 자신의 행동방식을 탐색하고 그 행동 이면의 합리적 사고와 비합리적 사고를 구분하기.
- 사이버 공간에서 바람직한 주장 행동의 시기와 요소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활동)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는 상황 카드를 보고 적절한 주장 행동을 탐색하며 그 행동을 하기 위한 요소를 브레인스토밍 하기.
- 사이버 공간에서 주장 행동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고 다양한 사이버 상황에서 주장 행동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활동)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는 상황 카드를 보고 대응하기 어려운 순서로 우선순위를 매긴 후에 그 이유를 탐색하고 각각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 탐색하기.

3) 친사회적 기술 향상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이란 행동의 동기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행동(Eisenberg, 1983)으로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행동(Shaffer, 1994)이다. 한편, 타인과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은 청소년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로 이는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또는 사회적 유능성(social competence)을 통해 나타난다. 또한, 사회적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거나 가치 있으며

동시에 상호 간에 이익이 있는 특정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Combs & Slaby, 1977)으로 표현된다. 긍정적인 사회적 기술은 자신의 필요, 욕구 및 선호도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게 해주며 친구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Merrell & Gimpel, 1998).

피해학생의 경우 또래 집단 내에서 존중받기 위해 요구되는 친절, 협동, 친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Egan & Perry, 1998; Hodges, Malone & Perry, 1995; Schwartz, Dodge & Coi, 1993). 또한, 학교폭력 피해와 같은 부정적인 관계 경험은 피해학생이 사회적 기술 및 능력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이로 인해 정서 및 행동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적응상의 문제와 상관이 높다(Fox & Boulton, 2005). 따라서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게 사이버상의 친사회적 기술을 향상하도록 돕는 것은 사이버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사이버 상에서 지녀야 할 적절한 태도와 소통 기술에도 도움이 되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피해학생의 친사회적 기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두어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활동)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관계의 유형을 구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며 온라인상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 탐색하기.
- 사이버 공간에서 대인관계를 맺기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사이버 상에서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배우고 익히도록 돕는다.
(활동) 사이버 공간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행동과 관계를 해치는 행동을 비교하며 사이버 상에서 자신의 대인관계 기술 평가하기.
-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을 칭찬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도록 돕는다.
(활동)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을 칭찬하는 선플과 비난하는 악플에 대해 구분하고 선플 한 후 경험 나누기.
-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을 돕고 배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이버 상에서 친구의 고민을 듣고 돕는 방법을 익히도록 돕는다.
(활동) 사이버 상황에서 타인의 고민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 익히기.

2.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상담 및 지도방법

가.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선도 방법

1) 처벌 결과에 대한 인식

사이버폭력에서 견지해야 할 자세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만 강조하기보다는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과해야 할 의무를 인지시키는 것이다. 피해학생의 요구와 무관한 처벌은 반대해야 하며 원상회복, 배상 원칙에 근거하여 문제 해결에 중심을 두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 3항에 나왔듯이 관계 회복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이정민, 2020).

강력한 처벌만이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다. 진정한 피해 보상과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피해학생의 깨어진 삶을 복원하고 관계를 치유하기 위해 가해학생이 끼친 피해에 대한 반성과 책임감 있는 행동을 교육적으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행한 사이버폭력의 흔적들을 삭제토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물이 재생산, 유포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처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책임 있는 소멸작업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진심 어린 반성

사이버폭력에서 언어폭력이나 일시적 따돌림과 같이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낮은 행동의 경우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심리적 고통이나 피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피해학생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가해학생은 추후 또 다른 사이버폭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정여주, 2021). 일회성 게시물이나 단발성 행위일지라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반복되고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학생은 보다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어떤 감정일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해학생의 반성을 통해 피해학생의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 회복을 위해 진정한 사과는 중요하다. 특히 사이버폭력의 경우 실재감이 낮고, 익명성, 처벌의 미흡 등의 이유로 쉽게 폭력이 발생한다. 가해학생의 경우 공감 능력이 낮고, 공격성은 높은 특징(정여주, 2021)이 있어서 형식적인 사과나 학교폭력예방법의 처분

이외의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특히 가해학생의 원인치료를 통해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이유진, 이창훈, 강지명, 이상희, 2014).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서면 사과의 진정성은 피해학생의 치유에 가장 큰 도움이 되며, 관계 회복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유진 외, 2014). 사이버폭력은 온라인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이 빈번하기에 온라인 사과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서면 사과의 경우,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가 편지뿐 아니라 행동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관계 치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공식적인 사과문 게재와 댓글, 게시물 등에 관련 댓글을 달아 반성과 피해학생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학생의 감정 상태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역할극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학생의 입장을 경험하고,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학교 갈등조정단계에서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의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이유진 외, 2014). 현재 사이버폭력의 가해 이유로 보복성 행위가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가 조정에 참여한다면,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하는 가·피해학생에 개입하여 사이버 공간의 비 실재감을 현실감 있게 다룰 수 있고, 교실 내·외에서 관계 치유 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닐 수 있다.

나.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의 역량 신장

1) 공격성 조절

공격성은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간주되며, 공격성과 폭력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아름, 이운주, 양현일, 2014). 연구에 따르면 가해자는 선제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 모두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Camodeca & Goossens, 2005). 선제적 공격성은 초·중·고 모두에서 가해 행동을 유발하는 예측요인으로 작용한다(오인수, 2014). 공격성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공격성을 줄이는 것이 사이버폭력 예방에 효과적임을 추론할 수 있다.

가해학생은 공격적 성향이 높으며 이를 조절하지 못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용하여 폭력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선제적 공격성을 지닌 가해학생의 경우, 자신의 공격적 행동 이면의 원인이 무엇인지 인식하도록 도와

야 한다. 또한 공격성을 보다 바람직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공격 행동의 근본적 원인은 관심 끌기, 힘겨루기, 보복하기, 부족감 표현하기가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표출되는 공격성과 이면의 원인 및 동기를 탐색하여 학생들이 대안적 행동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예를 들어, 교사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사이버폭력을 한 학생에는 관심을 끌기 위한 보다 긍정적인 대안 행동을 학습하도록 도와야 한다. 가해학생의 공격성을 조절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두어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공격적 행동의 심각성과 부정적 결과를 깨닫는다.
(활동-반응적 공격성) 공격적 행동을 유발하는 상황이 담긴 카드를 통해 자신의 행동반응을 확인하고 부정적 영향을 연결해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 공격적 행동을 유발하는 사이버 상황에서 효과적인 행동반응을 배우고 자신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대안적 행동을 익힌다.
(활동-반응적 공격성) 가상 상황과 대안 행동이 제시된 활동지를 통해 대안 행동의 특징과 그 결과를 예측해 보고 작성하기
- 공격적 행동 이면에 숨겨진 4가지 동기(관심 끌기, 힘겨루기, 보복하기, 부족감)를 이해하고 그 관점에서 자신의 행동을 탐색한다.
(활동-선제적 공격성) 자신의 사이버폭력 행동 이면에 숨겨진 공격성의 4가지 동기를 이해하고 사이버폭력 사례 분석을 통해 공격적 행동의 근원적 심층 심리 파악하기

2) 분노 조절

분노는 공격적인 행동의 선행 요인이며, 타인 행동에 대한 인지적 귀인으로 분노의 감정과 공격적 행동이 나타난다(Feindler & Ecton, 1986). 반응적 공격성을 보이는 학생들의 주된 정서가 분노이며, 이러한 학생들일수록 쉽게 흥분하고, 분노의 폭발로 공격적 행동을 강하게 보인다(Arsenio & Lemerise, 2001). 또한 분노가 유발되면 보복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방송통신위원회(2021)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가해의 가장 큰 이유가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아 분노 감정을 경험하고, 이러한 분노를 참지 못해 익명의 다수 학생에게 화풀이하듯 온라인상에 자신의 정서를 표출할 수

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사이버폭력의 강도는 더욱 심각해진다. 더불어 가해학생에게 당한 피해를 보복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피해 경험을 되감아주는 행동을 하면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하는 가·피해자가 된다. 연구에 따르면 피해만 경험하는 수동적 피해자나 순수가해자와 비교하여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분노 성향이 강할수록 부정적 대인관계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분노 조절을 통해 대인관계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이미경, 홍상환, 2007).

- 사이버 공간에서 느끼는 분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분노하는 상황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해 본다.
(활동) O/X 퀴즈를 통해 분노에 대해 그릇된 상식을 바로잡고, 사이버 공간에서 분노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파악하여 분노의 특징을 이해하고, 분노 상황을 겪을 때 자신의 변화 인식하기
- 감정, 생각, 행동의 관계를 이해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자신의 비합리적 생각을 인식한다.
(활동) 셀프모니터링 활동지를 바탕으로 감정에 감춰진 생각을 파악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분노 상황과 연결된 부정적 생각을 확인하여 비합리적 생각을 분석하기
- 사이버 공간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전환한다.
(활동) 역할극을 통해 사이버 상황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생각을 논박하고, 브레인스토밍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연습하기
- 사이버 공간에서 적절하게 분노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익히고, 자신의 감정을 정화한다.
(활동) 건강하게 분노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예: 신문지나 빈 의자를 통해 분노를 해소하는 활동) 체험하기

3) 공감 향상

공감이란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추측하여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능력 및 타인이 표현하는 정서에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학교폭력에 관한 최근 연구는 공감을 인지적 공감과 정의적 공감으로 구분하여(Davis, 1983), 그 차별적 영향력을 파악한다.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표정과 말투, 태도 등을 바탕으로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이 결여되면 상황에 따라 적절한 태도를 하지 못해 집단따돌림의 표적이 되기 쉽다. 반면 정서적 공감은 타인을 배려하고 약자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는 능력으로 이 능력이 결여되면 타인을 지배하고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나 가해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Farrington, 2005).

가해학생은 대체로 어린 시절 가정폭력의 피해를 목격하거나 사회·경제적 환경에 의해 정서적 결핍이 있는 경우가 많다(김정은, 2013). 이러한 요소로 인한 충동성 조절 능력이나 정서적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폭력성이 높아지고 가해 행동의 발현이 쉬워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온라인 공간은 비대면의 특징상 상대방의 상태나 감정을 바로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공감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사이버 폭력 가해학생의 공감 능력을 향상하는 개입은 중요하다. 가해학생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두어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사이버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에 대해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어떤 감정이 생겨날 수 있는지 탐색하도록 돕는다.
(활동) 감정카드에 제시된 감정을 탐색한 후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로 적절한 감정카드를 선택하기
- 사이버 공간의 특정 상황에서 느끼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한 후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돕는다.
(활동) 사이버 공간의 특정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카드를 선택하게 한 후 이를 표정과 몸짓으로 표현하기
-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하고 상대의 감정과 관점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활동) 사이버 공간의 특정 상황에서 상대방의 감정과 매칭되는 카드를 선택하고 자신의 감정카드와 차이점을 설명하기
-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돕는다.
(활동)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짧은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한 후 등장인물의 느낌을 감정에 대해 감정단어를 사용하여 말하기
-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공감적 표현'을 통해 이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활동)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활용하여 맞장구치는 표현을 배우고 부드러운 어조로 상대의 감정이나 생각을 인정하는 표현을 연습하기

3. 사이버폭력 관계회복 상담 및 지도방법

가. 사이버폭력 관계회복의 필요성

2020년 이전의 학교폭력 대책은 사안처리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시켜 당사자 간의 관계회복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이 서로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놓치는 일도 있었다. 폭력이 발생한 이후 화해와 용서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사안이 종료되어도 당사자 간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이처럼 무관용 주의에 기초한 응보적 접근은 가해학생의 반성을 끌어내지 못하고 징계로 인해 더욱 심화된 문제행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낙인이 생겨 가해학생이 학교생활에서 배제되거나, 가해학생의 징계 수위 및 조치 결정 단계에서 피해 및 가해학생 사이의 입장이 충돌하여 교육청까지 분쟁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응보적 접근이 여러 한계에 부딪히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0년 학교폭력예방법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되었다. 도입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를 회복하는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관계회복의 과정에서는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푸른나무재단, 2020a, 2020b)’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적 개입 방법을 통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오해를 풀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학생의 용서로 서로 화해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에 훼손된 관계를 개선 및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다.

나. 사이버폭력 관계회복의 목표

사이버폭력 관계회복의 목표는 사이버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개선 및 회복을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이버폭력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무관용 주의에 기초한 응보적 접근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를 통해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을 근절시키는 결과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관계회복적 접근은 당사자 간의 상처 치유 및 긍정적 회복 경험을 통해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을 근절시키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은 피해학생

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듣고 자신을 성찰하며, 피해학생에게 직접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충분한 대화를 함으로써 치유와 용서, 화해를 경험하고 상처받은 감정을 자발적으로 회복할 기회를 얻는다. 이러한 조정과 화해의 과정을 통해 사이버폭력의 당사자들의 관계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이버폭력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상처를 치유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적인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다.

다. 사이버폭력 관계회복을 위한 상담 및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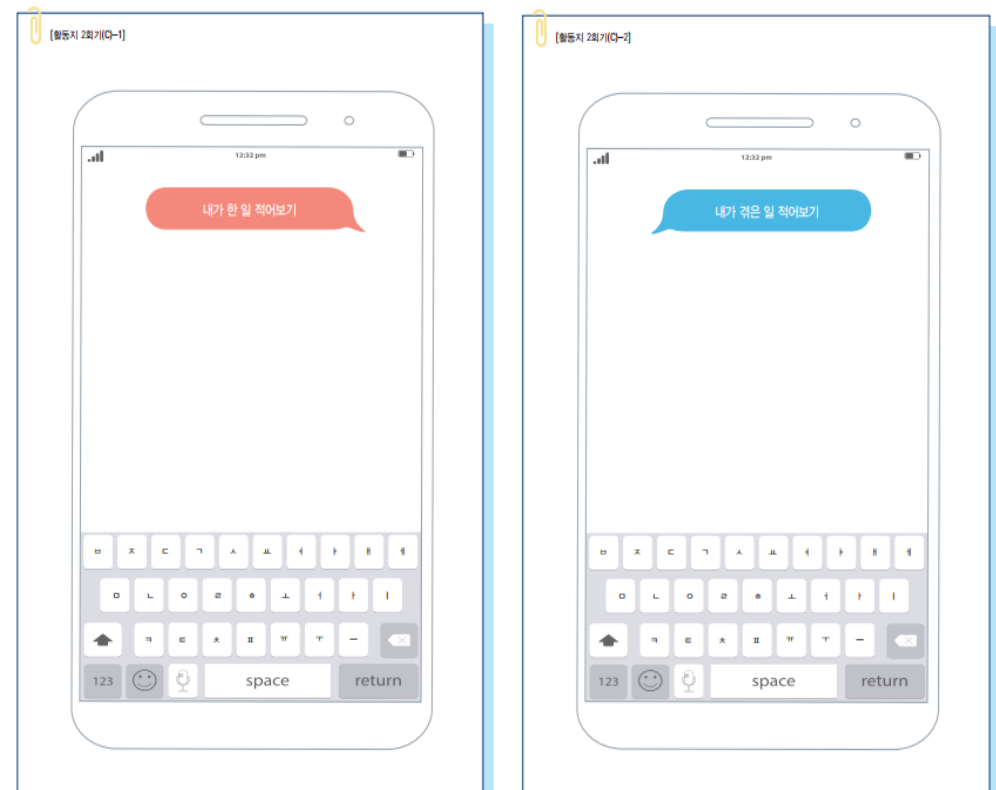
교육부는 2020년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함으로써 학교장을 중심으로 교육적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경상남도 교육청 및 푸른나무재단과 함께 협력하여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에서는 사이버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사이버폭력의 갈등 해결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폭력의 가해 및 피해학생의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지도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이버폭력 상황에 대한 탐색

사이버폭력 관계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사이버폭력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함께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는 두 학생에게 사이버폭력의 유형과 관련된 그림 또는 설명이 적혀있는 자료를 제시한다. 그리고 먼저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의 갈등을 유발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사이버폭력 유형에 관한 자료를 통해 두 학생이 경험한 사건이 사이버폭력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런 다음 피해학생이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사이버폭력은 어떤 유형인지 선택하도록 한다. 이때, 피해학생이 자신이 겪은 폭력이 여러 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복수 선택이 가능하도록 안내한다. 교사는 피해학생이 선택한 사이버폭력의 유형과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여 가해학생과 함께 경청한다. 그리고 가해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사이버폭력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하여 서로가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사이버폭력 유형을 함께 확인한다.

2) 사이버폭력 상황에서 상대방의 관점 이해

사이버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각각이 경험했다고 생각한 사이버폭력의 유형과 그 이유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 나눈 후, 자신이 겪은 사이버폭력의 상황에 대해 적어 보도록 한다. 교사는 가해학생에게는 [그림 VI-1]의 왼쪽과 같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적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그리고 피해학생에게는 [그림 VI-1]의 오른쪽과 같이 자신이 겪은 일로 인한 피해를 적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그런 다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자신들이 적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할 수 있도록 한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생각하는 피해의 정도가 다를 경우, 교사는 학생들이 서로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작성한 내용을 나란히 놓아 비교하며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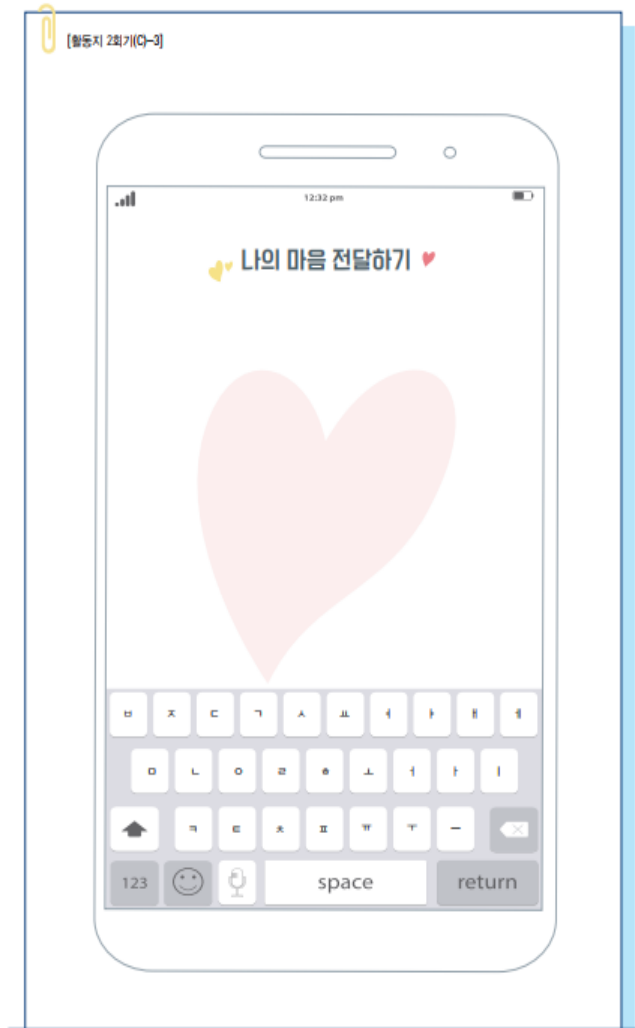
[그림 VI-1]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이 한 일(좌), 피해학생이 겪은 일(우)

3) 사이버폭력의 특징과 심각성 이해

사이버폭력의 특징과 함께 사이버폭력이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때 교사는 사이버폭력의 특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경험한 사례와 관련한 특징을 연결 지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교사가 사이버폭력의 특징과 관련한 그림을 제시하여 짚어가며 천천히 설명한다. 교사는 사이버폭력의 특징을 통해 가해학생의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전달될 때 얼마나 무서운 폭력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그런 다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게 느낌과 생각을 물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가해학생에게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묻고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가 해소될 수 있도록 돕는다. 만약 피해학생이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덧붙이고 싶거나 제외되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다면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충분히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가해학생이 의도치 않게 피해를 준 경우, 피해학생이 이에 대해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오해가 있다면 당사자들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해결하는 활동들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한 후 관계회복의 과정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

4)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갈등 해결

사이버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에 오해가 어느 정도 풀리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경우, 아래의 [그림 VI-2]와 같이 학생들은 편지로 자신의 마음을 글로 전할 수 있다. 교사는 관계회복을 위해 함께하는 과정 중 깨달은 점이나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편지에 담아 서로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편지를 다 쓰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순으로 자신이 쓴 편지를 읽도록 한다. 상대방의 진심이 담긴 편지의 내용을 들은 후 상대방에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이버폭력으로 발생한 갈등 및 관계 문제를 해결하고 사이버폭력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작성한 편지는 다른 학생들에게 유출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사가 보관하도록 한다.



[그림 VI-2] 나의 마음 전달하기(초·중등용)

Ⅶ. 표준연수안

1. 안내자료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 강화 표준 연수자료 개발 배경 및 목적

개발 배경

- 최근 **사이버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이버폭력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음

목적

- **교사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이해** 및 **효과적인 예방** 및 **대처** 역량 강화
교사 대상으로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 관련 교육을 해야 하는 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사 대상 표준 연수안 개발
- 교육청과 학교 단위에서 **교원 연수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슬라이드별로 스크립트를 제공하여 교사 스스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학부모 지원**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 강화 표준 연수자료
활용 방법

표준 연수자료는 **기본** 및 **심화**로 구분

기본

50분 ~ 60분 교육자료

사이버폭력 이해, 심각성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유형별 지도
 학생 상담, 학부모 지원

심화

90분 ~ 120분 교육자료

기본자료

사이버폭력 이해 및 심각성(상세)
 사이버폭력 유형별 지도(상세)
 관계회복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 강화 표준 연수자료
활용 방법

연수 목적에 맞게 탄력적 활용 가능 (슬라이드를 설명하는 스크립트 제공으로 연수 담당자가 쉽게 연수 진행 가능하도록 지원)

기본 목차

- 1 **사이버폭력의 이해 (14장 / 17~20분)**
 사이버폭력의 개념 / 사이버폭력의 특징 / 사이버폭력의 실태 / 사이버폭력의 유형
- 2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5장 / 5~7분)**
 사이버폭력의 영향 / 사이버폭력과 법
- 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14장 / 17~20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 사이버폭력 징후 발견 / 사이버폭력 예방 유형별 지도
- 4 **학생 상담 (5장 / 7~8분)**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상담 /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지도
- 5 **학부모 지원 (4장 / 4~5분)**

심화 목차

- 사이버폭력의 이해 (23장 / 28~38분)**
 사이버폭력의 개념 / 사이버폭력의 특징 / 사이버폭력의 실태 / 사이버폭력의 유형
-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10장 / 13~16분)**
 사이버폭력의 영향 / 사이버폭력과 법
-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23장 / 30~40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 사이버폭력 징후 발견 / 사이버폭력 예방 유형별 지도
- 학생 상담 및 관계회복 (9장 / 13~18분)**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상담 /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지도 / 사이버폭력 관계회복
- 학부모 지원 (6장 / 6~8분)**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 강화 표준 연수자료 집필진 및 연구협력관

집필진

오인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정지연 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이혜란 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양수연 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안혜지 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연구협력관

유상범 과장(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한유화 교육연구관(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김주숙 교육연구사(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기획

장시준 본부장/센터장(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폭력교육지원센터)
정광훈 부장(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폭력교육지원센터)
조규복 책임연구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폭력교육지원센터)
구찬동 선임연구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폭력교육지원센터)
김아라 선임연구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폭력교육지원센터)

문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사이버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053-714-0414

2. 기본 연수안

기 본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강화

교원 표준 연수 자료 (기본)















슬라이드 #1

사이버폭력 예방역량 강화 교원 표준 연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강화
교원 표준 연수 자료(기본)

목차

contents

-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사이버폭력의 개념 / 사이버폭력의 특징 / 사이버폭력의 실태 / 사이버폭력의 유형
- 02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사이버폭력의 영향 / 사이버폭력 과법
-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 사이버폭력 징후 발견 / 사이버폭력 예방 유형별 지도
- 04
학생 상담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상담 /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지도
- 05
학부모 지원



슬라이드 #2

사이버폭력 예방역량 강화 교원 표준 연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사이버폭력 이해의 장으로서 사이버폭력의 개념, 특징, 실태, 유형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다음으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사이버폭력의 영향, 관련 법에 대해 이해하는 장입니다.

세번째 장은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사이버폭력 징후 발견, 사이버폭력 유형별 예방 지도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번째 장은 학생 상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상담, 가해학생 지도에 대해 살펴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학부모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강화
교원 표준연수 자료(기본)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개념, 특징, 실태, 유형)



슬라이드 #3

먼저 사이버폭력 이해의 장으로 사이버폭력의 개념, 특징, 실태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폭력의 다양화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 4

저격

카톡감옥 (카톡감금)

멤늘 데카 패드립

디지털그루밍 방폭

와이파이 셔틀

지인능욕 불법촬영(유포)

게임부주 부계

랜선팸

핫스팟 빨리 키라고!



슬라이드 #4

학교폭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990년 중·후반 ‘왕따’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으며, 이후 카카오톡을 통한 따돌림을 뜻하는 ‘카따’라는 사이버폭력으로 변화했습니다. 빵셔틀은 강요에 의해 빵이나 물건 등을 대신 사다주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는 시이버 공간에서 ‘와이파이 셔틀’로 변화하였습니다. 와이파이 셔틀이란 강압적으로 상대방의 스마트폰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 사이버폭력을 뜻합니다. 그림과 같이 피해학생에게 스마트폰의 핫스팟을 켜게 한 후 피해학생의 데이터를 갈취하여 공짜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이버폭력의 개념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 5

사이버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을 행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가이드,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회, 2022)



사이버폭력의 법률적 정의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668호 제2조 1의3)

슬라이드 #5

사이버폭력의 일반적 개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생 대상으로 사이버폭력을 행한 경우에는 학교 사이버폭력에 해당합니다. 사이버폭력의 법률적 정의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용어로 사이버폭력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을 의미하는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특정 학생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공격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사이버폭력의 특징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 6

익명성

-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익명성’ 때문에 폭력에 대한 **죄책감이 낮아져** 폭력이 지속됨
-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 폭력이 억제되지만 익명의 상황에서는 **탈억제 현상**이 나타나고 **충동성이 높아져** 폭력이 쉽게 발생함



슬라이드 #6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을 통해 자신을 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력을 행사하고도 죄책감이 낮아져 폭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 자연스럽게 폭력을 억제합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처럼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는 그러한 억제가 줄어드는 탈억제 현상이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충동성이 높아져 폭력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특징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 7

비대면성

- 비대면의 사이버 공간에서는 **상대의 반응이나 상태를 즉시 확인할 수 없어** 폭력의 강도가 심해지는 경향을 보임
- 비대면 상황에서는 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것이 어려워 **의사소통의 오해와 갈등**이 폭력으로 발전됨



슬라이드 #7

사이버 공간은 대면이 아닌 비대면 상황으로 상대의 반응이나 상태를 즉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폭력 가해 횟수가 늘고, 괴롭히는 강도나 수위 등의 정도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대면 상황에서는 표정이나 목소리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상대의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는 비대면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의사소통의 오해와 갈등이 폭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이버폭력의 특징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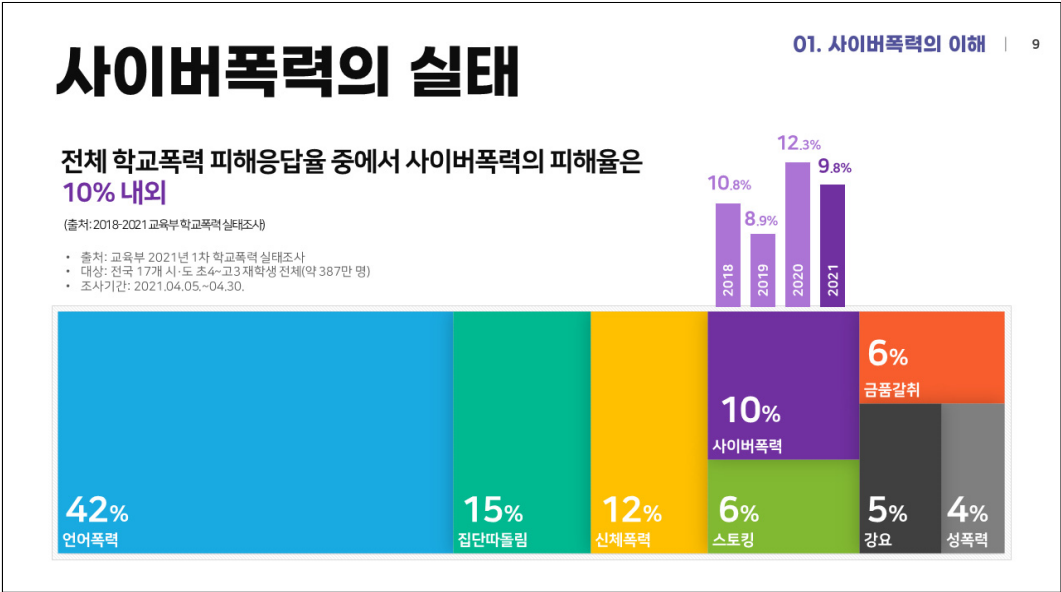
빠른 피해 확산성

- 사이버 공간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 사이버 폭력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음
- 인터넷,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폭력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매우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의 정도가 심각해질 수 있음



슬라이드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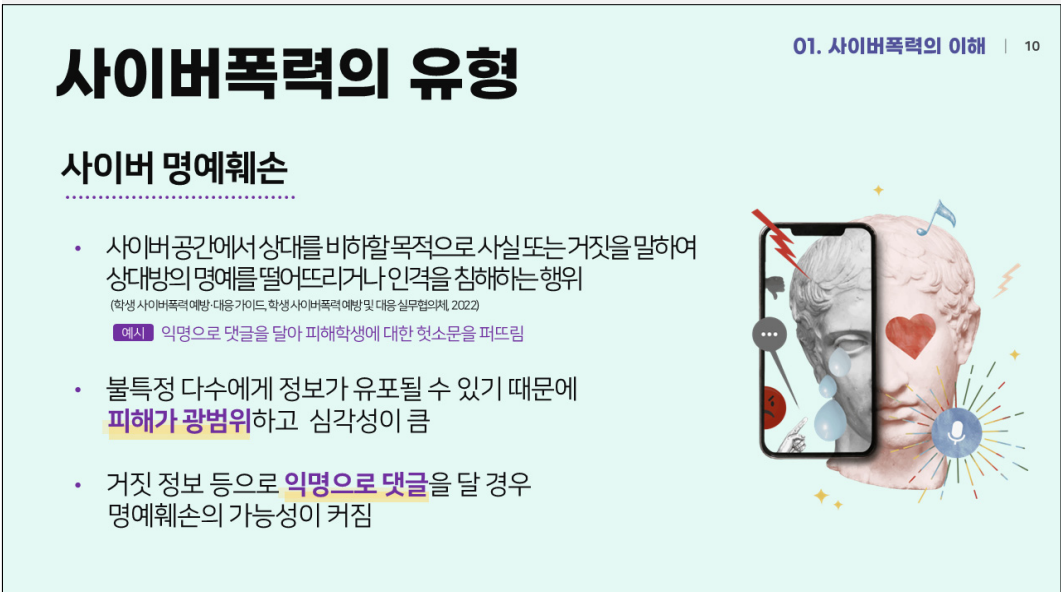
사이버 공간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 사이버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폭력의 지속성이 더 늘고 폭력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의 속도 및 범위와 달리 인터넷,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자료는 손쉽게 게시 및 전달 가능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매우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매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9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학교폭력의 유형별 비율을 보면 사이버폭력은 약 10% 내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학생들의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학교폭력에서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할 가능성이 큼니다.

*연도별 비율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내용임



슬라이드 #10

사이버폭력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를 비하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익명으로 댓글을 달아 피해학생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해지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온라인에서 유포될 경우 인터넷에 접속하는 즉시 불특정 다수가 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또한, 익명으로 댓글을 달 수 있기 때문에 거짓 정보 등이 더욱 쉽게 유포되어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유형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 11

사이버 언어폭력

- 문자나 사진 및 동영상 등으로 이루어지는 **게시판 비방글, 악성 댓글, 욕설** 등으로, 사이버 모욕 혹은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

예시 문자나 SNS 메시지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함

- 사이버 공간에서는 **탈억제성**으로 인해 사이버 언어폭력 및 모욕이 **더욱 쉽게 발생**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구분하기 어려움**



슬라이드 #11

사이버 언어폭력이란 문자나 사진 및 동영상 등으로 이루어지는 게시판 비방글, 악성 댓글, 욕설 등으로, 사이버 모욕 혹은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나 SNS 메시지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탈억제성으로 인해 즉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오프라인보다 거친 말이나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주저 없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단체 대화방과 같은 공간에서 모욕적인 글이 올라온 경우 이에 피해학생이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답을 하면서 가해학생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버 언어폭력 및 모욕이 발생한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유형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 12

사이버 영상 유포

-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각종 **유해성 사진**나 **영상**을 전송 및 유포하여 괴롭히는 행위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이나 영상인 경우 사이버 성폭력이 될 수 있음

- **소수의 피해자**에 대해 **수많은 익명의 가해자** 구도를 형성함

- 청소년 사이에서는 사이버 영상 유포가 마치 **장난처럼** 생각되거나 **일종의 하위문화**로 자리 잡는 경향이 있음



슬라이드 #12


사이버 영상 유포는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각종 유해성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 및 유포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이나 영상인 경우 사이버 성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영상 유포는 소수의 피해자에 대해 수많은 익명의 가해자의 구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찾아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청소년 사이에서는 사이버 영상 유포가 마치 장난처럼 생각되거나 일종의 하위문화로 자리 잡는 경향이 있어 피해학생이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2차 가해가 발생하거나 무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유형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 13

사이버 스토킹

- 피해학생이 **원치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이메일, 문자 등을 보내거나 특정인의 SNS에 방문 및 게시물을 남기는 행위
예시 피해학생에게 관심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만남을 요구함
- SNS,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실태 파악이 어려움**
- 영향이 피해학생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까지 미칠 확률이 큼



슬라이드 #13

사이버 스토킹이란 상대가 원치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이메일, 문자 등을 보내거나 특정인의 SNS에 방문 및 게시물을 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에게 관심이 있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SNS,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실태 파악이 어렵습니다. 또한, 사이버 스토킹의 영향은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까지 영향을 미칠 확률이 크기 때문에 피해학생은 불안과 공포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유형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 14

사이버 따돌림

-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학생을 지목하여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따돌리는 행위**
예시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친구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일제히 대화방을 나감
- 오프라인 따돌림에 비해 **목격자**가 많으며 **따돌림의 흔적**이 사이버 공간에 오래 남음
- 새로운 사이버폭력의 유형인 **방폭**은 사이버 따돌림이 진화한 경우



슬라이드 #14

사이버 따돌림은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학생을 지목하여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따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SNS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친구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일제히 대화방을 나가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따돌림은 오프라인의 따돌림에 비해 목격자가 더욱 많으며 따돌림의 흔적이 더욱 오래 남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이버폭력의 유형인 방폭은 특정 학생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학생들이 갑자기 대화방을 나가는 행위로, 사이버 따돌림이 진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유형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 15

사이버 갈취

- 사이버 공간에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사이버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게임아이템 등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
 예시 피해학생에게 스마트폰의 핫스팟을 켜게 한 후 와이파이 셔틀로 데이터를 사용함
- 새로운 사이버폭력의 유형인 '와이파이 셔틀', '게임아이템 셔틀', '기프트콘 셔틀' 등 **각종 셔틀**이 모두 사이버 갈취에 해당함
-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금품 갈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해 학생들은 **죄책감이 낮음**



슬라이드 #15

사이버 갈취란 사이버 공간에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사이버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게임아이템 등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에게 스마트폰의 핫스팟을 켜게 한 후 와이파이 셔틀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로 피해학생의 데이터를 갈취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새로운 사이버폭력의 유형으로 주목되고 있는 와이파이 셔틀, 게임아이템 셔틀, 기프트콘 셔틀 등 각종 셔틀이 모두 사이버 갈취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갈취의 경우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금품 갈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갈취에 비해 가해학생들은 죄책감을 낮게 느낍니다.

사이버폭력의 유형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 16

사이버 강요

-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말 또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제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예시 피해학생에게 자신의 게임 캐릭터 레벨을 특정 수준까지 올려놓도록 강요
- 최근에는 자해를 강요하여 이를 사이버 공간에 인증하도록 하는 **'인증 놀이'**가 등장하는 등 **강요의 양상이 매우 위험하고 심각해짐**
- 신체 폭행과 같은 오프라인에서의 **전통적 학교폭력**과 **함께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슬라이드 #16

사이버 강요는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말 또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제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에게 자신의 게임 캐릭터 레벨을 특정 수준까지 올려놓도록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자해를 강요하여 이를 사이버 공간에 인증하도록 하는 인증 놀이가 등장하는 등 강요의 양상이 매우 위험하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강요는 신체 폭행과 같은 오프라인에서의 전통적인 학교폭력과 함께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유형의 복합성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 17

사이버 폭력 유형은 서로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함

- 특정 행위는 다양한 사이버폭력의 유형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음

예시 패드립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 언어폭력 + 사이버 성폭력

예시 떼카와 방폭
사이버 언어폭력 + 사이버 따돌림



슬라이드 #17

앞에서 살펴본 사이버폭력의 유형은 서로 중복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특정 행위는 하나의 사이버 폭력 유형이 아닌, 다양한 유형에 동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패드립의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과 언어폭력에 해당하며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사이버 성폭력에도 해당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집단으로 욕설을 하는 떼카가 발생한 후 피해학생만 남겨두고 모두 퇴장하는 방폭이 함께 발생하면 이는 사이버 언어폭력과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강화
교원 표준 연수 자료(기본)

0 2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영향, 관련법)



슬라이드 #18

두 번째 장은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것으로, 사이버폭력의 영향 및 관련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영향

02.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 19

심리적 영향

- 사이버폭력 피해 후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는 약 21%에 해당함
(방송통신위원회, 2020)
- 사이버폭력 피해 후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는 약 8.1%에 해당함
(방송통신위원회, 2020)
-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은 분노, 무력감, 좌절감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변화**를 야기함
(두경희, 2015; Lee & Chun, 2020)
-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은 학생의 **자존감**을 저하시키며, 자존감이 낮은 학생은 사이버폭력을 경험할 확률이 더 큼
(김은경, 2012)



슬라이드 #19

사이버폭력은 심리적 측면에서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피해학생들의 약 21.1%는 피해 경험 후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폭력 피해학생들의 약 8.1%는 자살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은 분노, 무력감, 좌절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 변화를 야기하기도 하며 피해학생의 자존감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사이버폭력을 가해 혹은 피해학생으로서 경험할 확률이 더 큽니다.

사이버폭력의 영향

02.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 20

행동적 영향

-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은 분노와 좌절을 참지 못해 **가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음
(전대성 외, 2015)
-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은 일반 학생과 비교하여 부적절한 **비행행동**을 할 가능성이 큼
(Gobert et al., 2011)
-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중 우울을 경험하는 학생은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
(Bauman et al., 2013)



슬라이드 #20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으면 분노와 좌절이 증가하고 이를 참지 못하면 오히려 폭력의 가해 행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피해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해 폭음 등의 부적절한 비행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료 화면은 최근 보도 중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자살과 관련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중 우울을 경험하는 학생은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욱더 큽니다.

사이버폭력의 영향

02.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 21

관계 및 신체적 영향

-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은 **또래 및 사회관계, 부모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큼
(Devine et al., 2012)
-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은 집단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거나, **소속감이 반감**될 가능성이 큼
(Williams et al., 2000)
- 사이버폭력 피해 또는 가·피해를 중첩적으로 경험한 학생은 수면장애, 두통, 식욕 부진, 피부 질환 등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큼
(Sourander et al., 2010)



슬라이드 #21

사이버폭력은 관계적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해 또래 및 사회관계와 부모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정을 견고히 하는 학생들과 달리 온라인상의 그룹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집단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거나 소속감이 반감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폭력의 피해는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며 신체적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사이버폭력 피해와 가해를 중첩적으로 경험한 학생은 수면장애, 두통, 식욕부진, 피부질환 등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버폭력과 법

02.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 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예방법')

- (15조) **학교장의 의무**:
 학기 별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학교폭력의 개념, 실태, 대처방안 등)을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실시
- (16조) **피해학생의 보호**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4. 학급교체
2. 일시보호	5. (삭제)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1호~9호 조치**

1. 서면 사과	4. 사회봉사	7. 학급교체
2.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5.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전학
3. 학교봉사	6. 출석정지	9. 퇴학

슬라이드 #22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폭력 관련 법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입니다. 15조에서는 사이버폭력의 예방을 위해 학교장이 학기 별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실시할 것을 의무로 규정합니다. 16조에서는 사이버폭력의 피해학생으로 확인되면 심리상담, 일시 보호, 치료, 학급 교체 등 다양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해학생으로 확인되면 1~9호 조치 중 1가지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서면 사과부터 심하면 퇴학의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음이 17조에 나와 있습니다.

사이버폭력과 법

02.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 23

소년법,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스토킹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 **소년법**: 만 10세 이상~19세 미만대상에 적용
- **형법 및 관련 특별법(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
- **사이버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 **사이버 스토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스토킹처벌법'), 정보통신망법
-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 **사이버 모욕**: 형법



슬라이드 #23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 법률입니다. 만 10세에서 14세 사이의 학생은 소년법에 적용을 받아 소년법상 보호 처분만이 가능합니다. 사이버 폭력의 경우,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 처분이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스토킹처벌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이 적용됩니다.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021.10.21.시행)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은 형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과 별개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대상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상당부분 인정 되면 학교장, 교사,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그림 출처:

https://www.google.com/url?sa=i&url=https%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CMHwLxjRNMQ&psig=AOvVaw3GhGZ98ZNWXt9u2n9l_7FN&ust=1641000935885000&source=images&cd=vfe&ved=0CAsQjRxqFwoTCNjRpoLzjPUCFQAAAAAdAAAAABAD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강화
교원 표준 연수 자료(기본)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슬라이드 #24

세 번째 장에서는 사이버 예방교육 및 사이버폭력 예방 유형별 지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25

사이버어울림 기본(역량) 프로그램

- 대상 : 초등학교(저학년/고학년), 중등(중학교/고등학교)
- 차시 : 3권 24종 (각 2-3차시), 총 71차시
- 구성 : 사이버폭력 예방 8대 역량 (사이버 공감, 사이버 의사소통, 사이버 감정조절, 사이버 자기존중감, 사이버 상의 갈등 관리 및 문제해결,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처, 사이버 자기조절, 인터넷 윤리의식 및 활용)

사이버어울림 심층(유형) 프로그램

- 대상 : 초등학교, 중등(중학교/고등학교)
- 차시 : 2권 12종 (각 2-3차시), 총 32차시
- 구성 : 사이버폭력 6가지 주요 유형(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영상 유포)



슬라이드 #25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개발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기존에 개발된 어울림 프로그램과 달리 사이버폭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예방역량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어울림 기본(역량) 프로그램과 사이버폭력 유형에 중심을 둔 사이버어울림 심층(역량) 프로그램으로 구분됩니다. 기본(역량) 프로그램은 8가지의 예방역량에 초점을 둔 반면, 심층(유형) 프로그램은 6가지의 폭력 유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26

사이버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 대상 : 중학교, 고등학교
- 차시 : 16권 134중/ 1-5차시(총 339차시)
- 구성 : 교과별·학교급별로 제작한 중등학교 사이버어울림 기본(역량) 프로그램
 - 중학교(국어/도덕/사회/영어/기술·가정/체육/한문/진로와직업)
 - 고등학교(국어/윤리/통합사회/영어/기술·가정/체육/한문/진로와직업)



사이버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예)

과목	프로그램 명	성취기준	역량	차시명
국어(고)	내 안에 나 있다	[10국01-02]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한다.	사이버 자기조절 사이버 의사소통	1차시 : 의사소통 상황 알기, 나 알기 2차시 : 나를 알고, 바른말 사용하기

슬라이드 #26

최근에는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교과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 다양한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교과연계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개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과과정을 기본으로 해당 교과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제작되었으며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교과별 진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국어교과 연계 프로그램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국어시간에 사이버 자기조절과 사이버 의사소통 역량을 다루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지도안(예)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27

중학교-사회과4단원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차이와 차별

구분	내용
학습주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차이와 차별 파악하기
학습목표	차이와 차별을 구분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이 경험한 차이와 차별을 파악할 수 있다.
도입	동영상 시청(EBS 지식채널 '차별의 발견') 차이와 차별의 의미 구분하기
전개	사이버 공간에서 내가 경험한 차이 파악하기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되는 신조어 파악하기 사이버 공간에서 내가 경험한 차별 파악하기
정리	발표하기(자신이 경험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차별)

2차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차이와 차별	
학습주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차이와 차별 파악하기 차시 2/4	
학습목표	차이와 차별을 구분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이 경험한 차이와 차별을 파악할 수 있다.	
시목 예방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상의 갈등 관리 및 문제해결 교과역량 비윤적 사고행위	
역량	사이버 상의 갈등 관리 및 문제해결 교과역량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학습자료	활동지 2-1 ~ 2-4	
단계	교수학습 방법	활동자료
도입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 시청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 지식채널 '차별의 발견'을 함께 시청한다. - http://www.ebs.co.kr/tv/dshow/prodId=352&actId=3063219 - 동영상 시청하며 학습지를 작성한다. ○ 차이와 차별의 의미 구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이는 '서로 같지 않고 다른 것'을 의미하며, 차별은 '차이가 있어도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 육가인일리원희 포스터를 통해 차이와 차별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적는다. 	활동지 2-1 2-2
전개 (2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공간에서 내가 경험한 차이 파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간 온라인 채팅의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 온라인 채팅의 용어, 가칭, 카탈로그, 게시글 등 기능을 파악한다. ○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되는 신조어 파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간 온라인 채팅에서 자신과 부모님이 사용하는 신조어를 비교한다. - 신조어 외에도 채팅 과정에서 경험한 사례를 생각해 본다. ○ 사이버 공간에서 내가 경험한 차별 파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공간에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가족 상황, 출신 지역, 출신 학교, 출신 직업, 학력, 용모 등 신체 조건, 피부색 등으로 인해 차별받은 경험을 적는다. - 가급적 학교 안에서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해 본다. 	활동지 2-3 2-4

슬라이드 #27

다음은 사이버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이 수업에서 적용되는 실제 지도안입니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28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활용의 실제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활용
- 모듈화된 차시 구성으로 상황을 고려한 **선택적·탄력적 운영** 가능
- 현장 **맞춤형 교육자료** (수업 지도안, 활동지, 참고 자료, 교사 Tips 등) 포함
- 기본(역량) & 심층(유형) **프로그램 상호 연계**를 통해 예방 교육의 시너지 효과 제고
-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 종합정보서비스(www.dorandoran.go.kr) 활용



|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갈등해결) 활동 장면

슬라이드 #28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데 매우 적합합니다.

우선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역량 또는 유형별로 프로그램이 모듈화 되어있어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적,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실효성이 높으며 역량에 초점을 둔 기본 프로그램과 유형에 초점을 둔 심층 프로그램이 상호 연계되어 있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관련 자료는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 종합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http://www.grinews.co.kr/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18240 고령인터넷뉴스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갈등 해결) 운영 - 사이버 공간에서도 역지사지 자세를 배우다

사이버폭력 징후 발견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29

사이버폭력 징후

-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며 긴장하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임
-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옴
- 온라인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피함
- SNS의 게시물의 분위기가 어둡거나 우울함
- SNS 계정을 갑작스럽게 삭제함
- 식욕을 잃거나 체중이 증가 또는 감소하며, 수면 장애 등 건강상의 문제를 자주 보임



슬라이드 #29

사이버폭력 피해 징후를 발견하는 것은 빠른 개입과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데 결정적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사이버폭력 징후를 숙지하여 학생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피해를 암시하는 신호로는 먼저, 학생이 문자나 SNS 메시지 등을 자주 확인하며 유독 긴장하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온라인 활동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피하거나 SNS의 게시물의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어둡거나 우울한 경우, SNS 계정을 갑작스럽게 삭제하는 경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식욕을 잃거나 체중이 감소하며 건강상의 문제를 자주 보이기도 합니다.

사이버폭력 예방 지도 방법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30

지도방법

정기적으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및 위험성, 온라인 활동, 개인정보 보호 방법 등 사이버폭력에 대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고민이나 피해 사실 확인 등 학생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상담함

정보통신기기의 올바른 사용법,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감, 사이버폭력 발생 시 신고 방법 등 사이버폭력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함

슬라이드 #30

사이버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지도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기적으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과 위험성, 각자의 온라인 활동,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 등과 같은 사이버폭력에 대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생의 온라인 활동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잘 드러나지 않는 고민이나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하고, 학생과 면담하여 학생의 온라인 활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는 모니터링과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해당 학부모에게 알리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 교사는 정보통신기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교육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감 및 사이버폭력 발생 시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여 학생들이 사이버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사이버폭력 유형별 지도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31

공통적인 지도 방법

-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우선임을 명심함
- 피해 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캡처 및 수집 후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함
- 교사와 학부모 등 주변 어른들은 무조건적으로 피해학생을 **보호** **하고 지지**할 것임을 평상시 학생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킴
- 피해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스러워할 수 있으므로 상담센터나 상담교사와 연계하여 피해학생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사이버폭력이 오프라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직접 만나지 않도록** 주의시킴



슬라이드 #31

사이버폭력의 유형별 대응방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모든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공통적인 대응방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는 무엇보다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우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이 폭력에 대해 감정적으로 맞대응 하거나 피해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캡처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교사나 부모 등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피해학생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평소 주변 어른들이 무조건적으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지지할 것임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피해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할 수 있으므로 상담센터나 상담교사와 연계하여 피해학생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폭력이 오프라인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직접 대면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시킵니다.

사이버폭력 유형별 지도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32

사이버 명예훼손



1. 사례 (대전일보, 2020.8.4; 중앙일보, 2020.10.31참고)

-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전학을 온 학생이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이 학생을 알아본 이전 학교의 학생들이 해당 학생의 신상정보와 과거 사실을 폭로하는 댓글을 올림

2. 대응방법

- 관련 글이나 사진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함
- 피해학생에게 관련 게시물에 대해 정보 삭제나 반론 게재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함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 나르며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함

슬라이드 #32

사이버폭력의 각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익명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전학을 온 한 학생이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글을 올리자 이 학생을 알던 이전 학교의 학생들이 해당 학생의 과거 사실과 이름, 학년, 가족 관계, 집 주소 등 신상정보를 폭로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사는 피해학생과 해당 학부모에게 관련 글이나 사진을 캡처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유포된 게시물에 대해 피해학생은 삭제 및 반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평상시 학생들에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온라인에서 퍼 나르며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처벌될 수 있는 행동임을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유형별 지도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33

사이버 언어폭력



1. 사례 (조선비즈, 2022.6.7 참고)

- 익명 소통 SNS 학생들 사이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으나, 곧 익명성을 악용한 언어폭력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앱을 통해 '뒤져라' 등 욕과 성희롱 메시지를 받고 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 대응방법

- 익명으로 활동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이버 언어폭력 및 모욕의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경고함
- 게시물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확대재생산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킴
-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채팅 내용과 문자 등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함

슬라이드 #33

다음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입니다.

익명 소통 SNS가 사이버학교폭력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SNS는 익명 계정을 통해 서로 질문을 하거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데, 익명성을 악용한 언어폭력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앱을 통해 '뒤져라' 등 욕과 성희롱 메시지를 받고 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 익명으로 활동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이버 모욕의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이와 더불어 게시물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확대재생산 될 수 있어 사이버 모욕의 부정적 영향이 심각함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킵니다. 사이버 모욕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 보다는 채팅 내용과 문자 등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주위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사이버폭력 유형별 지도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34

사이버 영상 유포



1. 사례 (SBS 8시뉴스, 2019.6.8 참고)

- 단체 대화방에서 이성 친구 또는 지인의 사진 및 영상을 무단으로 올려 외모를 평가하고 성적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해당 사진 및 영상을 악의적으로 재가공 후 유포함

2. 대응방법

- 관련 사진, 영상 등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 후 필요시 관련 기관의 도움을 요청함
- 피해학생은 관련 게시물에 대해 정보 삭제나 반론 게재를 요청할 권리를 가짐을 안내함
- 사이버 영상 유포 발생 시 피해 학생의 보호가 우선임을 명심함

슬라이드 #34

사이버 영상 유포의 대표적 사례로는 특히 남학생들끼리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 혹은 지인의 사진 또는 영상을 동의 없이 올려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해당 사진 및 영상을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악의적으로 재가공 후 유포하기도 하여 사이버 성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교사는 피해학생의 보호가 우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글이나 사진, 영상 등은 모두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 후 필요시 사이버 수사기관이나 상담센터 등을 통해 신고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이 관련 게시물 모두에 대해 정보 삭제 또는 반론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합니다.

사이버폭력 유형별 지도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35

사이버 스토킹



1. 사례 (아시아경제, 2018.4.26 참고)

- SNS에 게시된 사진을 보고 관심이 있다며 익명의 학생으로부터 연락이 시작되었고, 해당 학생은 피해학생의 학교와 나이, 이름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수시로 만남을 요구함

2. 대응방법

- 대부분의 피해학생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으므로 보호 조치를 취함
- 가해 학생이 직접 만날 것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절대 응하지 않도록 주의시킴
- 사이버 스토킹은 관심의 표현이 아닌 폭력이며 처벌의 대상임을 학생들에게 경고함

슬라이드 #35

SNS에 게시된 사진을 보고 관심이 있다며 익명의 학생으로부터 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윽고 해당 학생은 피해학생의 학교와 나이, 이름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수시로 만남을 요구하였으며 협박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사이버 스토킹의 사례입니다. 사이버 스토킹의 피해학생은 대부분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 있으므로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이 직접 만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학생이 이에 절대 응하지 않도록 주의시킵니다. 이와 더불어 평소 사이버 스토킹은 관심의 표현이 아닌 엄연한 폭력이며 처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학생들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이버폭력 유형별 지도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36

사이버 따돌림



1. 사례 (아시아경제, 2021.1.25; 연합뉴스, 2020.4.5; SBS 8시 뉴스, 2018.9.12 참고)

-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무리와 다투자 대화방에서 해당 특정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쏟아낸 후 해당 학생만을 남겨 놓고 단체로 대화방을 나감

2. 대응방법

- SNS에서는 가해학생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을 안내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접속하지 않도록 경고함
- 복수를 계획하거나 가해학생을 직접 만나기보다는 관련 문자나 채팅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함

슬라이드 #36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 특정 학생을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하여 일방적으로 욕설을 쏟아낸 후 해당 학생만을 남겨 놓고 단체로 대화방을 나가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따돌림이 발생하는 대화방의 링크를 공유하여 무수한 익명의 학생들이 가해행동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SNS에서는 가해학생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을 안내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링크를 통해 사이버 따돌림이 발생하는 공간에 가해 혹은 피해학생으로서 초대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접속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이버 따돌림이 발생한 경우 복수를 계획하거나 가해학생을 직접 만나기보다는 관련 문자나 채팅 내용 등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사이버폭력 유형별 지도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37

사이버 갈취



1. 사례 (시빅뉴스, 2018.4.19참고)

- 특정 학생에게 기프트콘을 선물하도록 강요하거나 주기적으로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여 바치도록 하고 와이파이가 없는 학교에서 특정 학생의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갈취함

2. 대응방법

- 갈취와 관련된 협박 문자를 받았다면 우선 해당 가해학생을 차단하도록 함
-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문자나 채팅 내용을 캡처하고 갈취한 물품의 종류, 피해 금액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함
- 사이버 공간에서만 가치 있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이에 대한 갈취는 처벌 가능한 행위임을 인식시킴

슬라이드 #37

사이버 갈취에 대한 사례로는 최근 새로운 사이버폭력의 유형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프트콘 셔틀, 게임 아이템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각종 셔틀이 모두 해당합니다. 갈취와 관련된 협박 문자를 받았다면 피해학생이 우선 해당 가해학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련 문자나 채팅 내용을 캡처하고 갈취한 물품의 종류, 피해 금액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합니다. 또한, 평소 학생들에게 사이버 공간에서만 가치가 있는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에 상관 없이 이를 갈취하는 것은 처벌 가능한 행위임을 명확하게 인식시킵니다.

사이버폭력 유형별 지도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38

사이버 강요



1. 사례 (조선일보, 2014.9.30참고)

-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특정 수준까지 올려 놓으라고 강요한 후 이를 따르지 못하면 오프라인에서 해당 특정 학생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함

2. 대응방법

-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 받았다면 이에 부응하지 않고 해당 가해학생을 차단하게 함
- 신체 폭행과 같은 오프라인에서의 학교폭력이 함께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함
- 상대가 강요를 지속할 경우 관련 문자, 채팅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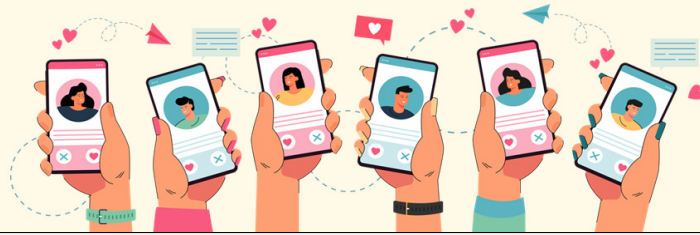
슬라이드 #38

마지막으로, 사이버 강요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게임 캐릭터 레벨을 특정 수준까지 올려놓으라고 강요한 후 이에 부응하지 못하면 오프라인에서 해당 특정 학생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문자나 채팅을 통해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 받았다면 이에 부응하지 않고 우선 해당 가해학생을 차단하도록 합니다. 사이버 강요는 오프라인에서의 전통적 학교폭력과 함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체 폭행 등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확인합니다. 또한 상대가 강요를 지속할 경우에는 관련 문자와 채팅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합니다.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강화
교원 표준 연수 자료(기본)

04

학생 상담



슬라이드 #39

네 번째 장에서는 피해학생 학생 상담과 가해학생 지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상담

04. 학생 상담 | 40

불안 줄이기

- 사이버 공간에서 갖는 **불안이나 두려움 탐색**
 - ✓ 온라인 공간의 특정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이나 두려움 탐색하기
- 불안 조절을 위한 **이완훈련**
 - ✓ 온라인 공간의 특정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이나 두려움 탐색하기

우울 줄이기

- **우울 증상 이해하기**
 - ✓ 두통, 복통 등 신체화 증상, 무기력, 주의산만 등
- 사이버 상에서 우울을 일으키는 **사고 오류 확인하기**
 - ✓ 과잉 일반화(계속 피해를 당할거야), 파국화(내 인생 망했어) 등

슬라이드 #40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상담의 접근은 피해학생의 심리적 충격을 회복하는 접근과 피해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2가지 방향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사이버폭력의 피해로 인한 피해학생의 심리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불안과 우울을 줄이는 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어떠한 특정 상황에서 불안이나 두려움을 자주 느끼는지 탐색하도록 하며 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이완훈련을 익히도록 합니다. 이후, 사이버 상에서 불안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상담합니다. 피해학생의 높아진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 먼저 다양한 우울의 증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비전형적인 우울 증상으로 신체화 증상이나 무기력, 주의 집중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우울을 유발하는 사고 오류를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믿는 과잉 일반화 또는 자신의 인생은 망했다고 여기는 파국적인 생각 등을 바로잡아주어야 합니다.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상담

04. 학생 상담 | 41

자존감 향상하기

- 나의 자존감 **탐색하기**
 - ✓ 장점을 발견하고 단점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전환하기
- 사이버 공간에서 **자존감 높이기**
 - ✓ 긍정독과 SNS 긍정 댓글을 통해 자신의 긍정성 높이기

자기주장성 강화하기

- 사이버 상에서 **바람직한 주장 행동 이해하기**
 - ✓ 적절한 주장 행동의 필요성과 장점 파악하기
- 사이버 상에서 **자기주장이 어려운 상황 파악하기**
 - ✓ 주장 행동이 어려운 상황의 대처 방법 설명하기

슬라이드 #41

피해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은 피해학생의 자존감과 자기주장성, 그리고 사회성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피해학생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선 자신의 자존감을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어 자신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특이나 SNS를 통해 긍정 댓글과 긍정 피드백을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에 취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상에서 바람직한 자기주장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주장 행동의 필요성과 장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특히 자기주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지 상황별 대처법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상담

04. 학생 상담 | 42

사회성 기술 향상하기

- 사이버 공간에서 **관계 맺는 방법 연습하기**
- 온라인에서 타인의 글에 선플 달고 고민이 있는 친구에게 위로 메시지 보내기



슬라이드 #42

마지막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사회성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관계 맺는 방법을 연습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만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선플과 같이 타인을 칭찬하는 기술을 연습해 보도록 합니다. 경우에 따라 친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며 온라인 상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지도

04. 학생 상담 | 43

공격성과 분노 조절하기

어떤 맥락과 상황, 자극이 공격성을 높이는지, 탐색, 파악하여 공격성과 분노를 촉발하는 요인 제거하기

공격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대체하기 등 공격적이지 않은 대안 행동으로 연습하기

심호흡, 근육이완, 혼잣말 훈련 등 분노 상황에서 대처 방법 알려주기

슬라이드 #43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을 지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공격성과 분노 조절입니다. 사이버폭력과 공격성 및 분노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공격성과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제 공격적인 행동을 하며 화내는지 그 촉발요인을 파악하여 제거해야 합니다. 특정 맥락과 상황에서 공격성이 나타나고 화가 발생한다면 그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후 공격적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행동을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을 놀렸다면 바로 보복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화가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스스로 화를 조절할 수 있는지 대처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호흡을 하거나, 주먹을 강하게 쥐며 근육을 이완하는 방법, 또는 속으로 스스로를 달래는 혼잣말 훈련을 통해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지도

04. 학생 상담 | 44

공감 능력 향상하기

사이버 공간에서 역지사지의 관점으로 피해학생의 입장 되어보기 등을 통해 타인의 입장 이해하기

피해학생의 감정 탐색하고 느끼기 등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감정 느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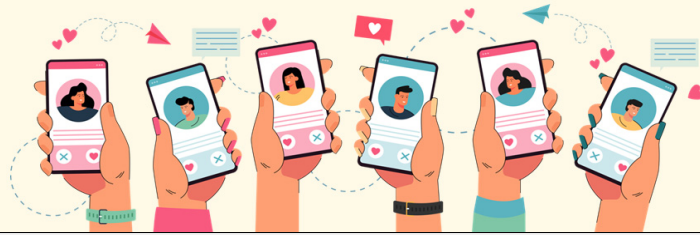
슬라이드 #44

사이버폭력의 가해 학생은 대체로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역지사지의 관점으로 피해학생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은 피해학생에 대한 공감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감정을 직접 느끼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폭력 상황에서 피해학생이 느꼈을 감정을 탐색하고 이를 느껴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강화
교원 표준 연수 자료(기본)

05

학부모 지원



슬라이드 #45

마지막 장에서는 학부모 지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폭력 학부모 지원

05. 학부모 지원 | 46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역할

자녀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평소 대화에서 **사이버폭력의 위험성을 언급하기**

학부모 스스로 **모범적인 온라인 행동** 실천을 통해 자녀의 올바른 행동 습관 기르기

온라인 사용 규칙 만들기, 온라인 취미활동 공유 등 가족 내 **긍정적인 사용 문화 형성하기**

슬라이드 #46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학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부모가 가정에서 사이버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평소 자녀와의 대화에서 사이버폭력의 위험성을 언급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 위험을 판단하는 미디어 소양을 자녀가 함양하도록 안내합니다. 학부모는 매우 중요한 롤 모델입니다. 따라서 학부모 스스로 온라인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하도록 자문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바른 온라인 행동을 학습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가족 내에서 긍정적인 온라인 사용 문화를 만들도록 권유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사용 규칙을 함께 만들거나, 온라인 취미활동을 공유하여 건강한 온라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사이버폭력 학부모 지원

05. 학부모 지원 | 47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학부모 역할

- 자녀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침착하게 반응하며 공감과 적극적인 경청으로 대화함
- 자녀의 보복 행동을 방지하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 기록 및 증거를 확보함
- 학교 및 전문 기관을 통해 사안 처리 또는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함



슬라이드 #47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한 피해학생 학부모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의 피해 사실로 걱정되고 불안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당사자인 자녀가 가장 힘들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침착하게 공감과 적극적인 경청으로 대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자녀의 보복 행동을 방지하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기록하며,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학교 및 전문 기관을 통해 사이버폭력 사안 처리 또는 사이버폭력 신고와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등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사이버폭력 학부모 지원

05. 학부모 지원 | 48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을 위한 학부모 역할

- 가해 행동에 대한 자녀의 감정 및 동기를 탐색하고, 사이버폭력의 영향에 대해 설명함
- 자녀의 온라인 행동을 모니터링하여 후속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함
- 학교 및 전문 기관을 통해 가해 행동의 동기, 법적 분쟁 등의 문제를 위한 교육,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함



슬라이드 #48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해서는 가해학생 학부모의 태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화를 내고 꾸짖는 등의 감정적 반응보다 대화를 통해 가해 행동에 대한 자녀의 감정과 동기를 탐색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심각성 및 영향에 대해 설명하여, 피해학생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과 등의 적절한 대처를 위해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자녀의 행동을 주시하며 후속적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안내하고, 학교 및 전문 기관을 통해 온라인 중독 및 분노와 같은 가해 행동의 동기와 법적 분쟁 등의 문제를 위한 교육, 상담 및 자문을 구하도록 돕습니다.

도전 vs 응전

05. 학부모 지원 | 49

- 사이버폭력은 빠르게 진화하여 교사에게 큰 **도전** 요소로 작용
- 교사는 사이버폭력의 **대응역량**을 신장시켜 **응전**해야 함
 - ✓ 사이버 폭력에 대한 민감한 **인식**
 - ✓ 사이버 폭력에 대한 **지식** 업데이트
 - ✓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처 **기술** 향상



슬라이드 #49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사이버폭력은 빠르게 변화하며, 증가하고, 다양화되어 교사에게는 큰 도전 요소로 작용합니다.

교사는 사이버폭력의 대응역량을 신장시켜 사이버폭력의 위협에 응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폭력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사이버폭력에 대한 지식을 업데이트하며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처 기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사의 대응역량이 사이버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심화 연수안

심 화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강화 교원 표준 연수 자료 (심화)














슬라이드 #1

사이버폭력 예방역량 강화 교원 표준 연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강화
교원 표준 연수 자료(심화)

목차

contents

- ❶
사이버폭력의 이해
사이버폭력의 개념 / 사이버폭력의 특징 / 사이버폭력의 실태 / 사이버폭력의 유형
- ❷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사이버폭력의 영향 / 사이버폭력과법
- ❸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 사이버폭력 징후 발견 / 사이버폭력 예방 유형별 지도
- ❹
학생 상담 및 관계회복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상담 /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지도 / 사이버폭력 관계회복
- ❺
학부모 지원



슬라이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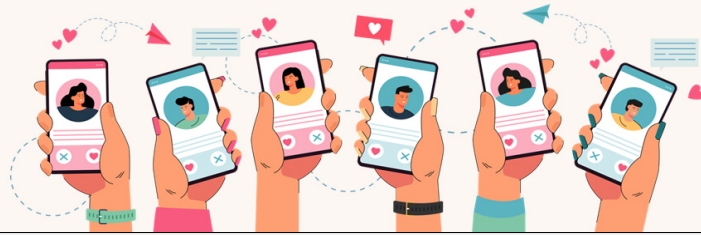
사이버폭력 예방역량 강화 교원 표준 연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사이버폭력 이해의 장으로서 사이버폭력의 개념, 특징, 실태, 유형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다음으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사이버폭력의 영향, 관련 법에 대해 이해하는 장입니다. 세 번째 장은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사이버폭력 징후 발견, 사이버폭력 유형별 예방 지도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번째 장은 학생 상담 및 관계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상담, 가해학생 지도, 관계회복에 대해 살펴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학부모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강화
교원 표준 연수 자료(심화)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개념, 특징, 실태, 유형)



슬라이드 #3

먼저 사이버폭력 이해의 장으로 사이버폭력의 개념, 특징, 실태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폭력의 다양화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 4

저격

카톡감옥(카톡감금)

멤늘 데카 패드립

디지털그루밍 방폭

와이파이 셔들

지인능욕 불법촬영(유포)

게임부주 부계

랜선팸

핫스팟 빨리 키라고!



슬라이드 #4

학교폭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990년 중·후반 ‘왕따’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으며, 이후 카카오톡을 통한 따돌림을 뜻하는 ‘카따’라는 사이버폭력으로 변화했습니다. 빵셔들은 강요에 의해 빵이나 물건 등을 대신 사다주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와이파이 셔들’로 변화하였습니다. 와이파이 셔들이란 강압적으로 상대방의 스마트폰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 사이버폭력을 뜻합니다. 그림과 같이 피해학생에게 스마트폰의 핫스팟을 켜게 한 후 피해학생의 데이터를 갈취하여 공짜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이버폭력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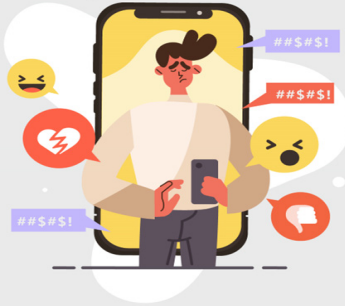
사이버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을 행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가이드,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회, 2022)

사이버폭력의 법률적 정의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668호 제2조 1의3)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 5



슬라이드 #5

사이버폭력의 일반적 개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생 대상으로 사이버폭력을 행한 경우에는 학교 사이버폭력에 해당합니다. 사이버폭력의 법률적 정의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용어로 사이버폭력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을 의미하는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특정 학생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공격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사이버폭력의 개념

사이버폭력 유사개념

<p style="text-align: center;">사이버 불링</p> <p style="text-align: center;">사이버폭력 중 힘의 불균형에 기초하여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폭력을 일컫는 용어</p>	<p style="text-align: center;">사이버 괴롭힘</p> <p style="text-align: center;">사이버불링을 국문으로 번역한 개념으로 사이버불링과 동의어</p>	<p style="text-align: center;">사이버 비행</p> <p style="text-align: center;">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청소년의 비규범적 행동</p>	<p style="text-align: center;">사이버 범죄</p> <p style="text-align: center;">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범죄의 전형적인 형태로 형법 등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p>
----------------------------------------------------------------------------------------------------------------------------------------------------	-----------------------------------------------------------------------------------------------------------------------------	-----------------------------------------------------------------------------------------------------------------------	--------------------------------------------------------------------------------------------------------------------------------------------------------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 6



슬라이드 #6

사이버폭력과 흔히 혼용되는 유사 개념으로 사이버불링,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비행, 사이버 범죄 등이 있습니다. 사이버불링은 사이버폭력 중에서도 특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힘의 불균형에 기초하여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폭력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사이버 괴롭힘은 사이버불링을 우리 말로 번역한 용어로 사이버불링과 동의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국내 문헌에서 불링은 괴롭힘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이버 비행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청소년의 비규범적 행동을 말합니다. 폭력 행동도 포함되지만 인터넷 음란물 접촉, 사이버 사기 등과 같은 규범을 벗어나는 비폭력적 행동이 포함됩니다. 사이버 범죄는 전통적인 범죄가 비대면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의미하며, 가장 전형적인 행태의 형사적 처벌을 받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폭력과 비교하여 네 가지 용어는 약간의 다른 개념을 포함하지만 서로 중복되는 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특징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 7

익명성

-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익명성' 때문에 폭력에 대한 **죄책감이 낮아져** 폭력이 지속됨
-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 폭력이 억제되지만 익명의 상황에서는 **탈억제 현상**이 나타나고 **충동성이 높아져** 폭력이 쉽게 발생함



슬라이드 #7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을 통해 자신을 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력을 행사하고도 죄책감이 낮아져 폭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 자연스럽게 폭력을 억제합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처럼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는 그러한 억제가 줄어드는 탈억제 현상이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충동성이 높아져 폭력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특징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 8

비대면성

- 비대면의 사이버 공간에서는 **상대의 반응이나 상태를 즉시 확인할 수 없어** 폭력의 강도가 심해지는 경향을 보임
- 비대면 상황에서는 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것이 어려워 **의사소통의 오해와 갈등**이 폭력으로 발전됨



슬라이드 #8


사이버 공간은 대면이 아닌 비대면 상황으로 상대의 반응이나 상태를 즉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폭력 가해 횟수가 늘고, 괴롭히는 강도나 수위 등의 정도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대면 상황에서는 표정이나 목소리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상대의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는 비대면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의사소통의 오해와 갈등이 폭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이버폭력의 특징

빠른 피해 확산성

- 사이버 공간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 사이버 폭력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음
- 인터넷,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폭력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매우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의 정도가 심각해질 수 있음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 9



슬라이드 #9


사이버 공간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 사이버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폭력의 지속성이 더 높고 폭력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의 속도 및 범위가 달리 인터넷,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자료는 손쉽게 게시 및 전달 가능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매우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매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특징

피해기록의 영구성

-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사이버 공간에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여 사이버폭력이 쉽게 발생하며 더욱 집요하게 상대를 괴롭히게 됨
- 사이버공간의 자료는 무한 복사와 빠른 공유로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피해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아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짐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 10



슬라이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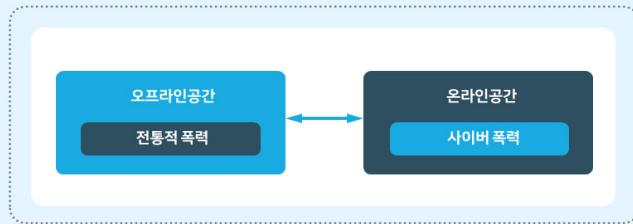
현대사회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보급이 대중화됨에 따라 사이버공간에 접속 및 접근이 용이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버폭력에 손쉽게 가담하며 상대를 더욱 집요하게 괴롭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이버공간에 게시된 자료는 무한 복사와 빠른 공유로 확산되기 때문에 완전한 삭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상에서 피해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아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이버폭력의 특징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 11

연결성

-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전통적 폭력은 복합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아짐



슬라이드 #11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전통적 폭력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전통적 폭력이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되기도 하고, 그 반대로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폭력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다시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이버폭력의 특징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 12

가·피해자의 중첩성

- 오프라인 폭력에 비해 **사이버폭력의 가해 및 피해자 중첩 비율이 높음**
- 힘의 불균형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오프라인폭력과 달리
사이버폭력은 피해 학생이 익명성을 이용하여 가해학생에게 보복할 가능성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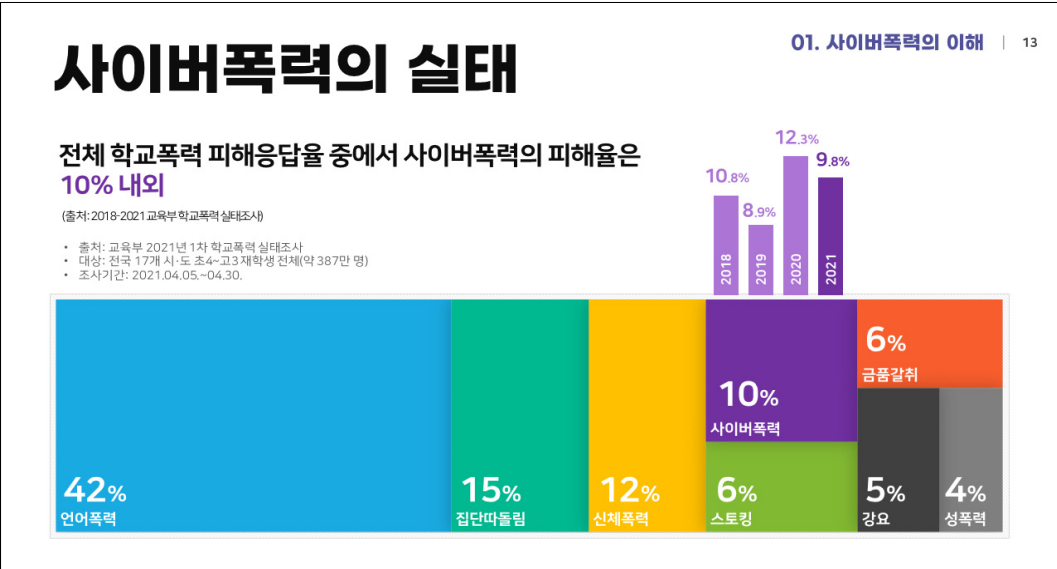
슬라이드 #12

연구에 따르면, 오프라인 폭력과 사이버폭력을 비교해보았을 때 그림과 같이 사이버폭력의 경우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하는 중첩 비율이 높습니다.

이는 힘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하는 오프라인 폭력의 경우 보복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지만, 사이버폭력은 피해학생이 익명성을 이용하여 가해학생에게 보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순수한 가해 혹은 피해 집단과 비교하여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하는 중첩 집단은 더욱 큰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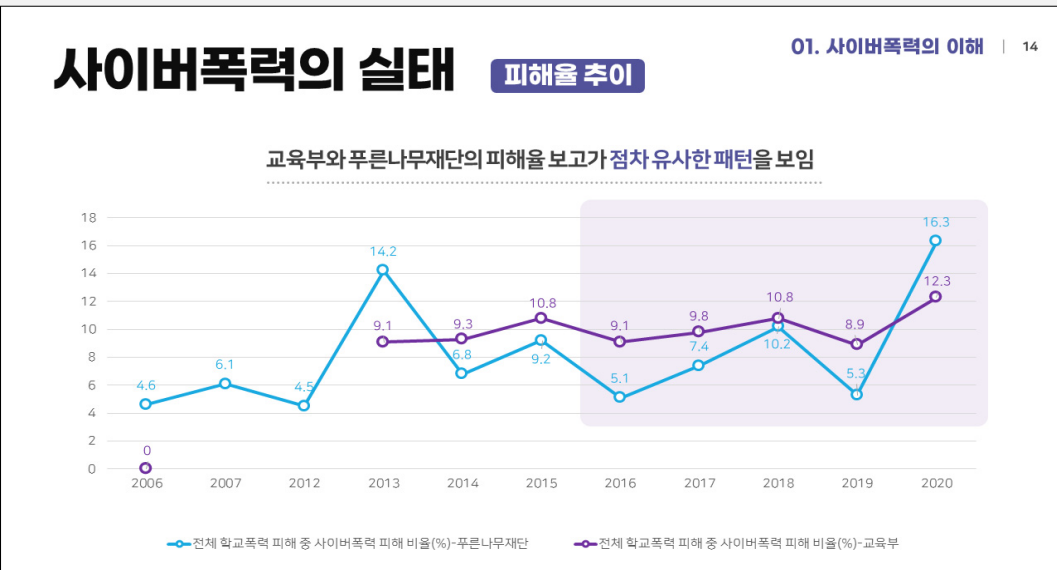
그림 출처: 안성진 외 12명 (2015). 사이버불링의 이해와 대책. 경기: 교육과학사



슬라이드 #13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학교폭력의 유형별 비율을 보면 사이버폭력은 약 10% 내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학생들의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학교폭력에서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할 가능성이 큼니다.

*연도별 비율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내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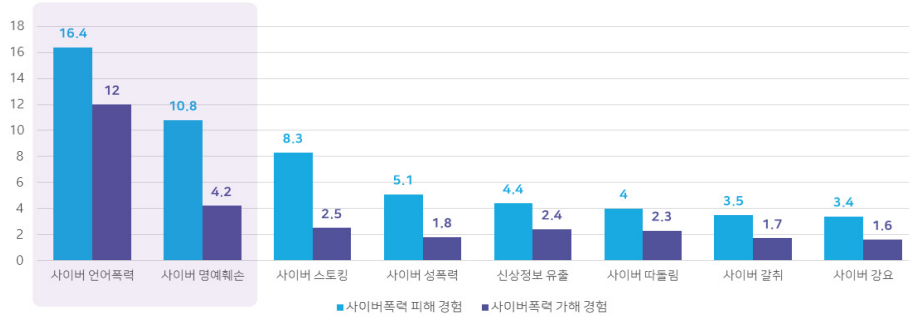
슬라이드 #14

기관에 따라 사이버폭력의 피해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비율의 연도별 변화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한 푸른나무재단의 실태조사와 2013년부터 시작한 교육부 실태조사는 모두 해를 거듭할수록 증감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사이버폭력의 피해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20년 결과를 보면 사이버폭력의 비율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온라인 활동 시간 증가가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폭력의 실태 피해와 가해의 유형별 비율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 15

가·피해 유형 경험율은 언어폭력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명예훼손의 비율이 높음



출처 : 2021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방송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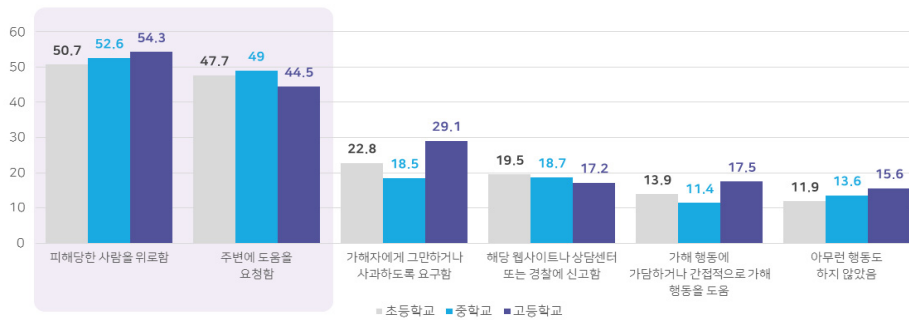
슬라이드 #15

이 그래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1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사이버폭력의 유형별 피해 및 가해 비율을 살펴보면 언어폭력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명예훼손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 밖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실태 사이버폭력 목격 후 대응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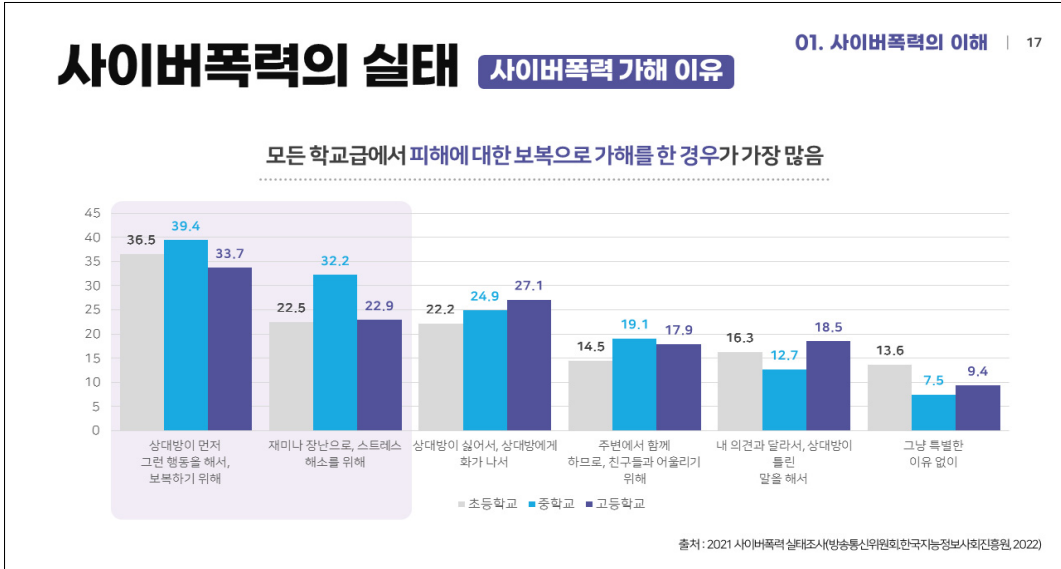
학교급별 모두 피해당한 사람을 위로함의 비율이 높고, 다음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함 비율이 높음



출처 : 2021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방송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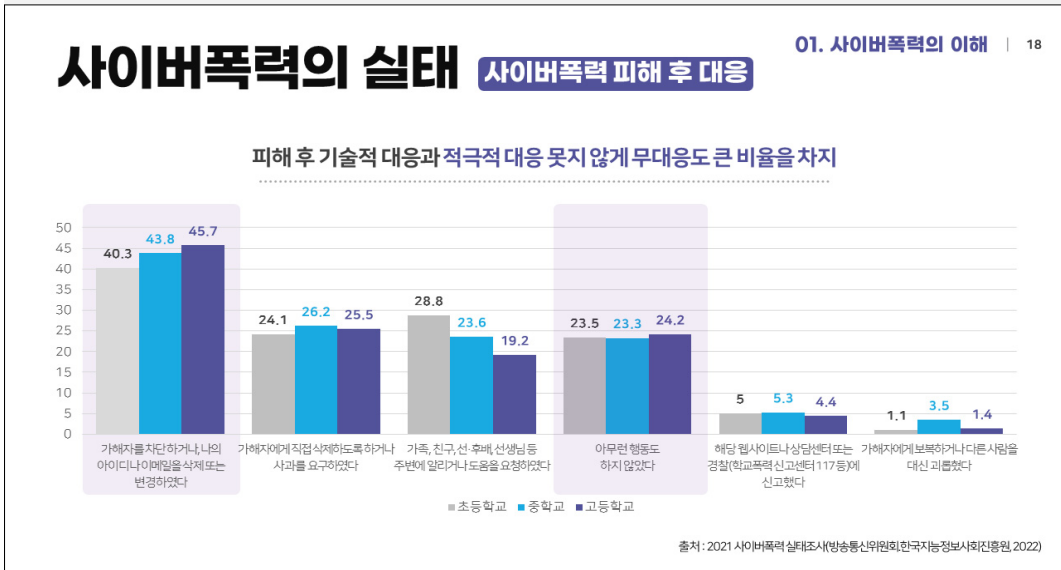
슬라이드 #16

사이버폭력 목격 후 대응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교급별 모두 '피해당한 사람을 위로함'의 비율이 높고, 다음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함' 비율이 높았습니다.



슬라이드 #17

사이버폭력 가해 이유는 모든 학교급에서 피해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를 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사이버폭력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 역할이 바뀌는 비율이 높아 오프라인 폭력에 비해 그 위험성이 큼니다. 그 다음으로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가 높았고, 상대방이 싫어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의 비율도 20%가 넘었습니다. 이외에도 주변인으로서 동조한 경우, 자신과 의견이 다른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한 경우 등으로 사이버폭력 가해 이유가 확인되었습니다.



슬라이드 #18

사이버폭력 피해 후 대응에 대해 학교급별로 알아본 결과 상대방을 차단하는 등 기술적 대응의 비율이 모든 학교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행동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이와 반대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웹사이트나 주변인 혹은 신고센터 등에 알리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유형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 19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를 비하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대응 가이드,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회, 2022)

예시 익명으로 댓글을 달아 피해학생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림

-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광범위**하고 심각성이 큼
- 거짓 정보 등으로 **익명으로 댓글**을 달 경우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커짐



슬라이드 #19

사이버폭력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를 비하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익명으로 댓글을 달아 피해학생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해지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온라인에서 유포될 경우 인터넷에 접속하는 즉시 불특정 다수가 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또한, 익명으로 댓글을 달 수 있기 때문에 거짓 정보 등이 더욱 쉽게 유포되어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유형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 20

사이버 언어폭력

- 문자나 사진 및 동영상 등으로 이루어지는 **게시판 비방글, 악성 댓글, 욕설** 등으로, 사이버 모욕 혹은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

예시 문자나 SNS 메시지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함

- 사이버 공간에서는 **탈억제성**으로 인해 사이버 언어폭력 및 모욕이 **더욱 쉽게 발생**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구분하기 어려움**



슬라이드 #20

사이버 언어폭력이란 문자나 사진 및 동영상 등으로 이루어지는 게시판 비방글, 악성 댓글, 욕설 등으로, 사이버 모욕 혹은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나 SNS 메시지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탈억제성으로 인해 즉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오프라인보다 거친 말이나 상대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주저 없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단체 대화방과 같은 공간에서 모욕적인 글이 올라온 경우 이에 피해학생이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답을 하면서 가해학생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버 언어폭력 및 모욕이 발생한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유형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 21

사이버 영상 유포

-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각종 **유해성 사진**나 **영상**을 전송 및 유포하여 괴롭히는 행위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이나 영상인 경우 사이버 성폭력이 될 수 있음
- **소수의 피해자**에 대해 **수많은 익명의 가해자** 구도를 형성함
- 청소년 사이에서는 사이버 영상 유포가 마치 **장난**처럼 생각되거나 **일종의 하위문화**로 자리 잡는 경향이 있음



슬라이드 #21

사이버 영상 유포는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각종 유해성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 및 유포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이나 영상인 경우 사이버 성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영상 유포는 소수의 피해자에 대해 수없이 많은 익명의 가해자의 구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찾아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청소년 사이에서는 사이버 영상 유포가 마치 장난처럼 생각되거나 일종의 하위문화로 자리 잡은 경향이 있어 피해학생이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2차 가해가 발생하거나 무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유형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 22

사이버 스토킹

- 피해학생이 **원치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이메일, 문자 등을 보내거나 특정인의 SNS에 방문 및 게시물을 남기는 행위
예시 피해학생에게 관심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만남을 요구함
- SNS,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실태 파악이 어려움**
- 영향이 피해학생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까지 미칠 확률이 큼



슬라이드 #22

사이버 스토킹이란 상대가 원치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이메일, 문자 등을 보내거나 특정인의 SNS에 방문 및 게시물을 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에게 관심이 있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SNS,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실태 파악이 어렵습니다. 또한, 사이버 스토킹의 영향은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피해학생은 불안과 공포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유형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 23

사이버 따돌림

-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학생을 지목하여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따돌리는 행위**
 예시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친구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일제히 대화방을 나감
- 오프라인 따돌림에 비해 **목격자가 많으며 따돌림의 흔적**이 사이버 공간에 오래 남음
- 새로운 사이버폭력의 유형인 **'방폭'**은 사이버 따돌림이 진화한 경우



슬라이드 #23

사이버 따돌림은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학생을 지목하여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따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SNS 단체 대화방에 초대된 친구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일제히 대화방을 나가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따돌림은 오프라인의 따돌림에 비해 목격자가 더욱 많으며 따돌림의 흔적이 더욱 오래 남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이버폭력의 유형인 방폭은 특정 학생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학생들이 갑자기 대화방을 나가는 행위로, 사이버 따돌림이 진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유형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 24

사이버 갈취

- 사이버 공간에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사이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게임 아이템 등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
 예시 피해학생에게 스마트폰의 핫스팟을 켜게 한 후 와이파이 셔틀로 데이터를 사용함
- 새로운 사이버폭력의 유형인 '와이파이 셔틀', 게임 아이템 셔틀, '기프트콘 셔틀' 등 **각종 셔틀**이 모두 사이버 갈취에 해당함
-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금품 갈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해 학생들은 **죄책감이 낮음**



슬라이드 #24


사이버 갈취란 사이버 공간에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사이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게임 아이템 등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에게 스마트폰의 핫스팟을 켜게 한 후 와이파이 셔틀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로 피해학생의 데이터를 갈취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새로운 사이버폭력의 유형으로 주목되고 있는 와이파이 셔틀, 게임 아이템 셔틀, 기프트콘 셔틀 등 각종 셔틀이 모두 사이버 갈취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갈취의 경우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금품 갈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갈취에 비해 가해학생들은 죄책감을 낮게 느낍니다.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 25

사이버폭력의 유형

사이버 강요

-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말 또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제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 예시 피해학생에게 자신의 게임 캐릭터 레벨을 특정 수준까지 올려놓도록 강요
- 최근에는 자해를 강요하여 이를 사이버 공간에 인증하도록 하는 '인증 놀이'가 등장하는 등 강요의 양상이 매우 위험하고 심각해짐
- 신체 폭행과 같은 오프라인에서의 전통적 학교폭력과 함께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슬라이드 #25

사이버 강요는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말 또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제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에게 자신의 게임 캐릭터 레벨을 특정 수준까지 올려놓도록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자해를 강요하여 이를 사이버 공간에 인증하도록 하는 인증 놀이가 등장하는 등 강요의 양상이 매우 위험하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강요는 신체 폭행과 같은 오프라인에서의 전통적인 학교폭력과 함께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 26

사이버폭력의 유형의 복합성

사이버 폭력 유형은 서로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함

- 특정 행위는 다양한 사이버폭력의 유형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음
 - 예시 패드립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 언어폭력 + 사이버 성폭력
 - 예시 떼카와 방폭
사이버 언어폭력 + 사이버 따돌림



슬라이드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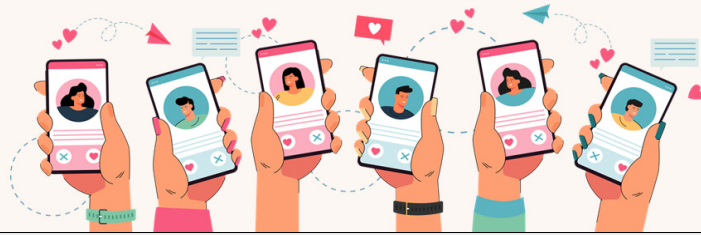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사이버폭력의 유형은 서로 중복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특정 행위는 하나의 사이버 폭력 유형이 아닌, 다양한 유형에 동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패드립의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과 언어폭력에 해당하며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사이버 성폭력에도 해당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집단으로 욕설을 하는 떼카가 발생한 후 피해학생만 남겨두고 모두 퇴장하는 방폭이 함께 발생하면 이는 사이버 언어폭력과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강화
교원 표준 연수 자료(심화)

0 2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영향, 관련법)



슬라이드 #27

두 번째 장은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것으로, 사이버폭력의 영향 및 관련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영향

02.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 28

심리적 영향

- 사이버폭력 피해 후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는 약 21%에 해당함

(방송통신위원회, 2020)

- 사이버폭력 피해 후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는 약 8.1%에 해당함

(방송통신위원회, 2020)



슬라이드 #28

사이버폭력은 심리적 측면에서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피해학생들의 약 21%는 피해 경험 후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폭력 피해학생들의 약 8.1%는 자살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영향

심리적 영향

-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은 분노, 무력감, 좌절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변화**를 야기함
(두경희, 2015; Lee & Chun, 2020)
-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은 학생의 **자존감**을 저하시키며, 자존감이 낮은 학생은 사이버폭력을 경험할 확률이 더 큼
(김은경, 2012)

02.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 29



슬라이드 #29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은 분노, 무력감, 좌절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 변화를 야기하기도 하며 피해학생의 자존감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사이버폭력을 가해 혹은 피해학생으로서 경험할 확률이 더 큽니다.

사이버폭력의 영향

행동적 영향

-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은 분노와 좌절을 참지 못해 **가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음
(전대성 외, 2015)
-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은 일반 학생과 비교하여 부적절한 **비행행동**을 할 가능성이 큼
(Gobert et al., 2011)

02.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 30



슬라이드 #30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으면 분노와 좌절이 증가하고 이를 참지 못하면 오히려 폭력의 가해 행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피해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해 폭음 등의 부적절한 비행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영향

02.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 31

행동적 영향

-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중 우울을 경험하는 학생은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
(Bauman et al., 2013)
- 사이버폭력과 전통적 폭력 둘 다 경험한 경우, 일반 학생에 비해 **자살시도 경험이 5.3배** 높음
(Kessel et al., 2012)



슬라이드 #31

자료 화면은 최근 보도 중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자살과 관련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중 우울을 경험하는 학생은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욱더 큽니다. 또한, 사이버폭력과 전통적 폭력 둘 다를 경험한 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해 자살시도 경험이 5.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영향

02.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 32

관계적 영향

-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은 **또래 및 사회관계, 부모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큼
(Devine et al., 2012)
- 학생들의 관계 형성을 저해하여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은 집단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거나, **소속감이 반감**될 가능성이 큼
(Williams et al., 2000)



슬라이드 #32


사이버폭력은 관계적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해 또래 및 사회관계와 부모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은 학생들의 관계 형성을 저해하여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정을 견고히 하는 학생들과 달리 온라인 상의 그룹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집단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거나 소속감이 반감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2.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 33

사이버폭력의 영향

신체적 영향

- 사이버폭력 피해 또는 가·피해를 중첩적으로 경험한 학생은 수면장애, 두통, 식욕 부진, 피부 질환 등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큼
(Sourander et al., 2010)



슬라이드 #33

마지막으로 사이버폭력의 피해는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며 신체적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사이버폭력 피해와 가해를 중첩적으로 경험한 학생은 수면장애, 두통, 식욕부진, 피부질환 등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2.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 34

사이버폭력과 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예방법')

- (15조) **학교장의 의무** :
 학기 별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학교폭력의 개념, 실태, 대처방안 등)을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실시
- (16조) **피해학생의 보호**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4. 학급교체
2. 일시보호	5. (삭제)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1호~9호 조치**

1. 서면 사과	4. 사회봉사	7. 학급교체
2.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5.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전학
3. 학교 봉사	6. 출석정지	9. 퇴학

슬라이드 #34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폭력 관련 법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입니다. 15조에서는 사이버폭력의 예방을 위해 학교장이 학기 별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실시할 것을 의무로 규정합니다. 16조에서는 사이버폭력의 피해학생으로 확인되면 심리상담, 일시 보호, 치료, 학급 교체 등 다양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해학생으로 확인되면 1~9호 조치 중 1가지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서면 사과부터 심하면 퇴학의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음이 17조에 나와 있습니다.

사이버폭력과 법

친구에게 욕설을 한 경우: 사이버폭력은 오프라인에 비해 더 큰 조치 부과

(출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준하여 작성됨)

오프라인 폭력 경우 가해학생기본판단요소판정점수						사이버폭력 경우 가해학생기본판단요소판정점수							
심각성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없음	판정 점수별 조치	심각성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없음	판정 점수별 조치
지속성	4	3	2	1	0	1~3점 1호서면사과 (필요시) 2호보복금지	지속성	4	3	2	1	0	1~3점 1호서면사과 (필요시) 2호보복금지
고의성	4	3	2	1	0	4~6점 3호학교봉사 7~9점 4호사회봉사 (필요시) 5호특별교육	고의성	4	3	2	1	0	4~6점 3호학교봉사 7~9점 4호사회봉사 (필요시) 5호특별교육
반성정도	*없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10~12점 6호출석정지 13~15점 7호학급교체	반성정도	*없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10~12점 6호출석정지 13~15점 7호학급교체
화해정도	*없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16~20점 8호전학 16~20점 9호퇴학처분	화해정도	*없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16~20점 8호전학 16~20점 9호퇴학처분

위원회 평균이 아닌 협의로 점수 산정-총 (5) 점 | (3)호 조치 위원회 평균이 아닌 협의로 점수 산정-총 (10) 점 | (6)호 조치, 5호병과

슬라이드 #35

같은 수준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여도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폭력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폭력에 비해 더 큰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처벌 수위를 정하기 위한 점수표의 예시입니다.

만약 친구에게 욕설을 한 경우,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모두에서 1점을 받는다면, 총 5점으로 3호 조치인 학교 봉사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수준의 욕설을 사이버공간에서 하게 되면 폭력의 위험수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SNS 공간에서 욕설을 했다면 이를 지켜보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면보다 심각한 폭력으로 평가되어 3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회적으로 욕설을 했다 할지라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반복 재생산되며 확산되기 때문에 지속성 측면에서도 2점으로 점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욕설 행위가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면 그 영향력을 알면서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의성 측면에서도 점수가 3점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10점이 되어 6호 조치인 출석정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이버폭력의 경우, 사이버 공간이 갖는 특징으로 인하여 오프라인 폭력에 비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준하여 작성됨

사이버폭력과 법

02.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 36

소년법

- **아동·청소년:** 만 10세 이상~19세 미만대상에 적용

-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 소년법으로 처벌 불가
- **촉법소년:** 만 10세~14세 미만, 보호처분 가능
- **범죄소년:** 만 14세~ 만 19세 미만,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

- **수위:** 1호 감호위탁~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슬라이드 #36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 법률입니다. 만 10세에서 14세 사이의 학생은 소년법에 적용을 받아 보호 처분만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폭력만으로도 소년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수위는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오프라인 폭력과 함께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모욕, 공갈, 협박 등이 발생했을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림 출처:

https://www.google.com/url?sa=i&url=https%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CMHwLxjRNMQ&psig=AOvVaw3GhGZ98ZNWXt9u2n9l_7FN&ust=1641000935885000&source=images&ccd=vfe&ved=0CAsQjRqxqFwoTCNjRpoLzjPUCFQAAAAAdAAAAABAD

사이버폭력과 법

02.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 37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스토킹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 **형법 및 관련 특별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대상
- **사이버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 **사이버 스토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정보통신망법
-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 **사이버 모욕:** 형법

출처: 윤해성(2009). 사이버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슬라이드 #37

사이버폭력의 경우,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스토킹처벌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이 적용됩니다.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021.10.21.시행)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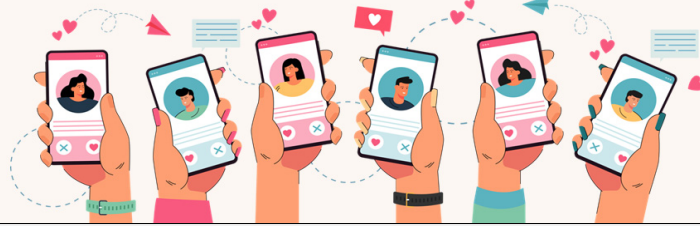
사이버 모욕은 형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과 별개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대상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상당부분 인정되면 학교장, 교사,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강화
교원 표준 연수 자료(심화)

0 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슬라이드 #38

세 번째 장에서는 사이버 예방교육 및 사이버폭력 예방 유형별 지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39

사이버어울림 기본(역량) 프로그램

- 대상 : 초등학교(저학년/고학년), 중등(중학교/고등학교)
- 차시 : 3권 24종 (각 2-3차시), 총 71차시
- 구성 : 사이버폭력 예방 8대 역량
 - 사이버 공감, 사이버 의사소통, 사이버 감정조절
 - 사이버 자기존중감, 사이버 상의 갈등 관리 및 문제해결
 -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처, 사이버 자기조절
 - 인터넷 윤리의식 및 활용



사이버어울림 기본(역량) 프로그램 (예)

역량	학교 급	프로그램 명	구성
사이버 공감	중등	넌 나와 같이 소중한!	너와 나의 연결고리 (1차시) → 입장 바꿔 생각해 봐 (2차시) → 난 너는 존중해 (3차시)

슬라이드 #39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개발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기존에 개발된 어울림 프로그램과 달리 사이버폭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예방역량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어울림 기본(역량)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그리고 중등용 프로그램의 3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존 어울림 프로그램의 6대 역량인 공감, 의사소통, 감정 조절, 자기존중감, 갈등해결,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를 사이버폭력 상황에 적용하여 사이버폭력 예방 8대 역량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40

사이버어울림 심층(유형) 프로그램

- 대상 : 초등학교, 중등(중학교/고등학교)
- 차시 : 2권 12종(각 2-3차시), 총 32차시
- 구성 : 사이버폭력 6가지 주요 유형
 -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영상 유포



사이버어울림 심층(유형) 프로그램 (예)

유형	학교 급	프로그램 명	구성
사이버 영상유포	초등	우리 자신을 지켜요	내가 인터넷에 올라왔다! (1차시) →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도와줄게 (2차시) → 사이버 불법영상 OUT! 우리 자신을 지켜요 (3차시)

슬라이드 #40

사이버어울림 심층(유형) 프로그램의 경우 초등학교용과 중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용 2권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각 프로그램은 2-3차시 모듈로 구성되며 전체 32차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청소년들이 관여하기 쉬운 사이버폭력과 자주 발생되거나 집중 교육이 필요한 사이버폭력의 신종 유형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사이버폭력 유형 중 사이버 영상 유포에 대한 프로그램의 경우는 예시와 같이 3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41

사이버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 대상 : 중학교, 고등학교
- 차시 : 16권 134종/ 1-5차시(총 339차시)
- 구성 : 교과별·학교급별로 제작한 중등학교 사이버어울림 기본(역량) 프로그램
 - 중학교(국어/도덕/사회/영어/기술·가정/체육/한문/진로와직업)
 - 고등학교(국어/윤리/통합사회/영어/기술·가정/체육/한문/진로와직업)



사이버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예)

과목	프로그램 명	성취기준	역량	차시명
국어(고)	내 안에 나 있다	[10국01-02]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한다.	사이버 자기조절 사이버 의사소통	1차시 : 의사소통 상황 알기, 나 알기 2차시 : 나를 알고, 바른말 사용하기

슬라이드 #41

최근에는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교과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 다양한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교과연계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개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과과정을 기본으로 해당 교과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제작되었으며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교과별 진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국어교과 연계 프로그램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국어시간에 사이버 자기조절과 사이버 의사소통 역량을 다루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지도안(예)

중학교-사회과4단원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차이와 차별

구분	내용
학습주제	• 사이버 공간에서의 차이와 차별 파악하기
학습목표	• 차이와 차별을 구분할 수 있다. •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이 경험한 차이와 차별을 파악할 수 있다.
도입	• 동영상 시청(EBS 지식채널 '차별의 발견') • 차이와 차별의 의미 구분하기
전개	• 사이버 공간에서 내가 경험한 차이 파악하기 •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되는 신조어 파악하기 • 사이버 공간에서 내가 경험한 차별 파악하기
정리	• 발표하기(자신이 경험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차별)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42

2차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차이와 차별	
학습주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차이와 차별 파악하기	차시	2/4
학습목표	• 차이와 차별을 구분할 수 있다. •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이 경험한 차이와 차별을 파악할 수 있다.		
사족 예방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상의 갈등 관리 및 문제해결	교과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학습자료	활동지 2-1 ~ 2-4		
단계	교수학습 방법	활용자료	
도입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 시청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 지식채널 '차별의 발견'을 함께 시청한다. -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3063219 - 동영상을 시청하여 학습지를 작성한다. ○ 차이와 차별의 의미 구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이는 '세로 길의 길고 짧은 것'을 의미하며, 차별은 '차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포스터를 통해 차이와 차별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적는다. 	활동지 2-1 2-2	
전개 (2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공간에서 내가 경험한 차이 파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간 온라인 게임과 활동 실례를 조사한다. - 온라인 게임의 중화, 가입과, 게시글 등 등을 파악한다. ○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하는 신조어 파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간 온라인 게임에서 자신과 부모님이 사용하는 신조어를 비교한다. - 신조어 외에도 세대 차이를 경험한 사례를 생각해 본다. ○ 사이버 공간에서 내가 경험한 차별 파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공간에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가족 상황,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여부, 학력, 용모 등 신체 조건, 피부 색 등으로 인해 차별받은 경험을 적는다. - 가급적 학교 안에서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꼭 다루고 한다. 	활동지 2-3 2-4	

슬라이드 #42

다음은 사이버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이 수업에서 적용되는 실제 지도안입니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43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활용의 실제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활용
- 모듈화된 차시 구성으로 상황을 고려한 **선택적·탄력적 운영** 가능
- 현장 **맞춤형 교육자료**(수업 지도안, 활동지, 참고 자료, 교사 Tips 등) 포함
- 기본(역량) & 심층(유형) **프로그램 상호 연계**를 통해 예방 교육의 시너지 효과 제고
-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 종합정보서비스(www.dorandoran.go.kr) 활용



|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갈등해결) 활동 장면

슬라이드 #43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데 매우 적합합니다. 우선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역량 또는 유형별로 프로그램이 모듈화 되어 있어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적,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실효성이 높으며 역량에 초점을 둔 기본 프로그램과 유형에 초점을 둔 심층 프로그램이 상호 연계되어 있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관련 자료는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 종합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http://www.grinews.co.kr/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18240 고령인터넷뉴스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갈등 해결) 운영 - 사이버 공간에서도 역지사지 자세를 배우다

사이버폭력 징후 발견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44

사이버폭력 징후

-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며 **긴장하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임
- 온라인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피함
- 또래나 가까운 사람들로 부터 소외됨
- 등교를 거부하거나 학교생활 및 학업에 어려움을 보임
- 식욕을 잃거나 체중이 증가 또는 감소하며, 수면 장애 등 건강상의 문제를 자주 보임



슬라이드 #44

사이버폭력 피해 징후를 발견하는 것은 빠른 개입과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사이버폭력 징후를 숙지하여 학생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피해를 암시하는 신호는 먼저, 학생이 문자나 SNS 메시지 등을 자주 확인하며 유독 긴장하거나 불안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회피하거나 또래나 가까운 사람들로 부터 점차 소외되는 모습이 해당됩니다. 등교를 거부하거나 학교에서 피곤한 모습을 보이고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등 학교생활 및 학업에 어려움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식욕을 잃거나 체중이 감소하며 건강상의 문제를 자주 보이기도 합니다.

사이버폭력 징후 발견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45

사이버폭력 징후

-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옴
- SNS의 게시물 분위기가 어둡거나 우울함
- SNS 계정을 갑작스럽게 삭제함
- SNS에서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당하거나 이름 대신 욕설로 불림
- 자해 혹은 자살, 복수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함



슬라이드 #45

한편,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것은 사이버 갈취와 관련된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드러나는 징후도 있습니다. SNS 게시물의 분위기가 이전과는 달리 우울하거나 어둡고 SNS 계정을 갑작스럽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SNS에서 특정 학생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당하거나 이름 대신 욕설로 불리는 것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학생이 자해 혹은 자살, 복수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즉각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위험한 징후이므로 관련 징후가 발견됐다면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이버폭력 예방 지도 방법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46

지도방법

정기적으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및 위험성, 온라인 활동, 개인정보 보호 방법 등
사이버폭력에 대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고민이나 피해 사실 확인 등 학생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상담함

정보통신기기의 올바른 사용법,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감, 사이버폭력 발생 시 신고 방법 등
사이버폭력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함

슬라이드 #46

사이버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지도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기적으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과 위험성, 각자의 온라인 활동,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 등과 같은 사이버폭력에 대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생의 온라인 활동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잘 드러나지 않는 고민이나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하고, 학생과 면담하여 학생의 온라인 활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는 모니터링과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해당 학부모에게 알리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 교사는 정보통신기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교육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감 및 사이버폭력 발생 시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여 학생들이 사이버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사이버폭력 유형별 지도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47

공통적인 지도 방법

-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우선임을 명심함
- 피해 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캡처 및 수집 후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함
- 교사와 학부모 등 주변 어른들은 무조건적으로 피해학생을 **보호 하고 지지**할 것임을 평상시 학생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킴
- 피해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스러워할 수 있으므로 상담센터나 상담교사와 연계하여 피해학생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사이버폭력이 오프라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직접 만나지 않도록** 주의시킴



슬라이드 #47

사이버폭력의 유형별 대응방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모든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공통적인 대응방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는 무엇보다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우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이 폭력에 대해 감정적으로 맞대응 하거나 피해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캡처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교사나 부모 등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피해학생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평소 주변 어른들이 무조건적으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지지할 것임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피해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할 수 있으므로 상담센터나 상담교사와 연계하여 피해학생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폭력이 오프라인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직접 대면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시킵니다.

사이버폭력 유형별 지도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48

사이버 명예훼손

1. 사례 (대전일보, 2020.8.4; 중앙일보, 2020.10.31 참고)

- 전학을 온 중학생 A양은 **익명**으로 질문을 올리고 답을 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림. 그러자 이 학생을 알아본 이전 학교의 학생들은 A양이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을 포함하여 **과거 사실을 폭로**하는 댓글을 달. 얼마 지나지 않아 A양을 **전혀 모르는 학생들**까지 몰려와 2차 가해 및 인신공격 성격의 무차별적인 욕설이 댓글 창에 난무함. 결국 A양의 실명, 나이, 가족관계, 집 주소 등 **신상정보까지 온라인에 공개**됨



슬라이드 #48

사이버폭력의 각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전학을 온 중학생 A양은 익명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을 알아본 이전 학교의 학생들은 A양이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을 포함하여 사실과 관계없이 각종 과거 사실을 폭로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양을 전혀 모르는 학생들까지 몰려와 2차 가해 및 인신공격 성격의 무차별적인 욕설이 댓글 창에 난무했습니다. 결국 A양의 실명, 나이, 가족관계, 집 주소 등 신상정보까지 온라인에 공개되었습니다.

사이버폭력 유형별 지도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49

사이버 명예훼손

2. 사례의 위험성

- 과거 피해 사실이 공개되어 이에 대해 2차 가해성 댓글이 달려 피해학생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큼
- 익명성으로 인해 동조가 쉬워 가해학생의 구성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됨

3. 대응방법

- 피해학생에게 관련 게시물에 대해 정보 삭제나 반론 게재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함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 나르며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함

슬라이드 #49

이 사례는 특히 피해학생의 과거 성폭력 피해 사실이 공개되며 이에 대해 2차 가해성 댓글이 달렸다는 점에서 피해학생에게는 더욱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익명성에 기반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이므로 동조가 더욱 쉬워 피해학생을 전혀 모르는 학생들까지 가해행동에 동참하는 등 가해학생의 구성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사는 유포된 게시물에 대해 피해학생이 삭제 및 반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또한, 평상시 학생들에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온라인에서 퍼 나르며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처벌될 수 있는 행동임을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유형별 지도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50

사이버 언어폭력



1. 사례 (조선비즈, 2022.6.7 참고)

- 익명 소통 SNS가 사이버학교폭력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는 익명 계정을 통해서도 질문을 하거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SNS다. 학생들 사이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으나, 곧 **익명성**을 악용한 **언어폭력**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앱을 통해 '뒤져라' 등 **욕과 성희롱** 메시지를 받고 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슬라이드 #50

다음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입니다.

익명 소통 SNS가 사이버학교폭력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SNS는 익명 계정을 통해 서로 질문을 하거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데, 익명성을 악용한 언어폭력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앱을 통해 뒤져라 등 욕과 성희롱 메시지를 받고 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폭력 유형별 지도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51

사이버 언어폭력

2. 사례의 위험성

- 학생들은 사이버 언어폭력이 엄연한 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마치 장난처럼 가볍게 여김
- 사진과 동영상을 합성하는 경우 자칫하면 사이버 영상유포 또는 사이버 성폭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

3. 대응방법

- 익명으로 활동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이버 언어폭력 및 모욕의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경고함
- 게시물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확대재생산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킴

슬라이드 #51

이와 같은 사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이버 언어폭력의 사례는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이 엄연한 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마치 장난처럼 가볍게 여긴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을 보입니다. 또한, 소개된 사례에서는 사진을 합성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자칫하면 사이버 영상유포 또는 사이버 성폭력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욱 위험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평소 익명으로 활동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이버 언어폭력 및 모욕의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더불어 게시물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확대재생산 될 수 있어 사이버 언어폭력의 부정적 영향이 심각함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킵니다.

사이버폭력 유형별 지도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52

사이버 영상 유포



1. 사례 (SBS8시뉴스, 2019.6.8참고)

- 남학생들만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 학생들이 자신의 여자 친구 혹은 아는 여학생의 **사진 및 영상을 무단으로 올림**. 다른 학생들은 올라온 게시물 속의 여학생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 비하 발언**을 함. 심한 경우 다른 **음란물과 악의적으로 합성하여 유포**하기도 함. 고등학생 B양은 자신이 이와 같은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까지** 또래 사이에도 퍼지는 것을 알게 되자 정신적 충격에 빠짐.



슬라이드 #52

다음으로 사이버 영상 유포입니다. 남학생들만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 학생들이 자신의 여자 친구 혹은 아는 여학생의 사진 또는 영상을 동의 없이 올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들은 올라온 게시물 속의 여학생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 비하 발언을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심한 경우 해당 게시물을 다른 음란물과 악의적으로 합성·유포하여 사이버 성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등학생 B양은 자신이 이와 같은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학교에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까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이버폭력 유형별 지도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53

사이버 영상 유포

2. 사례의 위험성

- 악의적으로 합성된 사진과 영상물이 온라인에 유포되면 다양한 경로로 이동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방법으로 공유를 차단하고 통제하기 어려움
- 합성 후 유포된 사진과 영상물을 바탕으로 특정 피해학생에 대한 거짓 소문까지 떠돌

3. 대응방법

- 피해학생은 관련 게시물에 대해 정보 삭제나 반론 게재를 요청할 권리를 가짐을 안내함
- 사이버 영상 유포를 목격한 학생들이 피해학생에 대해 낙인을 찍거나 피해 사실과 관련된 소문을 만들어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시킴

슬라이드 #53

악의적으로 합성된 사진과 영상물이 온라인에 유포되었다면 다양한 경로로 이동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방법으로 공유를 차단하고 통제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사례처럼 이와 같은 사진과 영상물을 접한 또래 학생들이 특정 피해학생에 대한 좋지 않은 거짓 소문까지 만들어 내었고, 이 모든 것을 피해학생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피해학생에게 가해진 정신적 충격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사이버 영상 유포 발생 시 특히나 교사는 피해학생의 보호가 우선임을 명심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관련 게시물 모두에 대해 정보 삭제 또는 반론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안내합니다. 또한,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사이버 영상 유포를 목격한 다른 학생들이 피해학생에 대해 낙인을 찍거나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왜곡된 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시켜야 합니다.

사이버폭력 유형별 지도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54

사이버 스토킹



1. 사례 (아시아경제, 2018.4.26 참고)

- 고등학생 B군은 SNS에 게시된 중학생 C양의 사진을 보고 **관심이 있다**며 익명으로 SNS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에 댓글을 달기 시작함. B군은 C양에게 “우리 언제 볼 수 있는 거야”, “왜 연락 안 받아. 죽고 싶냐? 밤길 조심해라”와 같은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보냄**. 이윽고 그는 C양의 실명, 나이, 학교, 가족관계 등의 **개인 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바탕으로 수시로 만남을 요구하며 협박



슬라이드 #54

다음은 사이버 스토킹입니다. 고등학생 B군은 SNS에 게시된 중학생 C양의 사진을 보고 관심이 있다며 익명으로 SNS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에 댓글을 달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B군은 C양에게 “우리 언제 볼 수 있는 거야”, “왜 연락 안 받아. 죽고 싶냐? 밤길 조심해라”와 같은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이윽고 그는 C양의 실명, 나이, 학교,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이를 바탕으로 수시로 만남을 요구하며 C양을 협박하였습니다.

사이버폭력 유형별 지도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55

사이버 스토킹

2. 사례의 위험성

-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가족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음
- 피해학생의 개인 정보가 또 다른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

3. 대응방법

- 대부분의 피해학생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으므로 보호 조치를 취함
- 사이버 스토킹은 관심의 표현이 아닌 폭력이며 처벌의 대상임을 학생들에게 경고함

슬라이드 #55

이와 같은 경우,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가족 모두는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어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피해학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낸 경우 가해학생은 이를 또 다른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의 피해학생은 대부분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 있으므로 교사는 학부모, 학교 등과 협력하여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이와 더불어 평소 사이버 스토킹은 관심의 표현이 아닌 엄연한 폭력이며 처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학생들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이버폭력 유형별 지도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56

사이버 따돌림



1. 사례 (아시아경제, 2021.1.25; 연합뉴스, 2020.4.5; SBS 8시 뉴스, 2018.9.12 참고)

- SNS에서 특정 연예인인 척 연기를 하며 교류하는 '멤버 놀이'를 즐기던 무리 중에서 고등학생 D양이 나머지 학생들과 사소한 이유로 다툼. 그러자 **함께 어울리던 학생들은 SNS 상태 메시지**를 통해 **D양을 저격하거나 비하**하기 시작함. 또한, 학생들이 D양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여 D양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쏟아낸 후 갑자기 **D양만을 남겨 놓고 대화방을 나감**. 이러한 일이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자 D양은 자살 시도까지 한 것으로 밝혀짐.



슬라이드 #56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 최근 멤버 놀이와 방콕과 같은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면서 그 양상이 더욱 진화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특정 연예인인 척 연기를 하며 교류를 하는 '멤버놀이'를 즐기던 무리 중에서 고등학생 D양이 무리의 나머지 학생들과 사소한 이유로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함께 어울리던 학생들이 SNS의 상태 메시지를 통해 D양을 저격하거나 비하하기 시작하였고 D양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여 일방적으로 욕설을 쏟아낸 후 갑자기 D양만을 남겨 놓고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D양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토로하였습니다.

사이버폭력 유형별 지도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57

사이버 따돌림

2. 사례의 위험성

-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발생하여 피해학생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큼
- 최근에는 특정 학생을 따돌리는 단체 대화방 링크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 가해 및 동조자가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해짐

3. 대응방법

- SNS에서는 가해학생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을 안내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접속하지 않도록 경고함

슬라이드 #57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따돌림은 피해학생에게 매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사례 속의 피해학생의 경우 자살을 시도하였을 정도로 사이버 따돌림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특정 학생을 따돌리는 단체 대화방 링크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기도 하여 가해 및 동조자가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따돌림 피해를 입은 경우 교사는 SNS에서는 가해학생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을 안내하고 학생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링크를 통해 사이버 따돌림이 발생하는 공간에 가해 혹은 피해학생으로서 초대될 수 있으므로 평소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접속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이버폭력 유형별 지도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58

사이버 갈취



1. 사례 (시빅뉴스, 2018.4.19참고)

- 학교에 와이파이망이 없으니 같은 반 학생이 자신의 데이터를 아끼기 위해 중학생 C군에게 **와이파이 셔틀**을 강요함. 처음에는 C군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학생은 해당 가해학생 한 명이었지만 **점차 같은 반 학생 모두**가 자연스럽게 C군의 데이터를 함께 이용하기 시작함. 이로 인해 C군은 **데이터 이용료가 한 달에 24만원 가량** 나왔으며, 가해학생의 집요한 요구로 결국 **무제한 요금제**로 휴대폰 요금제를 변경함.



슬라이드 #58

최근 새로운 사이버폭력의 유형으로 사이버 갈취에 대한 사례는 기프트콘 셔틀, 게임 아이템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각종 셔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와이파이 셔틀과 관련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학교에 와이파이망이 없으니 같은 반 학생이 자신의 데이터를 아끼기 위해 중학생 C군에게 와이파이 셔틀을 강요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학생만이 C군의 데이터를 이용하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차 같은 반 학생 모두가 C군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C군은 데이터 이용료가 한 달에 24만 원가량 나왔으며 가해학생의 집요한 요구로 결국 무제한 요금제로 휴대폰 요금제를 변경하였습니다.

사이버폭력 유형별 지도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59

사이버 갈취

2. 사례의 위험성

- 실제 갈취한 금액이 상당함
- 죄책감이 덜하기 때문에 가해학생의 범위가 개인에서 집단으로 점차 커짐

3. 대응방법

- 갈취와 관련된 협박 문자를 받았다면 우선 해당 가해학생을 차단하도록 함
- 사이버 공간에서만 가치 있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이에 대한 갈취는 처벌 가능한 행위임을 인식시킴

슬라이드 #59

이 사례에서는 데이터 사용료가 한 달에 24만 원가량 나왔으며 결국 데이터 요금제를 무제한 요금제로 바꾸었기 때문에 실제 피해 금액이 상당합니다. 또한, 데이터는 눈에 보이는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가해학생은 죄책감을 덜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사례 속에서 한 명이었던 가해학생은 결국 학급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갈취와 관련된 협박 문자를 받았다면 피해학생에게 우선 해당 가해학생을 차단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또한, 평소 학생들에게 사이버 공간에서만 값어치 있는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이를 갈취하는 것은 처벌 가능한 행위임을 명확하게 인식시킵니다.


사이버폭력 유형별 지도


사이버 강요

1. 사례 (조선일보, 2014.9.30참고)

- 중학생 D군은 수업이 끝나면 하루 종일 게임을 해야 한다고 토로함. 같은 반 일진이 자신의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특정 수준까지 올려놓으라고 강요**했기 때문임. 해당 가해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수준만큼 D군이 캐릭터의 레벨을 올리지 못하면 등교 후 학교에서, 혹은 D군의 집 근처를 직접 찾아가 D군에게 **신체적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밝혀짐.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60





슬라이드 #60

마지막으로, 사이버 강요입니다. 중학생 D군은 수업이 끝나면 하루 종일 게임을 해야 한다고 토로하였습니다. 같은 반 일진이 자신의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특정 수준까지 올려놓으라고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가해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수준만큼 D군이 캐릭터의 레벨을 올리지 못하면 등교 후 학교나 혹은 D군의 집 근처를 직접 찾아가 D군에게 신체적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이버폭력 유형별 지도

사이버 강요

2. 사례의 위험성

- 피해학생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요의 정도가 심각함
- 신체적 폭력과 같은 전통적 학교폭력이 사이버 강요와 함께 발생함

3. 대응방법

-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 받았다면 이에 부응하지 않고 해당 가해학생을 차단하게 함
- 신체 폭행과 같은 오프라인에서의 학교폭력이 함께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함

03. 사이버폭력의 예방교육 및 지도 |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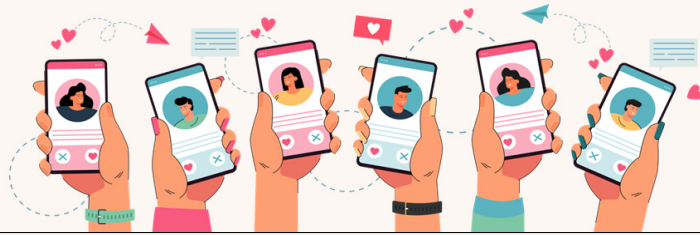
슬라이드 #61

이와 같은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 후 일반적인 일상생활은 불가능하며 오로지 게임에만 매진해야 하기 때문에 강요의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또한, 소개된 사례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이버 강요는 신체적 폭력과 같은 전통적 학교폭력과 함께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자나 채팅을 통해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 받았다면 이에 부응하지 않고 우선 해당 가해학생을 차단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이버 강요는 오프라인에서의 전통적 학교폭력과 함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체 폭행 등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확인합니다.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강화
교원 표준 연수 자료(심화)

04

학생 상담 및 관계회복



슬라이드 #62

네 번째 장에서는 학생 상담 및 관계회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상담

04. 학생 상담 및 관계회복 | 63

불안 줄이기

- 사이버 공간에서 갖는 **불안이나 두려움 탐색**
 - ✓ 온라인 공간의 특정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이나 두려움 탐색하기
- **불안 조절을 위한 이완훈련**
 - ✓ 온라인 공간의 특정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이나 두려움 탐색하기

우울 줄이기

- **우울 증상 이해하기**
 - ✓ 두통, 복통 등 신체화 증상, 무기력, 주의산만 등
- 사이버 상에서 우울을 일으키는 **사고 오류 확인하기**
 - ✓ 과잉 일반화(계속 피해를 당할거야), 파국화(내 인생 망했어) 등

슬라이드 #63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상담의 접근은 피해학생의 심리적 충격을 회복하는 접근과 피해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2가지 방향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사이버폭력의 피해로 인한 피해학생의 심리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불안과 우울을 줄이는 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어떠한 특정 상황에서 불안이나 두려움을 자주 느끼는지 탐색하도록 하며 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이완훈련을 익히도록 합니다. 이후, 사이버 상에서 우울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상담합니다. 피해학생의 높아진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 먼저 다양한 우울의 증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비전형적인 우울 증상으로 신체화 증상이나 무기력, 주의 집중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우울을 유발하는 사고 오류를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믿는 과잉 일반화 또는 자신의 인생은 망했다고 여기는 파국적인 생각 등을 바로잡아주어야 합니다.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상담

04. 학생 상담 및 관계회복 | 64

자존감 향상하기

- 나의 자존감 **탐색하기**
 - ✓ 장점을 발견하고 단점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전환하기
- 사이버 공간에서 **자존감 높이기**
 - ✓ 긍정특과 SNS 긍정 댓글을 통해 자신의 긍정성 높이기

자기주장성 강화하기

- 사이버 상에서 **바람직한 주장 행동 이해하기**
 - ✓ 적절한 주장행동의 필요성과 장점 파악하기
- 사이버 상에서 **자기주장이 어려운 상황 파악하기**
 - ✓ 주장 행동이 어려운 상황의 대처방법 설명하기

슬라이드 #64


피해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은 피해학생의 자존감과 자기주장성, 그리고 사회성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피해학생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선 자신의 자존감을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어 자신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특이나 SNS를 통해 긍정 댓글과 긍정 피드백을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에 취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상에서 바람직한 자기주장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주장 행동의 필요성과 장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특히 자기주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지 상황별 대처법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상담

04. 학생 상담 및 관계회복 | 65

사회성 기술 향상하기

- 사이버 공간에서 **관계 맺는 방법 연습하기**
- 온라인에서 타인의 글에 선플 달고 고민이 있는 친구에게 위로 메시지 보내기



슬라이드 #65

마지막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사회성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관계 맺는 방법을 연습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만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선플과 같이 타인을 칭찬하는 기술을 연습해 보도록 합니다. 경우에 따라 친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며 온라인 상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지도

04. 학생 상담 및 관계회복 | 66

공격성과 분노 조절하기

어떤 맥락과 상황, 자극이 공격성을 높이는지, 탐색, 파악하여 공격성과 분노를 촉발하는 요인 제거하기

공격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대체하기 등 공격적이지 않은 대안 행동으로 연습하기

심호흡, 근육이완, 혼잣말 훈련 등 분노 상황에서 대처 방법 알려주기

슬라이드 #66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을 지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공격성과 분노 조절입니다. 사이버폭력과 공격성 및 분노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공격성과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제 공격적인 행동을 하며 화내는지 그 촉발요인을 파악하여 제거해야 합니다. 특정 맥락과 상황에서 공격성이 나타나고 화가 발생한다면 그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후 공격적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행동을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을 놀렸다면 바로 보복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화가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스스로 화를 조절할 수 있는지 대처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호흡을 하거나, 주먹을 강하게 쥐며 근육을 이완하는 방법, 또는 속으로 스스로를 달래는 혼잣말 훈련을 통해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지도

04. 학생 상담 및 관계회복 | 67

공감 능력 향상하기

사이버 공간에서 역지사지의 관점으로 피해학생의 입장 되어보기 등을 통해 타인의 입장 이해하기

피해학생의 감정 탐색하고 느끼기 등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감정 느끼기



슬라이드 #67

사이버폭력의 가해 학생은 대체로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역지사지의 관점으로 피해학생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은 피해학생에 대한 공감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감정을 직접 느끼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폭력 상황에서 피해학생이 느꼈을 감정을 탐색하고 이를 느껴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사이버폭력 관계회복

04. 학생 상담 및 관계회복 | 68

필요성

- 2020년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학교장 자체 해결제 도입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회복적 접근**이 시도되어 필요한 경우 각종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목표

- 사이버폭력 상황 시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함
-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함

슬라이드 #68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응보적 접근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20년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를 회복하는 개입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관련 학생의 관계 회복 목표는 사이버폭력이 발생한 상황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여 궁극적으로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이버폭력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사이버폭력 관계회복

04. 학생 상담 및 관계회복 | 69

사이버폭력 상황에 대한 탐색

-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이 갈등 유발 사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해당 사건이 사이버폭력에 해당함을 인식함
- 사이버폭력의 특징을 살펴보고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사건이 어떤 점에서 심각한지를 생각해 보도록 함



슬라이드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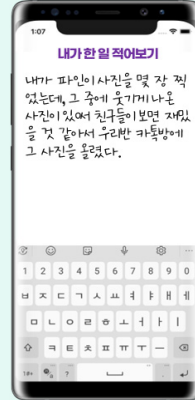
사이버폭력 관계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사이버폭력 상황에 대한 탐색이 필요합니다.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이 자신들이 경험한 갈등 유발 사건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며 해당 사건이 사이버폭력에 해당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사이버폭력의 특징을 살펴보고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사건이 어떤 점에서 심각한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사이버폭력 관계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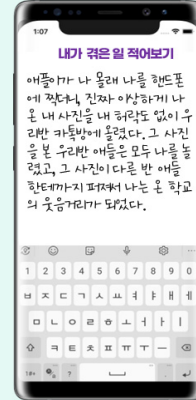
04. 학생 상담 및 관계회복 | 70

사이버폭력 상황에서 상대방의 관점 이해

- 가해학생은 자신이 한 행동을 적고 피해학생은 자신이 경험한 피해를 적어 함께 이야기함
- 두 학생이 인식하는 피해의 정도가 다를 경우,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가해학생



피해학생

슬라이드 #70

또한 사이버폭력 상황에서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자신이 생각하는 상황에 대해 적어보도록 합니다.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며, 두 학생이 인식하는 피해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림 출처: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푸른나무재단 (2020).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중등용). 세종: 교육부.

사이버폭력 관계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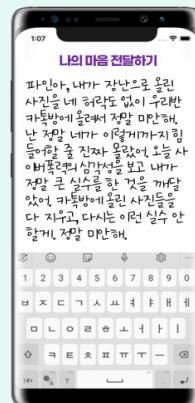
04. 학생 상담 및 관계회복 | 71

사이버폭력의 특징과 심각성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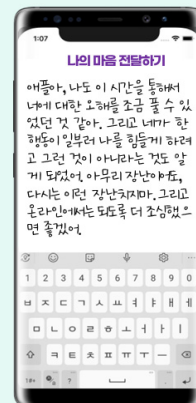
- 사이버폭력의 특징과가해 및 피해학생이 경험한 사례를 관련해 피해의 심각성을 이해함
- 충분한 대화시간을 통해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 학생의 분노 해소를 도움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갈등 해결

-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사과 및 용서가 이루어진 후에는 편지 등을 통해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함
- 편지의 경우 서로에게 읽어주고, 상대의 편지내용을 들은 후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충분히 이야기함



가해학생



피해학생

슬라이드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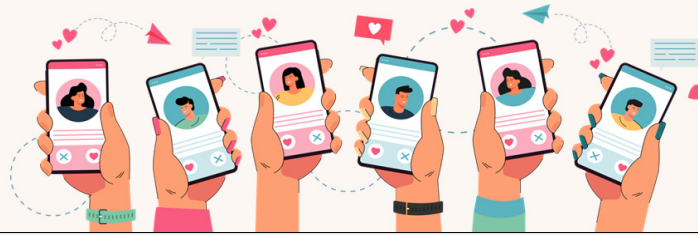
사이버폭력의 특징과 심각성을 이해할 때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경험한 사례와 관련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 때 충분한 대화시간을 가짐으로써 가해학생에게는 이해를 통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학생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분노 해소를 도울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으로 발생한 오해가 풀리고 진정한 사과와 용서가 이루어진 후에는 그림과 같이 진심을 담아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림 출처: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푸른나무재단 (2020).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중등용). 세종: 교육부.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강화
교원 표준 연수 자료(심화)

05

학부모 지원



슬라이드 #72

마지막 장에서는 학부모 지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폭력 학부모 지원

05. 학부모 지원 | 73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역할

자녀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평소 대화에서 사이버폭력의 위험성을 언급하기

학부모 스스로 모범적인 온라인 행동 실천을 통해 자녀의 올바른 행동 습관 기르기

온라인 사용 규칙 만들기, 온라인 취미활동 공유 등 가족 내 긍정적인 사용 문화 형성하기

슬라이드 #73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학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부모가 가정에서 사이버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평소 자녀와의 대화에서 사이버폭력의 위험성을 언급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 위험을 판단하는 미디어 소양을 자녀가 함양하도록 안내합니다. 학부모는 매우 중요한 롤 모델입니다. 따라서 학부모 스스로 온라인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하도록 자문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바른 온라인 행동을 학습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가족 내에서 긍정적인 온라인 사용 문화를 만들도록 권유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사용 규칙을 함께 만들거나, 온라인 취미활동을 공유하여 건강한 온라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사이버폭력 학부모 지원

05. 학부모 지원 | 74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앱(APP)

- 방송통신위원회(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몰입과 역기능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심존 SW'와 사이버 언어폭력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스마트안심드림 SW'를 무료 보급하고 있음

사이버안심존 홈페이지(www.사이버안심존.kr)

온라인교육사이트(https://edu.moiba.or.kr)

슬라이드 #74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과 유해 매체물, 인터넷 중독 등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앱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이러한 앱을 학부모에게 소개함으로써 가정에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몰입과 역기능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심존SW'와 사이버 언어폭력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스마트안심드림SW'를 무료 보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학부모 지원

05. 학부모 지원 | 75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앱(APP)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과 계약 체결 시, 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해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수단을 제공하도록 명시
- 국내 이동통신 3사는 관련 앱(부가서비스)을 제공하고 있음



슬라이드 #75

2015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9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해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수단을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이동통신 3사에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앱과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 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학부모 지원

05. 학부모 지원 | 76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학부모 역할

- 자녀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침착하게 반응하며 공감과 적극적인 경청으로 대화함
- 자녀의 보복 행동을 방지하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 기록 및 증거를 확보함
- 학교 및 전문 기관을 통해 사안처리 또는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함



슬라이드 #76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한 피해학생 학부모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의 피해 사실로 걱정되고 불안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당사자인 자녀가 가장 힘들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침착하게 공감과 적극적인 경청으로 대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자녀의 보복 행동을 방지하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기록하며,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학교 및 전문 기관을 통해 사이버폭력 사안 처리 또는 사이버폭력 신고와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등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사이버폭력 학부모 지원

05. 학부모 지원 | 77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을 위한 학부모 역할

- 가해 행동에 대한 자녀의 감정 및 동기를 탐색하고, 사이버폭력의 영향에 대해 설명함
- 자녀의 온라인 행동을 모니터링하여 후속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함
- 학교 및 전문 기관을 통해 가해 행동의 동기, 법적 분쟁 등의 문제를 위한 교육,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함



슬라이드 #77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해서는 가해학생 학부모의 태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화를 내고 꾸짖는 등의 감정적 반응보다 대화를 통해 가해 행동에 대한 자녀의 감정과 동기를 탐색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심각성 및 영향에 대해 설명하여, 피해학생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과 등의 적절한 대처를 위해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자녀의 행동을 주시하며 후속적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안내하고, 학교 및 전문 기관을 통해 온라인 중독 및 분노와 같은 가해 행동의 동기와 법적 분쟁 등의 문제를 위한 교육, 상담 및 자문을 구하도록 돕습니다.

도전 vs 응전

05. 학부모 지원 | 78

- 사이버폭력은 빠르게 진화하여 교사에게 큰 **도전** 요소로 작용
- 교사는 사이버폭력의 **대응역량**을 신장시켜 **응전**해야 함
 - ✓ 사이버 폭력에 대한 민감한 **인식**
 - ✓ 사이버 폭력에 대한 **지식** 업데이트
 - ✓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처 **기술** 향상



슬라이드 #78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사이버폭력은 빠르게 변화하며, 증가하고, 다양화되어 교사에게는 큰 도전 요소로 작용합니다. 교사는 사이버폭력의 대응역량을 신장시켜 사이버폭력의 위협에 응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폭력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사이버폭력에 대한 지식을 업데이트하며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처 기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사의 대응역량이 사이버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 고 문 헌

- 강은희, 이은희, 임은정 (2002). 집단따돌림 행동유형과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45-460.
- 교육부 (2021). [카드뉴스] 디지털 세대에게 필요한 통찰력 여기 있소!. 교육부.
-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9). 2019년 학교 사이버폭력 예방 Wee센터 역량강화 직무연수 자료집.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2020년 사이버폭력 예방역량 강화를 위한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직무연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1). 2021년 사이버폭력 예방역량 강화를 위한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직무연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푸른나무재단 (2020a).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 (중등용). 교육부.
-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푸른나무재단 (2020b).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 (초등용). 교육부.
- 교육부, 전라남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9).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연수·워크숍 자료집.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교육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1).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예방연구소.
-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9). 청소년 사이버폭력 양상 및 예방에 관한 분석 연구. 연구보고 CR 2019-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권문자 (2014). 청소년의 사이버불링과 우울 및 자살사고와의 관계 (석사학위,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 김경은 (2012).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과 사이버폭력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9(4), 51-73.
- 김경은 (2013). 가정폭력경험과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관계에서 학교폭

- 력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8(1), 5-30.
- 김경희, 김수아, 김은경 (2020). 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다면적 이해와 정책 시사점. *이화젠더법학*, 12(2), 257-289.
- 김교현, 왕소정 (2000). 학부모와 교사가 지각하는 집단따돌림 현상의 원인과 대책 및 배척받는 아동의 심리적 특성. *학교생활 연구*, 27, 85-107.
- 김도희 (2021). 대학생의 사이버폭력 목격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에서 사건중심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봉섭, 김세진, 김의성, 김혜영, 박선아, 서미, 신주식, 천미아, 허혜정, 최성보 (2018). 학교 폭력 예방 및 학생생활의 이해: 사이버폭력 예방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사*.
- 김승혜, 김영미, 최희영 (2021). 장난이 폭력이 되는 순간: 달라진 세상에서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현명한 학교폭력 대응 노하우. *담담*.
- 김영은, 오인수, 송지연. (2019). 전통적 괴롭힘과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의 방어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교육과학연구*, 50(4), 31-55.
- 김은경 (2012).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박사학위, 명지대학교 대학원).
- 김재엽, 남석인, 최선아 (2009). 기혼 직장여성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의 관계: TSL대처방식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2, 275-308.
- 김재엽, 이근영 (2010).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5), 121-149.
- 김재엽, 최윤희, 장대연 (2019). 청소년의 온라인·오프라인 중복지학교폭력피해경험이 자살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간 긍정적 의사소통(TSL)의 조절효과 검증. *학교사회복지*, 45, 107-133.
- 김종길 (2013).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과 학업스트레스가 사이버 불링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9(1), 47-68.
- 김현동, 송병호 (2013). 사이버 불링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9(3), 87-111.
- 두경희 (2015).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정서적, 인지적 경험 및 대처행동. *청소년학연구*, 22(11), 81-109.
- 두경희, 김계현, 정여주 (2012). 사이버폭력 연구의 동향과 과제: 사이버폭력의

- 정의 및 유형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4), 1581-1607.
- 모정은, 오인수, 김연희 (2014). 초등학생의 사이버 괴롭힘 가해 위험요인 검사 문항 개발 및 타당화. 초등교육연구, 27(4), 131-155.
- 문동규, 김영희 (2011).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유발변인의 메타회귀분석. 상담학연구, 12(3), 945-964.
- 민대기, 최미경 (2016). 아동·청소년기 여학생의 가정 및 학교 폭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혼합모형을 이용한 종단자료 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7(1), 101-110.
- 박병금 (2007).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505-522.
- 박선아, 이인재, 김봉제, 안인옥 (2019). 청소년 사이버폭력 양상 및 예방에 관한 분석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박선희, 박현주 (2009).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진로결정수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6(1), 67-81.
- 박성훈, 심현정 (2015). SNS에서 청소년 사이버불링의 특징 및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1), 155-185.
- 박수정, 김도연 (2014).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또래괴롭힘 예방프로그램의 효과: 자기주장훈련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47, 69-91.
- 박재연 (2009).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구조적 관계 검증: 보호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10), 249-272.
- 박종효 (2003). 공격적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문제행동. 교육학연구, 41(3), 423-449.
- 박춘화 (2019).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에 관한 법적 연구 (박사학위, 동아대학교 대학원).
- 방송통신위원회 (2017a). 우리아이 스마트폰, PC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 지도를 위한 가이드북.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2017b). 2017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2021).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 자료. 방

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1). 2021 자살예방백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서경원 (2006). 사이버폭력의 실태 및 대응방안. 법학연구, 9(2), 201-228.

서봉언 (2016).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2(3), 211-233.

서화원, 조운오 (2013). 사이버불링 피해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10(4), 111-131.

선미정, 전종철 (2021). 취약계층 초기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폭력의 구조적 관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또래동조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10), 215-246.

성동규, 김도희, 이윤석, 임성원 (2006).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성향,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윤리의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9(1), 79-129.

손민지 (2013). 국내 사이버폭력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손한결, 김은혜 (2021).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자퇴충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의 다중매개효과: 청소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16(3), 225-232.

신나민, 안화실 (2013). 청소년 사이버폭력 현황 및 피해·가해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26(4), 1-21.

신성자 (2005). 학원폭력 가해, 피해 그리고 대응관련요인. 사회과학, 17, 111-142.

신혜섭 (2005).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가해경험, 피해경험, 가해·피해 중복경험에 대한 분석. 청소년학연구, 12(4), 123-149.

심홍진, 한은영, 박병선, 박남기 (2014).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동기와 통제 요인에 관한 연구: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안성진, 이창호, 조운오, 오인수, 김봉섭, 김경희, 이승하, 진달용, 임상수, 최숙영, 이원상, 이유미, 신나민 (2015). 사이버불링의 이해와 대책. 교육과학사.

안은영 (2020). SNS 이용이 청소년의 교우 관계에 미치는 영향 -SNS 중독과 사이버폭력 또는 사이버불링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경영연구, 7(2), 257-273.

-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안전행정부 (2014). 우리아이 스마트폰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하기. 안전행정부.
- 양동철 (2006). 사이버폭력에 대한 입법방향 연구. 법조, 55(9), 134-173.
- 양영미, 이선영 (2021). 부모학대 및 사이버폭력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6(2), 25-43.
- 오세연, 광영길 (2013). 사이버 불링을 통한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0(3), 65-88.
- 오세윤, 심혜인, 조운오 (2020). 가정 및 학교,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범죄심리연구, 16(1), 87-110.
- 오세현, 신지혜 (2021).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와 부모애착의 조절효과. 청소년문화포럼, 68, 5-32.
- 오인수 (2011). 초등학생 온라인 괴롭힘의 실태 및 오프라인 괴롭힘과의 비교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2(3), 75-98.
- 오인수 (2014). 성별에 따른 유형별 공격성과 전통적 괴롭힘 및 사이버 괴롭힘 가해의 관계. 상담학연구, 15(5), 1871-1885.
- 오인수, 이승연, 엄수정, 반지윤 (2019). 학교폭력 유형별 실태 및 영향 요인 탐색(Ⅰ): 사이버폭력의 실태 및 영향 요인 탐색. 학교폭력예방연구소.
- 오인수, 조규복, 반지윤 (2021). 토픽 모델링을 통해 분석한 교과연계 사이버폭력 예방 수업에 대한 학생의 인식. 교육혁신연구, 31(2), 77-114.
- 유상미, 김미량 (2011). 사이버폭력의 원인에 대한 구조모델의 제시와 검증.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4(1), 23-33.
- 윤미선, 김면주, 박정호 (2015). 사이버불링 경향성 진단도구 개발.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8(2), 59-70.
- 윤해성. (2009). 사이버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가천법학, 2(2), 49-79.
- 윤현주 (2021, 8월 18일).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학회 발표].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이덕난, 유지연 (2021). 코로나 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법제의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교육법학연구, 33(2), 161-185.

- 이미경, 홍상환 (2007). 초등학생의 분노유발상황에 초점을 둔 인지행동적 분노 조절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4(1), 1-22.
- 이선미, 유성경 (2013). 또래 괴롭힘 피해와 우울, 불안 관계에서 소극/회피적 대처행동과 공격적 대처행동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2), 1209-1226.
- 이성식 (2004).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이 언어플레이밍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경로모델의 제시와 검증. 형사정책, 16(2), 165-185.
- 이성식 (2005).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이 청소년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 기존 요인들과의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16(1), 77-108.
- 이세림, 김진영, 전종설 (2021).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청소년 사이버불링 키워드 분석. 청소년문화포럼, 68, 60-89.
- 이수경, 오인수 (2012). 사이버 괴롭힘과 오프라인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3(2), 137-161.
- 이승현, 강지현, 이원상 (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아름, 이윤주, 양현일 (2014). 고학년 초등학생의 공격성과 언어폭력성이 사이버 불링 피해 및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5(6), 2437-2450.
- 이완희, 황성현, 이창한, 문준섭 (2017). 한국 청소년 비행학. 피앤씨미디어.
- 이유진, 이창훈, 강지명, 이상희 (2014).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인태 (2012). 초등학생의 사이버불링 실태와 원인에 대한 조사연구: 경기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2, 91-118.
- 이정민 (2020).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운영방향. 형사정책, 32(1), 159-191.
- 이주형, 안순철 (201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불링에 대한 연구: 미국의 법적 대응의 특징과 법제 도입을 위한 검토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11(1), 133-157.
- 이혜미, 양소은, 김은미 (2016). 청소년의 온라인 유해정보 노출과 온라인 일탈 행동에 미치는 요인. 한국언론학보, 60(3), 209-236.
- 임상수 (2011). 사이버불링에 대한 윤리교육의 대응. 윤리연구, 81(1), 291-316.
- 임상수 (2013). 사이버불링에 대한 법률적 대응책의 허와 실- 학교폭력법의 사

- 이버 따돌림을 중심으로. *윤리연구*, 1(91), 107-125.
- 임숙희, 송영일, 곽대훈 (2018). 비행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사이버일탈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 17(4), 243-266.
- 장덕희, 윤현자, 신현진 (2020). 청소년의 폭력 피해경험이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8(10), 137-160.
- 전대성, 김동욱 (2015).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9(3), 157-180.
- 전신현, 이성식 (2010). 연구논문: 청소년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이버 집단 괴롭힘 현상의 원인 모색. *청소년학연구*, 17(11), 159-181.
- 전은숙 (2013). 청소년의 사이버 불링 경험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명지대학교 대학원).
- 전인식 (2021, 8월 18일).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학회 발표].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정 완 (2005). 사이버폭력의 피해 실태와 대응 방안. *피해자학연구*, 13(2), 329-359.
- 정문경 (2015). 청소년기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성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20), 195-211.
- 정아혜, 최윤경 (2020). 유사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여중생의 주변인으로서 반응 분석: 또래괴롭힘 가·피해 및 분노 경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1), 1-23.
- 정여주 (2021). 청소년 사이버폭력 문제와 상담. 학지사.
- 정여주, 김도일 (2012).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정서조절. *상담학 연구*, 13(2), 645-663.
- 정여주, 김한별, 전아영. (2016).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열린교육연구*, 24(3), 95-116.
- 정완 (2005). 사이버폭력의 피해실태와 대응방안. *피해자학연구*, 13(2), 329-359.
- 정지선 (2021).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학교폭력 피해 유형, 부모방임, 외로움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2(1), 2645-2659.

- 정태성 (2021). 초등학교 고학년의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한라 (2013). 국내외 사이버폭력 사례 및 각국의 대응방안.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10), 31-47.
- 정한호 (2012).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한 고찰. *청소년보호연구*, 20, 205-241.
- 조미경 (2014). 청소년의 우울 감소를 위한 사이코 드라마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박사학위, 중앙대학교 대학원).
- 조윤오 (2013a). 사이버불링 피해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0), 117-142.
- 조윤오 (2013b).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 실태 및 피해 유발 요인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4), 304-327.
- 조윤오 (2017). 청소년 사이버불링 유형화 연구: 상담가 의견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9(5), 279-305.
- 조준범 (2015).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연구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4), 71-92.
- 조희정 (2012). 청소년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의 현황과 대책. *이슈와 논점*, 457, 1-4.
- 주용완, 이계남, 최영준, 윤은정 (2017).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 주은선, 강주희, 백경은 (2019). 사이버폭력 경험 및 포커싱적 태도가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7(8), 293-301.
- 최두진, 장주병, 이주황, 김욱진, 배광덕, 이재인, 이채린 (2018). 2018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한국정보화진흥원.
- 최은선, 박남제 (2021).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학교 사이버폭력 대응에 대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타당성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31(5), 1071-1082.
- 최진오 (2015).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불안의 매개효과와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한국위기관리논집*, 11(5), 195-214.
- 최진오 (2016).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타인과 친구에 대한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불안의 매개효과.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9(4), 191-209.
- 푸른나무재단 (2021). 2021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연구 결과 보

고서. 푸른나무재단.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2015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가이드 활용매뉴얼 -영유아부터 성인·고령층까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바른 사용 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희정 (2015). 사이버불링. 커뮤니케이션북스.
- 허종렬 (2012). 교사의 학교폭력 대처 능력과 교원양성대학의 과제-법교육의 관점을 포함하여. *법과인권교육연구*, 5(2), 109-127.
- 홍솔지, 최윤경 (2017). 공감, 공정성, 도움행동의도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의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2), 39-60.
- 홍영수, 김동기 (2010).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자기통제감과 사이버 비행의 구조적 관계: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 127-148.
- Adler, P. T. (1982). An analysis of the concept of competence in individuals and social system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18(1), 34-45.
- Albert, R. E., & Emmons, M. L. (1975). *Stand up, speak out, talk back!: The key to self-assertive behavior*. Pocket Books.
- Aliyev, R., & Gengec, H. (2019). The effects of resilience and cyberbullying on self-esteem. *Journal of Education*, 199(3), 155-165.
- Angold, A., Costello, E. J., Erkanli, A., & Worthman, C. M. (1999). Pubertal changes in hormone levels and depression in girls. *Psychological Medicine*, 29(5), 1043-1053.
- Arsenio, W. F., & Lemerise, E. A. (2001). Varieties of childhood bullying: Values, emotion processes, and social competence. *Social Development*, 10(1), 59-73.
- Bauman, S., Toomey, R. B., & Walker, J. L. (2013). Associations among bullying, cyberbullying, and suicide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ce*, 36(2013), 341-350.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Harper and Row.

- Beckman L., Hagquist C., & Hellström L. (2012). Does the association with psychosomatic health problems differ between cyberbullying and traditional bullying? *Emotional and Behavioural Difficulties*, 17(3-4), 421-434.
- Bonanno R., & Hymel S. (2013). Cyber bullying and internalizing difficulties: above and beyond the impact of traditional forms of bullying.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42(5), 685-697.
- Brewer, G., & Kerslake. J. (2015). Cyberbullying, self-esteem, empathy and lonelines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8, 255-260.
- Camodeca, M., & Goossens, F. A. (2005). Aggression, social cognitions, anger and sadness in bullies and victi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2), 186-197.
- Campbell, M., Spears, B., Slee, P., Butler, D., & Kift, S. (2012). Victim's perceptions of traditional and cyberbullying and the psychosocial correlates of their victimization. *Emotion & Behavioral Difficulties*, 17, 389-401.
- Carter, J. M. (2011). *Examining the relationship among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parent and peer attachment, and cyberbullying in adolescents in urban and suburban environments* (Publication No. 368) [Doctoral dissertation, Wayne State University].
- Chang, F. C., Lee, C. M., Chiu, C. H., Hsi, W. Y., Huang, T. F., & Pan, Y. C. (2013). Relationships among cyberbullying, school bullying and mental health in Taiwanese adolescents. *Journal of School Health*, 83(6), 454-462.
- Combs, M. L., & Slaby, D. A. (1977). Social skills training with children. In B. B. Lahey & A. E. Kazdin (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Vol.1). Springer.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13-126.
- Dempsey, A. G., Sulkowski, M. L., Nichols, R., & Storch, E. A. (2009). Differences between peer victimization in cyber and physical settings

- and associated psychosocial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Psychology in the Schools*, 46(10), 965-972.
- Devine, P., & Lloyd, K. (2012). Internet use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10-year-old and 11-year-old children. *Child Care in Practice*, 18(1), 5-22.
- Egan, S. K., & Perry, D. G.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2), 299.
- Eisenberg, N. (1983). *The socialization and development of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Arizona: Arizona State University.
- Elglander. E. K. (2020). 사이버 괴롭힘의 이해와 대처. (오인수 역). 서울: 박영 story: 피와이메이트. (2013)
- Farrington, D. P. (2005). Childhood origins of antisocial behavior.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2(3), 177-190.
- Feindler, E. L., & Ecton, R. B. (1986). *Adolescent anger control: Cognitive-behavioral techniques*. Pergamon.
- Finkelhor, D., Mitchell, K. J., & Wolak, J. (2000). Online victimization: A report on the nation's youth.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 Fotti, S. A., Katz, L. Y., Afifi, T. O., & Cox, B. J. (2006). The associations between peer and parental relationships and suicidal behaviours in early adolescents.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1(11), 698-703.
- Fox, C. L., & Boulton, M. J. (2005). The social skills problems of victims of bullying: Self, peer and teacher perception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5(2), 313-328.
- Goebert, D., Else, I., Matsu, C., Chung-Do, J., & Chang, J. Y. (2011). The impact of cyberbullying on substance use and mental health in a multiethnic sample. *Maternal Child Health Journal*, 15(8), 1282-1286.
- Graham, S., & Juvonen, J. (1998). Self-blame and peer victimization in middle school: An attribution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34(3), 587-599.
- Grigg, D. W. (2010). Cyber-aggression: Definition and concept of cyberbullying.

- Australian Journal of Guidance & Counseling*, 20(2), 143-156.
- Hinduja, S., & Patchin, J. W. (2010). Bullying, cyberbullying, and suicide.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4, 206-221.
- Hinduja, S., & Patchin, J. W. (2012). Cyberbullying: Neither an epidemic nor a rarity.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9(5), 539-543.
- Hinduja, S., & Patchin, J. W. (2012). 사이버폭력(조아미, 박선영, 한영희, 이진숙, 김범구, 진영선, 이정민, 이원희 역). 정민사. (2009)
- Hinduja, S., & Patchin, J. W. (2007). Offline consequences of online victimization. *Journal of School Violence*, 6(3), 89-112.
- Hodges, E. V. E., Malone, M. J., & Perry, D. G. (1995). Behavioral and social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peer victimization. In N. R. Crick (Chair), *Recent trends in the study of peer victimization: Who is at risk and what are the consequences?*[Conference presentation].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Biennial Meeting, Indianapolis, IN.
- Juvonen, J., & Gross, E. F. (2008). Extending the school grounds?—Bullying experiences in cyberspace. *Journal of School Health*, 78(9), 496-505.
- Kessel, K., Myers, E., Stanley, S., & Reed, L. W. (2012). Trends in child and adolescent discharges at a New Zealand psychiatric inpatient unit between 1998 and 2007. *Journal of the New Zealand Medical Association*, 125(1355), 55-61.
- Kim, Y. S., & Leventhal, B. (2008). Bullying and suicide: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t Medicine & Health*, 20(2), 133-154.
- Klomek, A. B., Marrocco, F., Kleinman, M., Schonfeld, I. S., Gould, M. S. (2008). Peer victimization, depression and suicidality in adolescents. *Suicide Life Threat Behavior*, 38(2), 166-180.
- Kowalski R. M., & Limber S. P. (2013). Psychological, physical, and academic correlates of cyberbullying and traditional bullying.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3(1), 13-20.
- Kowalski, R. M., & Limber, S. P. (2007). Electronic bully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 22-30.

- Kowalski, R. M., Limber, S. P. & Agatston, R. W. (2012). *Cyberbullying: Bullying in the digital age*. Wiley-Blackwell Publishing.
- Kowalski, R. M., Morgan, C. A., & Limber, S. P. (2012). Traditional bullying as a potential warning sign of cyberbullying.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3(5), 505-519.
- Langos, C. (2012). Cyberbullying: The challenge to define. *Cyber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5(6), 285-289.
- Lee, S., & Chun, J. (2020). Conceptualizing the impacts of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mong Korean male adolescen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17, 1-8.
- Li, Q. (2007). New bottle but old wine: A research of cyberbullying in school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3(4), 1777-1791.
- Mazza, J. J., & Reynolds, W. M. (1999). Exposure to violence in young inner-city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suicidal ideation, depression, and PTSD symptomatolog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7(3), 203-213.
- Merrell, K. W., & Gimpel, G. A. (1998). *Social skill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treatment*.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ishna, F., Khoury-Kassabri, M., Gadalla, T., & Daciuk, J. (2012). Risk factors for involvement in cyber bullying: victims, bullies, and bully-victims, *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 34(2012), 63-70.
- Nixon, C. L. (2014). Current perspectives: the impact of cyberbullying on adolescent health. *Medicine and Therapeutics*, 2014(5), 143-158.
- Olweus, D. (1993). *Bullying in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Blackwell Publishing.
- Olweus, D. (1994).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iatry*, 35(7), 1171-1190.
- Ortega, R., Elipe, P., Mora-Merchan, J., Genta, M., Brighi, A., Guarini, A., Smith, P. K., Thompson, F., & Tippett, N. (2012). The emotional

- impact of bullying and cyberbullying on victims: A European cross-national study. *Aggressive Behavior*, 38(5), 342-356.
- Palermi, A. L., Servidio, R., Bartolo, M. G., & Costabile, A. (2016). Cyberbullying and self-esteem: An Italian stud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9, 136-141.
- Patchin, J. W., & Hinduja S. (2015). Measuring cyberbullying: Implication for research.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23, 69-74.
- Patchin, J. W., & Hinduja, S. (2006). Bullies move beyond the schoolyard: A preliminary look at cyber bullying.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4(2), 148-169.
- Patchin, J. W., & Hinduja, S. (2015). 사이버폭력 앞의 아이들: 청소년을 위한 사이버 불링 대응 매뉴얼. (문경숙, 김대회, 김용련 역). 상상박물관. (2013)
- Perren, S., Dooley, J., Shaw, T., & Cross, D. (2010). Bullying in school and cyberspace : Associations with depressive symptoms in Swiss and Australian adolescent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4(1), 1-10.
- Price, M., Chin, M. A., Higa-McMillan, C., Kim, S., & Frueh, B. C. (2013). Prevalence and internalizing problems of ethn racially diverse victims of traditional and cyber bullying. *School Mental Health*, 5(4), 183-191.
- Rigby, K. (2008). *Children and bullying: How parents and educators can reduce bullying at school*. Blackwell Publishing.
- Rose, C. A., & Tynes, B. M. (2015).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cybervictimization and mental health among U.S.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7(3), 305-31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lmivalli, C., Karhunen, J., & Lagerspetz, K. M. (1996). How do the victims respond to bullying?.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22(2), 99-109.
- Schneider, D., Regenbogen, C., Kellermann, T., Finkelmeyer, A., Kohn,

- N., Derntl, B., & Habel, U. (2012). Empathic behavioral and physiological responses to dynamic stimuli in depression. *Psychiatry Research*, 200(2-3), 294-305.
- Schneider, S. K., O'Donnell, L., Stueve, A., & Coulter, R. W. S. (2012). Cyberbullying, school bully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regional census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Public Health*, 102(1), 171-177.
- Schwartz, D., Dodge, K. A., & Coie, J. D. (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4(6), 1755-1772.
- Shaffer, D. (1994). Debate and argument: Structured interviews for a assessing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4), 783-784.
- Smith, P. K., Del Barrio, C., & Tokunaga, R. S. (2013). Definitions of bullying and cyberbullying: How useful are the terms. In S. Bauman, D. Cross, & J. L. Walker (Eds.). *Principles of cyberbullying research: Definitions, measures, and methodology* (pp. 26-40). Routledge Press.
- Smith, P. K., Mahdavi, J., Carvalho, M., Fisher, S., Russell, S., & Tippett, N. (2008). Cyberbullying: its nature and impact in secondary school pupil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4), 376-385.
- Sontag, L. M., Clemans, K. H., Graber, J. A., & Lyndon, S. T. (2011). Traditional and cyber aggressors and victims: A comparison of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 392-404.
- Sourander, A., Klomek, A. B., Ikonen, M., Lindroos, J., Luntamo, T., Koskelainen, M., Ristkari, T., & Helenius, H. (2010). Psychosocial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cyberbullying among adolescents: A population-based stud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7(7), 720-728.
- Toda, Y. & Oh, I. (2020). *Tackling cyberbullying and related problems: Innovative usage of games, apps and manga*. Routledge.

- Tokunaga, R. S. (2010). Following you home from school: A critical review and synthesis of research on cyberbullying victimiza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6*, 277-287.
- Tomşa, R., Jenaro, C., Campbell, M., & Neacşu, D. (2013). Student's experiences with traditional bullying and cyberbullying: findings from a Romanian sample.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78*, 586-590.
- van den Eijnden, R., Vermulst, A., van Rooij, A. J., Scholte, R., & van de Mheen, D. (2014). The bidirectional relationships between online victimization and psychosocial problems in adolescents: a comparison with real-life victimiz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3*(5), 790-802.
- Vandelbosch, H., & Cleemput, V. (2009). Cyberbullying among youngsters: Profiles of bullies and victims. *New Media & Society, 11*(8), 1349-1371.
- Varjas, K., Henrich, C. C., & Meyers, J. (2009). Urban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bullying, cyberbullying, and school safety.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8*(2), 159-176.
- Wang, J., Nansel, T., & Lannotti, R. (2010). Cyber and traditional bullying: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depress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8*(4), 415-17.
- Wigderson S., & Lynch, M. (2013). Cyber and traditional peer victimization: unique relationships with adolescent well-being. *Psychology of Violence, 3*(4), 297-309.
- Willard, N. E. (2007). *Cyberbullying and Cyberthreats: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online social aggression, threats, and distress*. Research Press.
- Williams, K. D, Cheung, C. T., & Choi, W. (2000). Cyberostracism: Effects of being ignored over the intern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48-762.

Ybarra, M. L., & Mitchell, K. J. (2004). Online aggressor/targets, aggressors, and targets: A comparison of associated youth characteristic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7), 1308-1316.

Zimbardo, P. G. (1969). The human choice: Individuation, reason, and order vs. deindividuation, impulse and chaos. In W. J. Arnold & D. Levine (Ed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pp. 237-307).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인터넷 기사)

김문희 (2021년 3월 22일). 외모 조롱하는 사이버폭력도 똑같은 학폭[fn이사람].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221847042005>

김영훈 (2021년 2월 1일). 교실선 암전하던 애도 온라인선 욕설...채팅방은 출구 없는 감옥.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0422560002257>

박우진 (2020년 8월 4일). 사이버 학교 폭력에 멍드는 청소년. *대전일보*. http://m.daejonilbo.com/mnews.asp?pk_no=1434019

백운 (2018년 9월 12일). '사이버폭력'에 목숨 끊은 학생...죽음까지 조롱한 가해자. SBS 8시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32269&plink=ORI&cooper=NAVER

손현규 (2021년 11월 3일). '인천 여고생 오물 폭행' 10대들, 작년에도 또래 괴롭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3057900065?input=1195m>

송옥진 (2019년 10월 14일). 사이버 공간서 더 교묘해진 '학폭'.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131738754683>

신영경 (2021년 3월 8일). 학교폭력도 '언택트'...더 교묘해진 사이버불링, 피할 곳이 없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pecial/special_section/2021/03/08/AJ2S6IV2LFAXBNIL3WUSXYWMRQ/

이우림 (2020년 10월 31일). "좀 만졌다고 신고했냐" 성폭력 피해 여중생 올린 익명 채팅앱.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08282#home>

장휘 (2018년 10월 22일). 도넛은 사이버폭력...③'기프트콘·와이파이 셔플'까지. *이데일리*. <http://snaptime.edaily.co.kr/2018/10/>

- 전완수 (2021년 9월 30일). 애플 청소년 유해차단 앱, 정부·통신사 실패파악조차 안돼. 시사브리핑. <http://www.n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85>.
- 정락인 (2018년 10월 5일). 사이버로 옮겨 간 학교폭력 망령 '사이버불링'. 시사저널.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909>
- 정유진 (2014년 9월 30일). [더 나은 미래] II 청소년 - "게임 캐릭터 레벨업 해라" 이것도 폭력?.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29/2014092902890.html
- 정인혜 (2018년 4월 19일). 진화하는 교실 왕따...휴대폰 데이터 빼앗는 '와이파이 셔틀' 기승. 시빅뉴스.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23>
- 조기호 (2019년 6월 8일). 범죄를 장난처럼...사이버 성폭력에 멍드는 청소년들. SBS 8시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01161
- 조성미 (2020년 4월 5일). [OK!제보] '카톡 감옥' 아세요...벼랑끝 내모는 사이버 괴롭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3137600505>
- 허미담 (2018년 4월 26일). "자기 보고싶어" SNS 스토킹을 아시나요.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18042509221741110>
- 허미담 (2021년 1월 25일) 은밀한 괴롭힘 '사이버 왕따'...오늘도 '카톡감옥'에 갇혔다.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12211190728995>
- 황민규 (2020년 9월 15일). SNS 시대, 폭력보다 무서운 '사이버불링'...막을 방법 있을까.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15/2020091502302.html

(웹사이트)

- Belsey, B. (2019, March 24). Cyberbullying: *An emerging threat to the "always on" generation*. Bill Belsey. <https://billbelsey.com/?p=1827>
- Hinduja, S. & Patchin, J. W. (2014, August 11). *State Cyberbullying Laws: A Brief Review of State Cyberbullying Laws and Policies*. Cyberbullying. http://www.cyberbullying.us/Bullying_and_Cyberbullying_Laws.pdf
- Roman, P., & Rorie, D. (2007). *How is cyberbullying affecting your kids?*. Boston Children's Hospital. www.childrenshospital.org/dream/dream_fall0.
- Zahid, M. (2010, September 24). *Cyberbullying causes more depression*. Sooper

Articles.https://www.sooperarticles.com/education-articles/cyberbullying-causes-more-depression-167432.html?page_tag=RpsEfqsHr-3t63Ux1EQd-BAlkVU2BhOIVOtLt3-ZAi5U-8BgU8Oj0ORj8zF0H0fbfgVEtywMroRf5qG5mZ6Zw

연구자료 RM 2022-09

사이버폭력 연수 프로그램 표준안 개발을 위한 연구

발행 2022년 02월 28일

발행인 서 유 미

발행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keris.or.kr)

주소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64
전화: (053) 714-0114

등록 제22-1584호(1999년 7월 3일)

인쇄처 기쁨 D&P
전화: 1800-2173

ISBN 979-11-6555-249-7(93370)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비매품>



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www.keris.or.kr